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2월 27일(음력 1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668 호

문화재청에 문화재관람료 인상 승인 권한 부여

"문화재보호법개정안 개악"

문화재청·문광부 반대에도 법안 통과
조계종 '산문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
문광위 '번안동의' 가결 사태진화 나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불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2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교계와 정부가 논의를 지속해 온 사안이었음에도, 국회에서 전격 개악법이 통과되자 불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조계종은 22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같은 날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번안동의'를 가결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가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람료 징수에 대해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문화재청으로 넘어간 셈이다. 앞으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을 늘이거나 관람료를 인상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기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이 이를 어기고 관람료를 징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발의에서 통과까지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07년 3월 22일 지병문 의원(통합민주신당)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같은 해 11월 19일 제269회 국회는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2006년 11월 20일), 손봉숙 의원(2006년 12월 20일, 200), 지병문 의원(2007년 2월 9일)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후 통합 · 조정안을 도출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11월 20일 제10차 문화관광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12월 26일 제270회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 대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당시 상정된 대안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반대 입장이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안은 2월 19일 법사위에서 의결돼 같은 날 오후 제271회 본회의에서 전격 가결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병문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관람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찰들이 사찰과 멀리 떨어진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매표소 이전 및 관람료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계종은 물론 개정안을 검토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은 "문화재 보조금과 문화재관람료는 불교에 대한 이중지원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독립적 법집행"이라며 "개정안은 1995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는 "개정안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직제상의 문제 및 업무효율성의 저하가 예산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역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문화재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려면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통제 · 관리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의욕과 자율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법안 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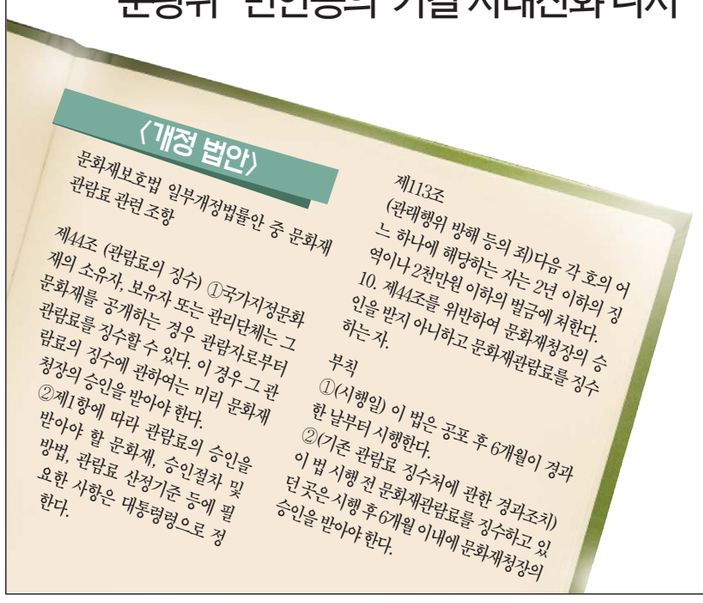
#향후 불교계 대응은?

법안 통과 직후인 2월 22일 조계종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산문폐쇄 등 모든 법적, 물리적 행동을 통해 법률안을 백지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개악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졸속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문화관광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 ▲문화관광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강경 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같은 날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번안동의'를 가결하고 법안 폐기절차를 밟았다. 번안(飜案)동의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을 번복 ·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안 가결 전후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장치다.

국회 문광위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번안동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번안동의안은 2월 25~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번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번안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항의 집회나 산문폐쇄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청와대에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월 26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를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 18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된 법률에 대한 또 다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2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단 차원에서 법률안 통과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불교계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개악 법률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조동섭 기자





"걸망 지고 또 다른 수행 속으로"
정해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1일, 전국 사찰에서 해제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도 안거에 들었던 수행납자들이 산문(山門)을 나섰다. 정해년 동안거 기간 동안 전국 선원에서 23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안거 정진했다.
순천 송광사=박재완 기자





서암 종정 복권과 승려분한 회복 촉구성명

한국불교사와 조계종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과오를 든다면 그것은 90년대 종단사태와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을 불신임 결의를 한 잘못일 것입니다. 아울러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회손과 함께 인적청산이란 목표 아래 원로 중진 승려들까지 궐석심판으로 치탈한 위헌입니다.

이에 우납(愚衲)은 사건 발생 이래 제도권의 사면추진을 지켜보아 온지 13년여, 서암 종정 열반 5주기를 1개월을 앞두고 감히 종단에 서암 종정의 복권과 치탈된 승려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사부중의 이해와 출가중의 동참으로 화합포살(和合布薩)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함을 밝혀둡니다.

1. 94년 4월 5일, 4월 10일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당시 의장직을 겸하고 있던 서암 종정의 재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하지 않고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원로회의 소집에 관한 종헌 제27조 ②항과 제33조의 위반입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소집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서암 종정의 여법한 교시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없습니다.

2. 서암 종정의 4월 9일자 승려대회 금지교시는 종통의 승계자(종헌 제19조)로서 종단 쟁사 해결의 기본법(종헌 제 9조 ①항 具足戒 · 七滅諍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법했습니다. 따라서 동 교시를 문제삼아 4월 10일 비법별중(非法別衆)의 승려대회에서 임석하고 있지 않는 종정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비법이자 별중의 결의로 무효입니다.

3. 위 원로회의의 2차례 결의에 의해 개최된 4월 10일자 승려대회(이하 4 · 10 승려대회)의 개최와 그 결의 그리고 승려대회에 참가한 대중의 총무원 청사 점령은 앞서 언급한 본 조계종 종헌상의 분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종헌 제9조 1항 구족계 · 칠멸쟁법)의 위반이자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4. 본인은 당시 종정 사서실장으로 제도권에 서암 종정의 복권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서암 종정의 복권은 4 · 10 원로회의에서 불신임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 4 · 10 승려대회에 참석한 대중으로 하여금 동의토록 유도한 사회자와 대회장의 망어를 대신하는 참회이자 94년 종단사태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비법멸증의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한 개혁회의 호법부와 호계위원회는 피징계자들에 대한 문책, 진술, 자백 등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법에 근거해 궐석심판으로 원로 중진승려를 치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종헌상의 칠멸쟁법과 율장의 모든 징벌갈마규범에도 반합니다.

이상과 같은 촉구성명에 대한 제도권의 태도를 지켜 본 다음 관계자들과 협의 후에 현행 승려법 제46조 3항, 동 제54조 3항 동 조계종의 정체성 문제까지를 포함해 보다 상세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정예하를 비롯한 관련 종단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확실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산 원로의장을 비롯해 사면을 간곡히 권고해 온 원로회의와 사면에 동의해주신 종회의원스님들 그리고 사면추진과 신문지상을 통해 사면을 주장해주신 출가중과 재가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2. 18

園頭 合掌 (당시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집중기획 국보1호 숭례문 전소

사찰 목조문화재는 안전한가

대다수 사찰 선임 의무 없어

600m² 이상 건축물만 해당…문화재 관련 별도 조항 마련 절실

●사찰 방화관리자 왜 없나

#가상 상황 1. 국가지정문화재인 목조 건축물을 소유한 산중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처럼 국가 지정문화재가 화마에 사로잡힌 것이다. 시간은 자정을 넘긴 밤이고 화재가 난 건물의 경보기가 작동해 대중들이 화재 사실을 알고 달려 나왔다. 불길이 점점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 대중들은 소화전의 호스를 끌어 오고 소화기를 찾기에 분주하다. 소화전의 호스를 끌어 왔지만 방화수 밸브를 돌리고 물을 뿌리는 과정까지 서툴기 그지없다. 소화기를 찾아 든 사람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안전핀을 뽑고 분말을 뿌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어느 곳을 겨냥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허둥지둥 하는 대중들을 통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를 진두지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길은 점점 더 크게 번지는데….

#가상 상황 2.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대중들이 달려 나온 것까지는 앞의 상황과 같다. 다른 것은 이 대중들이 소화전과 소화기 갈고리와 양동이 등 소방장비가 있는 위치로 달려가고, 총무스님이 재빨리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총무스님은 "A 스님은 소화전 호스를 끌어오고 B 스님은 소화전의 밸브를 돌리세요. C 스님과 D 스님 소화전 호스 끄는 일을 돕고 물 뿌릴 때 압력이 세니까 함께 붙잡아 주세요"라며 큰 소리로 현장을 지휘한다. 평소에 '소화기 담당'으로 임무를 맡았던 스님에게 소화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대중들에게 주변 건물들에 물을 뿌리고 내부의 중요한 물품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한다. 불이 난 건물의 불길은 조금씩 기세를 잃어간다.

산중의 사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 방화관리자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훈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하는데 미숙할 수 있다고 볼 때, 1년에 한 두 차례 소방훈련을 해본 경험으로 실제 화재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찰목조문화재를 화마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즉, 방화관리자의 상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기적인 모의 훈련과 진화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위해 상주하는 전문가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 방화관리자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관계법령에 의해 자격증을 획득한 방화 전문가다.

그렇다면 사찰에 방화관리자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행 법률상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연면적이 600㎡ 이상 경우 등에는 2급 방화관리자를, 1만5000㎡나 11층 이상 건물 등의 경우는 1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급 사찰목조건축물은 대부분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면적이므로 방화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다. 무엇보다 이 법은 단독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러 채의 목조건축이 연접해 있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갖지 않는다. 이와 관련, 서울 종로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해서라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화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만 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소방차 출동시간까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LA 모하비 사막에 태고사를 창건한 무량 스님의 경우, 사찰의 낙성에 맞춰 소방당국의 교육을 받고 방화관리 관련 자격증을 획득했다. 태고사의 위치가 미국의 소방관계법에서 정하는 소방차의 최단 출동시간 10분을 넘어서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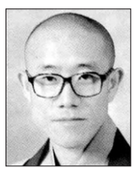
국가지정 문화재급 사찰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고 스님 혹은 종무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뒤 소방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교계 여론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임연태 기자

초격 · 승언 스님

관음사 종회의원 선출



초격 스님.



승언 스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종회의원에 초격 스님과 승언 스님이 선출됐다.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만화)는 2월 22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초격(보광사 주지) · 승언(흥부암) 스님은 각각 10표를 획득해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후보 법정 스님은 8표, 혜민 스님은 4표를 얻었다. 이날 선거에서 총 33명의 선거인단 중 32명이 참가했다.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에는 당초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진아 스님과 현강 스님이 사퇴한데 이어 선거 당일 도종 스님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도종 스님은 초격 스님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168명 입교

제34기 지원자 집계

조계종 제34기 행자교육원에 168명이 입교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 행자교육원(원장 성웅)이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하는 제34기 행자교육원에는 남 행자 116명, 여 행자 52명 등 총 168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교자들은 2월 26일 오후 12시 30분 입방고사를 치른 후 오후 2시부터 갈마를 거치게 된다. 또한 22일간의 일정을 수료한 후 3월 18일 치러지는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입교자들을 대상으로 3월 19일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91년 8월 제1기 행자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매 기수별로 200~25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왔으나 IMF 직후인 1997~1998년 180~200명 선으로 감소했다. 현재는 150~200명 선에 이르고 있다. 여수령 기자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올해 봉축표어로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로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2월 21일, 지난 1월 실시한 봉축표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30점에 대한 심사 결과 정진희(서울 양천구)씨가 응모한 표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봉축위원회는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표어가 '생활 속에서의 수행과 치열한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초청으로 2월 19일부터 4일간 방한한 중국 숭산 소림사 20여 스님들이 신촌 봉원사서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소림무술 정수 보여 드립니다"

신촌 봉원사서 시범 선봬

"이얍, 얏…!"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 웬 소림사 스님들이 나타났을까?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총무원장 덕산) 초청으로 2월 19일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방장스님 등 20여 소림사 스님들이 방한, 태고종 영산재 시연 관람에 이어 화려하고 빠른 소림무술을 선보였다.

500여 불자들은 묘기가 속출할 때마다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스융신 스님은 "한국 전통불교문화 의식인 영산재에서 보여주는 춤사위는 장엄한 느낌을 준다"며 "중국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선(禪)적인 느낌을 전해 줘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덕산 총무원장도 "은사인 스융신 스님을 모시고 한국 불교문화와 소림불교문화를 서로 보여주며 양국의 불교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출범한 소림불교문화원 발족을 계기로 꾸준히 소림불교문화를 한국에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 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분담금 제도 개선"

조계종 중앙종회 공청회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가 사찰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정분과위 산하 '사찰과 종단의 재정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초격)'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초격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경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종법안'을 주제발제 한다. 이어 장적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과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분담금 부과 현황과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는 한편, 현행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과 종류를 살펴본다. 또한 분담금 관련 법안 제 ·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연구모임은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회 정식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2008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8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 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호적	10명	6개월

②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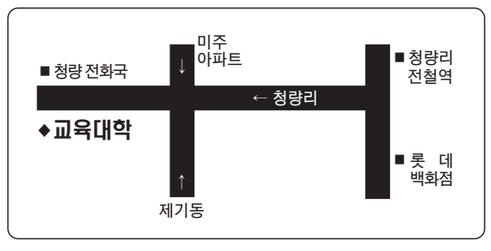
③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8年 2月 21日 ~ 3月 5日
▶ 입 학 일 : 2008年 3月 6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임명수(혜산)

“사찰경영 CMS제도 도입을”

〈자금관리서비스〉

실천불교승가회 첫 종책 제안
‘재정 투명성 확보 기여’ 기대

사찰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성관·효림)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사찰경영의 첫 종책으로 ‘자금관리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CMS는 정기적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본정보를 제공해 지출하는 결제서비스다.

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가섭 스님은 “CMS 제도는 사찰재정을 예측가능하게 해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찰 재정의 50% 내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사찰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CMS 제도는 실천불교승가회 소속회원 사찰 일부에서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용인의 좋은절과 수미산불국사, 부산 미타선원 등에서 사찰CM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CMS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효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은 “CMS 제도는 소규모 사찰의 경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종단차원에서 CMS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천불교승가회는 내달부터 회원 소속사찰을 중심으로 CMS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원우회가 2월 21일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 나누는 헌혈 팔 걷어요”

조계종 원우회·신도 등 150여명 동참

조계종 종무원 조합 원우회(회장 장영욱)가 ‘헌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원우회는 2월 21일 하루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함께 ‘헌혈로 실천하는 생명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원우회의 이날 행사는 뜻 깊은 행사를 펼침으로써 동안거를 원만하게 회향하고 원우회 활동을 앞으로 봉사 · 나눔에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류창화(조계종 교육원 교육팀 · 29)씨는 “요즘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차량을 발견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헌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총무원 부·국장스님, 조계사 종무원, 신도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해 생명나눔의 의미가 더해졌다.

한편 원우회는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 증서를 모두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올 예산 35억여원…전년比 14%↓

중앙승가대 제77차 이사회 개최

2008년 중앙승가대의 살림규모가 34억 84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교(이사장 지관)은 2월 19일 열린 제77차 이사회에서 2008학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운영예산 심의의결안을 결의했다.

올해 살림규모 35억여원은 지난해 학교수입 35억 5300만원보다 1.95%, 금액으로는 6900만원 감소된 것이다. 법인 운영예산도 22억 5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5억 7700만원에서 13.82% 줄어든 것은 작년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3억50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함께 상정된 안건은 ▲법인 및 대학 자금 운영예산 심의 ▲정관변경 ▲교원승진 임용 등 4건이었다.

정관변경과 관련해 현재의 당연직 이사 조항을 유지하되, 종단 2인 추천, 이사장 2인 추천, 대학 1인 추천으로 5명의 개방이사추천위를 통해 4명의 개방이사를 두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외에 지난해 11월 20일 출범된 후원회의 운영과 승가대의 미래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단이사인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이 올해 후원금 모연 예상액을 묻자, 월우 스님(총무처장)이 “수입예상은 3억원정도 된다. 인건비 900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입 2억원을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념 스님은 “미래지향적 승가교육을 위해 예산규모가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숙사 및 도서관 설립, 연구기능 활성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하며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학교의 장기적 전망이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범 스님(승가대 학장)은 “개운사 시절 개운사에서 기숙사 및 공양을 해결해줬다. 김포학사 이전 후 기숙사 유지비 등 부담이 크다. 현재도 매년 1억 이상 개운사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지만 학교 살림규모를 늘려 시설투자를 확대할 방법은 후원 등 기부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템플스테이 부스 설치

여행박람회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리는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관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구석구석 놀라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열린 4회 박람회에 설치된 템플스테이 부스에는 1만9000여 명의 참관객이 찾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여 곳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운영하며 참관객들에게 지도형 리플릿과 전국 70여 사찰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동국대, 로스쿨 관련 법적조치

제1차 회의부터 파행운영 됐던 로스쿨 대책위와는 별도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본격 법적조치에 나섰다.

동국대 방희선 학장(법과대) 등은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2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했다.

방희선 학장은 “시위 등 자극적인 활동은 지양하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나설 때다. 이번 소송안 제출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적·사회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낙산사서 ‘숭례문 49재’ 연다

3월 29일 영상물 등 전시

2월 11일 전소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의 넋을 기리는 49재가 양양 낙산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낙산사와 양양군은 숭례문 전소 49일째인 3월 29일 낙산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인해 희생된 숭례문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지내기로 결정했다”며 “3년전 낙산사도 같은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어 우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경희대 관광대학원 안경모 교수가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과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제안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렸다. 추모제에서는 숭례문과 낙산사 등의 문화재 소실 후 남은 재(材)와 관련 영상물 등도 전시된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3주년 기념 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재단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계 사회복지실천가들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상호교류를 나누고 불교사회복지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봉암사 수좌스님들 성명서

‘수많은 생명체의 터전을 허물고 국토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막아야 한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선방 수좌스님들이 2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암사 스님들은 “해탈과 생명, 민주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며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으뜸은 ‘불살생’인데 대운하 계획은 대량 살상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봉암사 스님들은 “인류 역사상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실천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대운하 건설 계획을 보노라면 절차적 민주성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운하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여성불자 108인 선정’ 불교여성개발원 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사회에서 공헌하는 불자여성들을 독려하고 여성불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가졌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은 불교여성개발원이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반 여성에도 귀감이 될 만한 여성불자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여성불자 전문인력 저변 확대는 물론 여성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3차 여성불자에는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선우용녀, 전원주씨 등도 포함됐다.

김강진 기자



해인사승가대학으로 오십시요.
신심과 원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탐구와 수행의 길을 밝게 열어드립니다.
시대에 능동적인 참 수행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2551(2007)년 1학기에 학제와 교과를 일신하였습니다.
경,율,론 삼장을 교과목에 균형있게 안배하였고, 한문경전의 강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교육에다 불교 주요사상을 현대감각으로 논리를 갖춰 이해하고자 하는 현대교과를 보충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교의 연기,공,무아가 전통과 현대 속에서 소통되고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도반이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선배가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불기 2552학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신입생 입학 안내

학 년	1학기	2학기
1	문학연습 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약본 치문 강독 한문기초, 불전한어	문학연습 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약본 치문 강독, 한문기초, 불전한어
	초기불교, 아비달마, 인도불교사 1	한국불교문선강독, 율장개론, 동양철학의 이해
2	문학연습 I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문학연습 IV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화엄경(화엄경 개요), 인도불교사 2, 서양철학의 이해 1	반야부(금강경, 유마경, 팔천송반야경, 반야심경) 중관사상, 중국불교사
3	문학연습 I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신론, 능엄경, 한국불교사, 서양철학의 이해 1	열반경, 법화경,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 불교문화, 불전의식
4	육조단경, 돈오입도요문론, 서장, 선원제전집도서, 선요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과목 이상 수강 선종사, 졸업논문 I	종단의 이해 졸업논문 II

- 모집인원 1학년 00명
- 구비서류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약식) 1부
  자기소개서(자필) 1부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2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은사스님 인적사항(법명, 속명(한글,한자),당호,주민등록번호,승적번호)
- 준 비 물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8매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장삼,발우,필기도구,도장(법명)
  주민등록 주소 이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 전형일자 서류접수마감:불기 2552년 3월 27일(음력 2월 20일) 목요일
  필기시험:불기 2552년 3월 29일(음력 2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시험과목:기초교리,초발심자경문,사미율의
  면접시험:불기 2552년 3월 29일 오후2시
  합격자발표:불기 2552년 3월 29일 오후6시
  입방일:불기 2552년 3월 30일

문의처 ☎055)934-3081, 3043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해인사 주지 연암 현응 · 학장 백강 법진

찰간을 꺾어버리는 도리까지 참구하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사형에게 금란가사를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특별히 따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러자 가섭이 말했습니다.

"아난이여!"

가섭이 부르는 소리에 아난은 대답했습니다.

"예!"

이에 가섭은 다시 말했습니다.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

(중략)

치열한 정진 속에서 해제를 맞이하여 제대로 안목이 열린 납자라면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말까지도 본래 쓰러뜨리고 말고 할 찰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으로는 금을 바꿀 수 없고 물로는 물을 씻을 수 없는 도리인 까닭입니다. 만일 가섭과 아난이 서로 전한 것이 있거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생사(生死)의 흐름에 쓸려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공안이 없었다면 참으로 모두가 생사를 받느라고 요란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다시 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존의 금란가사' 공안을 걸망에 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찰간(刹竿)을 꺾어버리라'는 그 도리까지 함께 참구하고 또 참구할 일입니다.

빙소하북안(氷消河北岸)하고
화발수남지(花發樹南枝)로다.
이 얼음은 강 북쪽 언덕에서 녹고
꽃은 나무 남쪽가지에서 핀다.



(하략)

분별심 버리고 본참공안 참구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나는 오늘 해제법문(解制法門)으로 발심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선지식이신 백은혜학(白隱慧鶴) 선사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백은선사는 눈 밝은 지도자를 못 만나 선관책진(禪關策進)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쳤으나 인가해 줄 스승이 없었다. 토굴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내가 만일 바로 깨쳤으면 거꾸로 흘러가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고 깨쳤다는 자신을 얻고 나서 종횡무진(縱橫無盡)으로 법문을 설하고 다니다가 어떤 거사를 만났는데 거사가 하는 말이 스님이 정말 깨쳤거든 손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라고 하자 할 말이 없었다.

스님은 그 후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 정진을 하던 중 처마 밑 아궁이에서 군불을 때게 되었는데 마침 비가 오자 처마 밑에 반신(半身)은 마르고 처마밖에 반신은 비에 젖는 것을 보고 크게 깨쳤다. 그 후 스님은 쳑수포대(隻手布袋) 손 하나만 들고 있는 포대화상을 많이 그려서 공부하는 이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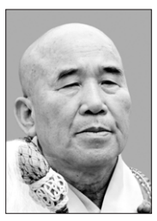
금일대중은 이 법문을 듣고 언하에 깨닫지 못했거든 분별심으로 헤아려 알고져 하지 말고 본참공안(本參公案)만 열심히 참구하라

금생에 깨치지 못하면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 시주의 은혜를 언제 갚겠는가

야운조사께서 자경(自警)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빚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무수원자상고지(無首猿子上枯枝)로다.
머리없는 원숭이 새끼가 마른 나무가지로 올라가는구나.

설산수도의 자세로 정진하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설후시지송백조(雪後始知松栢操) 요.사난방견장부심(事難方見丈夫心)이로다

눈이 내린 뒤라야 송백의 지조를 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누가 장부인지 알 수 있다.

벌써 구십일의 안거가 지나 해제 날을 맞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합니까? 진정으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대중들이 각자 한 입씩 생철을 씹었습니다. 얼마나 물러졌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고인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내봐야 어느 것이 군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대중들은 분명 마음속에 설산수도의 자세로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제하는 대중들은 수행자의 지조를 지녔을 것입니다.

생철같은 공부가 조금 물러졌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일하게 하라는 말을 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제니 해제니 하는 말은 지혜롭게 완급을 잘 조절하라는 뜻이지 놓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략)

해제하고 나서는 대중들은 당당하게 본분을 향해 나아갔다가 영축산으로 다시 돌아와 살찌고 맛난 향기로운 풀만 먹는다는 백우처럼 참 선지식이 되어 인천의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략)

다시 발심하고 새 결제 할 때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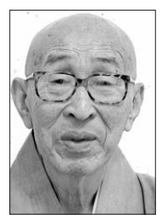
해제가 됐다고 어떻게 방심(放心)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제라고 하는 것은 생사영단(生死永斷)해야만 해제인데, 생사영단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해제한 것이 아니야.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영단해서 성불(成佛)할 경지에 올라가야 해제지.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제냐 말이야. 해제했다고 모두가 걸망 짊어지고 제 맘대로 방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해제가 아니야.

해제하고서도 내가 참학(參學)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시 발심을 해야 하고, 다시 제 결심을 해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해제가 바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해제한다고 마음 놓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마음을 동여매 가지고 다시 발심해서 새 결제를 해야 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덕숭산의 기반처럼, 성불(成佛)의 기틀이 움직이지 않고 꾸준히 그대로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화우후령낙하(桃花雨後零落下)
염득일계류수홍(染得一溪流水紅)
복숭아꽃이 비 온 뒤에 떨어지는데
계곡 흐르는 물이 붉게 물들었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하략)

수행자의 본분사를 깨달아야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달마(達磨)는 부래동토(不來東土)하고 이조(二祖)는 부왕서천(不往西天)이라 인인벽립만인(人人壁立萬仞)이요 개개상광현전(個個常光現前)이로다. 대중(大衆)은 환지락처마(還知落處麼)아 약야미지(若也未知)인댄 간취고인갈등(看取古人葛藤)하라.

거(擧) 취암 (翠巖)이 동말(冬末)에 시중운(示衆云) 일동이래(一冬以來)에 위형제설화(爲兄弟說話)하니 간취암미모재마(看翠巖眉毛在麼)아 보복운작적인심허(保福云作賊人心虛)니라 장경운(長慶云) 생야(生也)라 운문운(雲門云) 관(關)이라 하니 태허요곽만휘삼연(太虛寥廓萬彙森然)하고 정안동명직호부립(正眼洞明織毫不立)이라 고준처조사막근(孤峻處祖師莫近)하며 탄이처인천공지(坦夷處人天共知)로다.

양구 운(良久 云)

천성부전미묘결(千聖不傳微妙訣)하고 학봉고정유인행(鶴峯孤頂有人行)이로다.

초조 달마 스님은 동토 중국에 오지 아니하고 이조 혜가는 서천 인도에 가지 아니하였다. 사람 사람이 우뚝한 벽만길이요, 낱낱이 항상 광명을 현전하도다. 대중은 도리어 구경의 입장을 아는가? 만일 알지 못하면 고인의 갈등을 깨달으라.

드노니 취암 스님이 동안거의 종말에 대중에게 말하기를 "한 겨울 동안 형제를 위하여 법문 하였으니, 보아라 취암의 눈썹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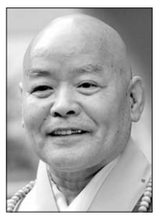
보복 스님이 말하기를 "도적의 마음은 거짓 속임수이니라." 장경 스님이 말하기를 "나왔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꼭 가두었다" 하니, 허공은 텅 비었으나 만물이 죽 늘어 있고 바른 눈이 훤출히 밝으나 가는 털도 있지 아니하다.

(중략)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어떤 것이 본분사인고,

"천이나 되는 성인도 미묘한 비결을 전하지 아니하고 백학봉 우뚝한 꼭대기를 사람이 행하도다."

만행 베풀고 중생 구제 매진을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상략) 또 한해가 흘러 지난 정해년 동안거 해제일이 되었습니다.

수행납자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디를 향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부처를 찾겠다고 지난 결제기간동안 정진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부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마음속에 내재된 집착(執着)의 그림자를 지워버리지 않고 분별(分別)의 세계를 떠나서 성공(性空)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부처를 찾겠다고 산중에 들어앉아 시물(施物)을 축내며 허송세월을 한다고 하여 부처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문장(文章)의 기호(記號)에만 매달려 제경(諸經)을 섭렵(涉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법(眞法)은 여여부동(如如不動)하고 태연자약(泰然自若)하여 형의(形儀)나 언설(言說)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략)

해제기간동안 부디 세상에 나아가 만행(萬行)을 베풀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매진하여 부처님의 본회(本懷)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체자연진 인진설유리
(眞體自然眞 因眞說有理)
진득진진법 무행역무지
(眞得眞眞法 無行亦無止)

자연 그대로의 진리가 참다운 진리요 이 진리로 인하여 만물의 이치가 설해지나니

이처럼 거짓 없는 참법을 얻고 나면 행도 없고 또한 그침도 없다네.

노고산 흥국사
불교대학 제7기 신입생 모집

약사기도도량 흥국사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교리, 불자예절,기도,참선에 이르기까지 불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내용과 아함경을 배우는 불교대학 제7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

1 개강일시 •기 본 교 리 반 - 2008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경전반(아함경) - 2008년 3월 7일(금) 오후 2시

2 강의시간 •기 본 교 리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경전반(아함경)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3 교육기간 •기 본 교 리 반 - 2008년 3월 4일(화) ~ 6월 24일(화) 1년 과정 1학기 4개월
•경전반(아함경) - 2008년 3월 7일(금) ~ 6월 27일(금) 1년 과정 1학기 4개월

4 교 재 불교입문, 아함경

5 수 강 료 각 반 4만원

6 문의 및 접수 02)381-7970 종무소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203번지 www.heungguk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국사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8년 3월 11일(화)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3월11일 - 12월9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 영상강좌로 진행합니다.

	지역법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매주월화요일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	02)587-8993	오전 10시	• 실천적 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매주 화요일	서울 정토불교대학 (야)	02)587-8993	오후 7시 30분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557-2746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야)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62)511-8990		
	경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54)744-8990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43)644-8990	오전11시 / 오후7시30분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전 11시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오후 8시	
	제주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739-7885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747-9997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야)	053)753-8993		

※가정법회 형식으로 서울 구리, 노원, 양천, 은평 / 부산 북구지역에서도 정토불교대학이 진행됩니다. (문의 : 서울정토회, 동래정토회)

●정토불교대학 특전
◇ 초심자 입문교육 ◇ 야외법회 - 사찰순례 ◇ 특강수련
◇ 졸업식 ◇ 졸업식 ◇ 수행점검 및 법사 상담
◇ 봉사활동 및 환경 · 통일 · 복지특강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08. 3. 11일 화요일 까지
◇ 대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동 참 비 : 12만원(1년제) ◇ 문 의 :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정토회 Jungto Society

“우린 손으로 대화 通해요”

수화봉사회, 손짓사랑으로 거리공연 개최

소리 없이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불교대학 수화봉사회(회장 김훈수)는 부처님 법을 말과 글이 아닌 손가락, 표정, 팔, 다리 온 몸에 담아 전달하는 손짓사랑모임이다. 봉축법회 및 팔관회 등 부산 경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찬불가 및 법문을 전달하고 있는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 정기적으로 매달 2회씩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리순회 수화공연을 갖겠다는 것이다. 첫 공연은 3월 16일 오후 2시 범어사 입구에서 마련된다.

수화봉사회는 부산불교대학 수화교실을 졸업한 졸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각장애우를 위한 순수 봉사 모임이다. 거리공연 및 졸업 발표를 위해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는 수화교실을 찾았다. 법당은 찬불가에 맞추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노래하는 그들의 바쁜 손짓과 부처님의 깊은 법문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거리에서 수화공연을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들 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며 수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할 계획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기위한 공연이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찰에서도 장애우들을 위한 배려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 봉축대법회에서 선보인 수화봉사회 공연 모습.

수화봉사회 김훈수 회장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선 그들의 상황을 알려 관심을 독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우들은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이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통역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막 방송 혹은 찬불가에 맞춘 수화책도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과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화봉사회는 1000명 중 단 한사람의 청각 장애우가 있다하더라도 어디든지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소중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불교대학 수화봉사회는 1997년 3월 10일 제1기 수화입학생 51명과 함께 심여회(心如會)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하우 前 학장이 청각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불교와 접목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며 만들었다. 그 후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청각장애우를 위한 정기법회 및 성지순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봉사의 직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심여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회로 공식명칭을 바꾸고 봉사단의 면모를 더욱 갖추고자 노력 중이다.

“수화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특수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청각장애우에게 전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현재 수화봉사회는 21기를 접수중이며 수화통역사 조경미씨의 지도로 기초수화, 불교수화, 찬불가 등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711-0108

하성미 기자

실상사 ‘바람직한 불사’ 세미나 개최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와 생명평화결사 종교위원회(위원장 김경일)가 바람직한 불사(佛事)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2월 28일 오전 10시 실상사 대중방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도량불사(道場佛事)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마련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건축과)가 ‘우리나라 절 불사의 문제점과 방향’을 짚어보고 건축가 조성룡, 정기용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주제 ‘실상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는 주지 재연 스님이 직접 나서 실상사의 불사 방향을 제안한다.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과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주제 ‘절과 마을’은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교장이 발표를 하고 이원규 시인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흥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이 각각 직지사와 미황사의 불사 사례를 발표한다. 사회는 안상수 교수(홍익대 미대)가 맡는다.

재연 스님은 “실상사는 그동안 대안학교와 귀농학교, 지리산생명연대, 절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결성 등 다양한 교육 · 복지 사업을 펼쳐왔다”며 “실상사 복원 불사를 ‘미래의 문화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실상사는 앞으로 2, 3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인간 사랑을 담은 긴 발자취’

최민식 사진展 개최

“내가 전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결하여 씨름하고 있는 슬프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다. 사진 속의 아득한 시절, 아득히 먼 사람들이 내 곁으로 와서 운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서러운 인생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원로 사진작가 최민식씨는 책 <종이 얼굴 속의 슬픈 얼굴>에서 자신의 사진 주제를 이와 같이 밝혔다. 최민식 작가는 현대사의 아픔 속에 대견히 그리고 묵묵히 이겨왔던 사람들을 한결 같은 사랑으로 담아왔다. 어시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친구로, 비오는 날 신문팔이와 우산 장수를 바라보던 행인으로, 봄날 고무줄놀이 하는 소녀들의 따뜻한 삼촌으로 기억되는 그이다. 원로 사진작가로 현대사진의 큰 획을 그은 최민식, 그의 인간 사랑을 향한 긴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최민식씨의 작품 ‘제목없음’.

부산 해운대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규)은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획 초대전, 최민식 사진전’을 마련한다. (051)744-3924 하성미 기자

서천 전통사찰 봉서사 붕괴위험

4년 전 개보수 건의 ‘군’ 꿈쩍안해

문화재자료 334호로 지정된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전통사찰 봉서사의 개보수가 시급하다. 1988년 전통사찰 26호로 지정된 봉서사가 시설노후로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서천군이 관련 예산집행을 미뤄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봉서사 개보수를 위한 국비 7900만원을 확보했지만 예산집행을 올해로 미뤄 축대와 법당 곳곳이 무너지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법당은 물론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문화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찰 진입로 주변 축대는 이미 무너졌고 대웅전의 경우 빗물이 유입돼 황토흙물이 법당 안으로 침투되고 있으며 법당 뒤쪽과 계단 등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문화재로써 면모를 잃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인 요사채는 문이 파손된 채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화장실 역시 정비가 안 된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봉서사 주지 심연 스님은 “군에 벌써 4년째 개보수를 건의하고 있지만 해준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인 공사는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천군은 봉서사를 전통사찰이라고 홍보만 했지 문화재로써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봉서사 전각은 지붕도 기와가 벌어진 데가 많고 어떤 곳은 서까래가 무너질 지경이어서 빠른 개보수가 필요하다. 혜철 충청지사장

통도사 앞 고층 건물 극적 타결

높이 16층 51m로 하향 조정

통도사(주지 정우) 산문 앞에 건립 중이던 고층 콘도 문제가 원만히 회향됐다.

1월부터 타결점을 찾기 위해 몇 차례 회동 했던 통도사와 동일 건설이 2월 11일 총 높이 67m에서 16m를 낮춘 51m의 높이로 극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통도사 사회국장 진응 스님은 “현재 동일건설은 높이를 조절한 새 설계도를 양산시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있다”며 “51m라는 높이도 낮다고 여겨지지는 않으나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12층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동일 건설의 고층 콘도 건물은 연면적 2만8710㎡에 16층 위락시설로 자연 경관뿐 아니라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 통도사는 수행환경보호를 위해 역사문화 보존구역지정 및 고도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도적 방침을 위해 양산시와 하북면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역사적 의의 깊은 명소로 재조명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발간



부산 복천사의 역사적 의의와 불모(佛母) 및 불화소(佛畵所) 흔적을 되짚어보는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가 2월 14일 발간됐다.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에서 기획하고 경성대학교 강대민 교수 외 부산문화재 전문위원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25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된 바 있다. 이번 발간한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는 발표한 논문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엮은 것이다.

복천사 주지 경호 스님은 “불화를 연구하는 학자 및 후학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며 불교미술사와 항일운동 및 역사에 대해 새롭게 조명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청주청원조계종협의회 봉사단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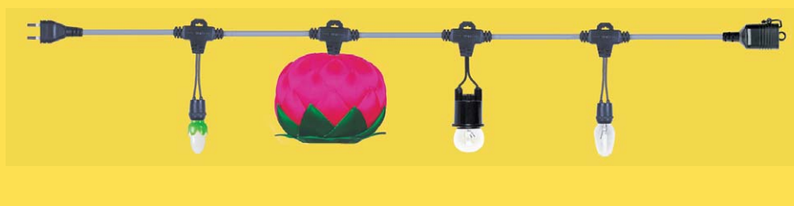
청주청원지역 불교 봉사단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폭 넓은 지역 봉사활동에 나선다.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회장 설곡)는 용화사와 관음사, 충북포교사단, 청주봉우회 등 4개 단체의 봉사단이 참가하는 ‘청주청원조계종협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고, 3월 8일 오후 4시 청주 수도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봉사단장은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이 맡게 되며 150여 명의 불자들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봉사단은 앞으로 청주 중앙공원 무료급식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나설 예정이다. 현진 스님은 “연합 봉사단 발대를 계기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043)256-6254 혜철 충청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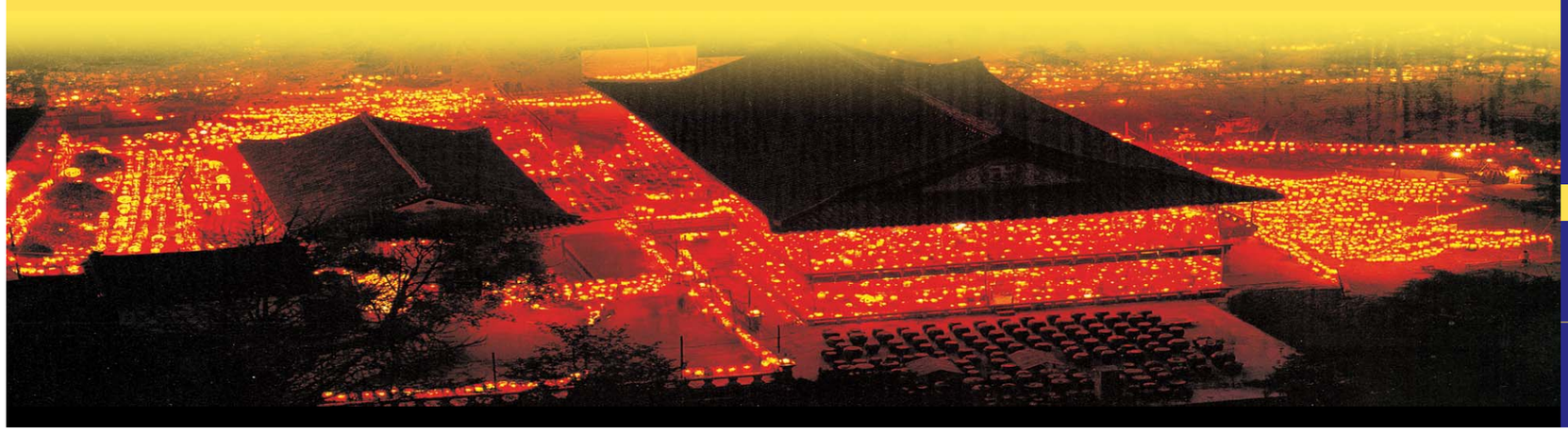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새터민에게 부처님 자비 전해요"

"북한동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만감이 교차한다. 군사적으로야 대치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에게 '동포'라는 말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도 같은 민족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굶어죽는 어린이,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총탄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주민들을 보면 코끝이 찡할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탈북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도 못마땅해 할 정도다.

국내에서 '북한주민돕기' 타이틀을 걸고 이뤄지는 사업은 크게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사람을 돕는 사업과 새터민 돕기 사업으로 나눠진다. 현재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접근이 쉽지 않다. 한국JTS에서 민간지원을 이끌며 어려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식량 공급 등을 하고 있으나 북한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입국에 성공한 새터민들의 경우 새터민 교육기관 하나원에서 3주간 적응훈련을 받은 후 사회로 보내진다. 사회로 나온 새터민에게는 통일부에서 2008년 1월 개정된 '새터민취업보호제도'를 시행하며 남한 내 터전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새터민취업보호제도는 새터민이 급격히 늘어난 1994년 이후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우선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2분의 1을 국고지원해 사업주에게 새터민 고용 이득을 준다. 대상자에 따라 1년 연장가능하며 기본은 2년 지원이다. 1년 연장신청 가능 대상자는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사람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임금은 1년차는 월 50만원이내, 2·3년차는 월 7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새터민은 희망을 안고 한국땅에 오지만 그 정착 과정은 쉽지 않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왼쪽 사진)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새터민 문화사업 모습.

천태종 생활지원품 전달·조계종 새터민 법회 개최
새터민 취업보호·문화 적응 위한 지원 손길 절실

새터민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보호)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새터민이 취업을 한 후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에 먼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새터민 담당자에게 취업보호신청을 먼저 해야 성립된다.

불교계의 경우 현재 새터민 지원 사업은 각 복지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단적 차원에서 보자면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가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창립된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그 동안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안성 하나원 본원 원생들이 3주에 한 번 퇴소식을 할 때마다 필요한 생활지원품을 준비해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전한 생활지원품은 의료기기·시계·가방 등 다양하다. 또한 천태종 사찰인 인천 황룡사에서도 일일찻집 등을 1년 2~3차례 열어 새터민지원사업을 돕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김금희 과장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객지생활을 하면 힘든 일이 많은데 새터민들은 문화마저 다른 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안성, 시흥, 대성공사 등 3곳의 하나원에 통일분과위원회 소속 포교사들을 각각 파견, 각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법회를 집전한다.

가장 규모가 큰 안성의 경우 새터민이 한 기수에 200명이고 법당에는 매주 40~50명 정도가 찾아온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할 음식·도서·불경 등 모든 물품이 항상 모자라는 편이다.

8년째 하나원 새터민 법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회 허정희 위원장은 "하나원 안에서의 새터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겪는 직장문제, 문화 적응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이 새터민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새터민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책이나 물품 등을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새터민 지원하고 있는 곳

◆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 www.sjobc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02)591-3822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02)730-2401
◆조계종 포교사단:(02)927-0589

김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터전이 김포시에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대표이사 영담)가 설립·운영하는 '가연마을'(원장 재현)이 2월 15일 김포시로부터 설치 및 운영허가를 받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82번지에 대지면적 1650㎡, 연면적 180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된 김포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정기건강검진을 통한 의료재활서비스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미술치료·음악치료 등의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현장체험활동 등의 사회재활훈련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연마을 초대 원장 재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불자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현재 가연마을에서는 1~2급 장애인의 입주 희망신청과 자원봉사 및 후원 등을 기다리고 있다. (031)983-0108 김강진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 운영사찰 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준공을 앞두고 복지타운 운영사찰을 모집한다. 조계종은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복지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6년 3월 착공, 불사를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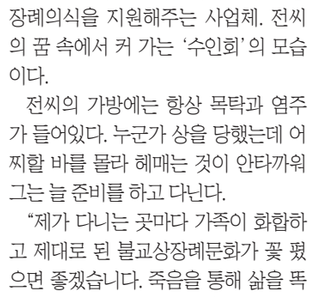
스리랑카 감파지방 파살라 지역에 위치한 복지타운은 2만5000여 평의 대지에 5개의 보육시설, 유치원, 행정도, 관리숙소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6월 1차 준공된다.

운영사찰은 복지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지원자격은 조계종 소속 사찰 및 불교단체로, 어린이 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있거나 해외어린이 보육시설을 자력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02) 2011-1823 여수령 기자



어떤 봉사활동도 그 기반에는 '삶'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살아가기 힘든 이들을 격려해 더욱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그런데 '호스피스 봉사'만큼은 여기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다. 약 10년 동안 이러한 봉사를 해온 전옥자(57·사진)씨는 죽음의 문턱에 선 누군가를 편안히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주위를 살핀다.

"편안한 임종 돕고 싶어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삶의 끈을 함부로 놓지 않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전씨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느낀 감회부터 털어놓는다. 그가 죽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꽤 된 일이다. 서울 성룡사 염불봉사팀 지장회 활동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늘 드나들었다. 그러다 한 순간, 한 걸음 더 나가 호스피스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부터 시작해 호스피스 이론을 섭렵했다. 이제는 자신이 서울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상장례사 강의를 할 정도다.

그의 호스피스 봉사는 어떤 단체에 매여있지 않다. 전씨가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 유가족이 다른 임종직전의 환자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 대중도 힘들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다가 한 밤중에 뛰어나가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일은 예사다. 이렇게까지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싶은 의문까지 생긴다. 그는 "행복하다"고 응수한다. 정작 전씨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가족·환자간 갈등 해소에 노력
봉사활동 연계 상장례사업도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금기시 하고 있어요. '부정탄다'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아이들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것이 정상적일까요.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는데요."

또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 할수록 환자 가족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가족과 환자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 등이 전씨의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요즘 아예 호스피스 활동을 '가족화해의 시간'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봉사하러 가면 우선 가족들부터 안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지요. 그래야 돌아가시는 분도, 남는 사람도 후회가 없어요."

봉사활동 경력이 쌓여 가면서 전씨는 또 다시 고민이 하나 생겼다. 호스피스 봉사와 함께 장례까지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2004년 '수인회'라는 상장례사업체다.

"돈을 벌 목적이라면 이 사업 말고도 할 것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체는 봉사활동의 연계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전씨는 흔들리지 않고 사업체를 지키며 봉사를 계속해왔다. 양심껏 대가를 받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 상장례의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체. 전씨의 꿈 속에서 커 가는 '수인회'의 모습이다.

전씨의 가방에는 항상 목탁과 염주가 들어있다. 누군가 상을 당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그는 늘 준비를 하고 다닌다.

"제가 다니는 곳마다 가족이 화합하고 제대로 된 불교상장례문화가 꽃 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똑바로 보고 생명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게 된다면 사회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글·사진=김강진 기자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입학 안내 ••••••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범패과 교수. 전 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강주)
  강 사 : 자운스님, 혜성스님, 일묘스님(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의 내용 ••••••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 천수경. 도량석. 종성 **예불** : 향수해례. 사성재.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외 **기타** : 장의편. 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할향. 등게.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도량게. 참회게. 천수바라. 도량게. 요잡바라. 등 (바라. 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재채. 안채비. 사물다루는과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 관음시식. 봉송회향. 공덕게 ※ 다게작법.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욕건이. 운심게. 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태징. 북. 요령) 2. 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 기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3. 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 생전생칠 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

“불교 · 진리와 가치관 추구해야 불교 소설”

東大 장영우 교수, ‘한국 현대소설과 불교’ 서 주장

1908년 11월 창간된 잡지 <소년>에 발표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한국 신체시의 효시임과 동시에, 한국 현대문학의 시작이었다. 2008년 한국 현대문학 100주년을 맞아 한국 문단이 떠들썩한 가운데, 한국 현대소설과 불교의 관계를 다룬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2월 20일 선학원에서 열린 선리연구원 발표회. ‘현대소설과 불교’를 발표한 장영우 교수(왼쪽)와 사회를 맡은 고영섭 교수(오른쪽).

> “불교의 독특한 문학기법 입론화하려는 노력 필요
> 참된 자아를 찾는 소설에서 새로운 가능성 찾아야”

2월 20일 선학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의 제4차 월례발표회에서 장영우 교수(동국대 문예창작)는 ‘현대소설과 불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불교가 국교로 추앙되던 신라, 고려 시대는 물론 배척받던 조선시대에도 문학에 동량이었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문학이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됨과 동시에 양적으로도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시보다 현대소설에서 불교문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한국 현대소설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 장영우 교수는 이광수, 김동리, 김성동 등의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에 주목했다. 장 교수는 “불교와 연기론과 윤회설이 한국문학의 저변을 이루고 있음에도 주제론이나 제재론에 그칠 뿐, 불교의 독특한 사유체계나 상상력을 문학기법과 연관해 입론화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기와 윤회, 무상과 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불교문학이라고 분류하면서도 정작 불교의 가르침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문제를 추구하는 작품을 서구적 분류방식에 따라 성장소설로 이해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교수의 날카로운 비평은 이광수의 ‘원효대사’, 김동리의 ‘등신불’, 김성동의 ‘만다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광수의 ‘원효대사’가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표현 없이 이광수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평했다. 작품의 “고(苦)도 공(空)이요, 락(樂)도 공(空)”이란 표현을 들어 “왜 고가 공이며, 락이 공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독자의 직관에만 기대는 단순한 동어반복적 진술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교소설의 대표작으로 이해되는 김동리의 ‘등신불’을 두고 장 교수는 “만적선사의 소신공양을 액자 속 이야기의 핵심 사건으로 설정해, 소신공양이라는 가장 처절하고 감동적이며 인간적인 성불의 한 유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하면서도 “정통 불교보다 무속에 습합된 기복불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승려 출신 작가 김성동의 ‘만다라’에 대해 “기존 불교소설의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은 문제작”이라고 평한 장 교수는 “제재, 주제 뿐 아니라 문체와 구성 등 소설의 기법적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승려였던 작가의 체험이 바탕된 핍진성과 진정성을 담보로 한 작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그는 “상구보리에만 집착하고 중생 제도에 대해서는 침묵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만다라’를 김성동의 작품 중 수작으로 꼽았다.

장 교수가 주장하는 불교소설은 어떤 것일까? 그는 “불교소설은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이 작품의 내적 구성원리로 수용되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불교소설은 제재나 등장인물의 신분 등과 무관하게 불교적 진리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내용의 작품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과 정채봉의 ‘오세암’을 예로 들었다.

‘삼포가는 길’은 열여덟살에 사창가로 팔려온 백화의 이야기로 그녀의 순수한 본성과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5세 동자의 오도’라는 불교설화를 창작동화로 재구성한 ‘오세암’은 다섯살 난 어린아이가 순수한 염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좋은 불교소설을 위해 “작가와 독자는 소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문단과 불교계에는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의 확장과 불교문학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우 교수의 발표는 그가 불교소설 대중화를 위해 제안한 “불교설화를 현대소설로 재창작하는 작업”과 “참된 자아를 찾는 성장소설과 편력담에서 불교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한편 ‘세종조의 불교정책’을 발표한 이종우(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박사수료)씨는 세종조에 실시된 불교정책을 ‘불교통제정책’과 ‘불교용인정책’으로 구분해 “당시 억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교를 이용하기도 했고, 억불책을 펴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8)대각사상연구원
www.taegak.or.kr

용성 스님 중심으로
근현대 불교 조명



발간 10주년을 맞은 학술지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1998년 대각회(회장 도문)의 학술 연구와 인재양성 불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각회는 한국불교의 중흥조라 일컫는 백용성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문손과 불자들이 모여 1996년 설립한 단체다.

문도를 떠나 근현대불교를 고민하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동참은 대각사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자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홍윤식 교수(동국대 명예교수),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등 학계 및 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운영위원으로 대각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사 연구 권위자인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동순 박사(동국대 강사) 등은 연구실무진으로 활동한다.

용성 스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근세 한국불교사를 중심으로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은 2008년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연구원이 연1회 발간하는 학술지 <대각사상>은 제10집 발간과 더불어 새로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기도 했다. <대각사상> 10집은 보광 스님의 ‘백용성 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율’과 김광식 교수의 ‘백용성조사의 전법과 대각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길’ 등 백용성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한 특집호로 꾸며졌다.

<대각사상> 10집 발간에 맞춰 연구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앞으로 국내 저명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581-3138

조동섭 기자

BK21 참여연구자 대상 학술세미나 열려

동국대 불문연 학술세미나 개최

BK21에 참여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생들의 연구를 중간 점검하는 학술 발표 및 토론의 장이 열렸다.

2월 19일 동국대학교에서 ‘세계화 시대를 위한 불교사상과 문화 학술세미나’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과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이 주최했다.

법현 스님은 ‘영적 성숙을 위한 종교간 대화의 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종교간 대화를 강조한 대표적 학자인 파니카와 스위들러의 방법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법현 스님은 “종교간 대화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교간 대화의 목적은 “대화에 참여해 얻은 충분한 진리인식에 따라 사는 것으로 자기 이해의 내적 변환을 통해 자기 삶의 발전을 전이시키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생사문제와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도업 스님은 죽음을 일반적, 의학적,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연기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생사관과 비교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生者必滅)는 평범하고도 심오한 문제는 깨달음 전 붓다가 가졌던 고민”이라고 예를 든 도업 스님은 “불교에서 생사는 마음, 즉 인식만 전환되면 해결된다면서 이를 위해 죽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제홍씨는 ‘복잡계와 불교경제학에 대한 소고’를 통해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복잡계 이론을 불교경제학에 접목시키고자 했다. 복잡계 과학에 우선 주목한 연씨는 “고전역학과 통계역학이 자연 및 사회현상의 근본적 설명에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것이 복잡계”라고 정리했다. 그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트랜스휴먼이 대승보살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 규정하고, “복잡계 이론을 도입하면 대승불교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유숙씨는 ‘<Ratnāvalī> 제1장의 안락에 관한 연구’에서 용수 보살이 지은 <Ratnāvalī>(寶行王正論)에서 대승불교 실천론의 하나로 제시된 안락(abhyudaya)에 관해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김경래씨가 ‘Therāvada 불교의 해석학적 특징’ 등 8명의 연구자들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복잡계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성분 간의 다양하고 유기적 협동현상에서 일어난 복잡한 현상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경제학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복잡계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 주변의 다양한 요인에 작용하고, 그것이 복합돼 차츰 큰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부처님 당시 경전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이미령교수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언어인 팔리어로된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쿳다카니까야)를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는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개 강 : 3월 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
- 법 사 : 전재성 교수, 이미령 교수
- 교 재 :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월 5만원(교재제공)
- 문 의 : 02)732-1206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지도자과정(2년)
요가삼밀학과 신입생 모 집

1.과 정

기간 · 요일	과 정	지도교수
지도자과정	· 요가과정 요가이론,요가수트라,요가생리학,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아사나실습,요가자기진단법,요가운동처방법	요가:안지용교수
매주일요일 (오후1시30분)	· 밀교과정 밀교상징세계,무드라이온,한국전연문화,만트라원리, 밀교위식체계,만다라사상,티베트밀교,밀교명상법	밀교:허일범교수

2. 개강일시 : 3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2년 과정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1.교 과 목

과 정	과 정
1 년	· 장례학 이론 · 장묘관련법규 · 상장례 민속학/역사 · 장사법위주 · 종교과 불교 · 실습
2 년	· 공중보건학 · 현행 장묘제도의 제반적 고찰 · 장례식장 경영론 · 불교정토학 · 호스피스와 사별상담
지도교수	· 김미혜 교수, 최청자 교수

2. 개강일시 : 3월 4일(화) 오후 7시
※특전 : 2년 과정 수료 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봉 축

太古叢林 仙巖寺 제28세 주지 경담스님 晋山式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삼가 법체 청안하심을 삼보전에 축원하옵니다. 아뢰올 말씀은 교계의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본사 제28세 주지 경담스님의 晋山式(취임식)**을 갖고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왕림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불기 2552년 3월 2일 오전 11시
(음력 1월 25일)
◆ 장 소 : 본사 대웅전

韓國佛教 太古叢林 曹溪山 仙巖寺
전화 061)754-5247, 5953

일 주 문



국민훈장동백장 수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월 21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서훈 받았다.



108산사 순례기도회 봉행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2월 23~27일 네팔 룸비니에서 네팔불교도연합회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에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3월 6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02)723-5101



'몸에 좋은 약선 음식' 특강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27일 오전 11시 복지관 4층 강당에서 '몸에 좋은 약선음식'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02)742-9500

"불자가수 화합의 장 마련에 주력"

제10대 대한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



"연예인들이 언제든 와서 기도하고 음성공양 올릴 수 있는 도량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제2대, 5대에 이어 제10대 대한불자가수협회(이하 협회) 회장에 선출된 명국환 회장(76 · 사진)의 서원이다.

1953년 '백마야 울지마라'로 데뷔해 '방랑시인 김삿갓' '백마강' 등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명국환 회장은 금사향, 김활선, 남강수 등 협회 원로위원이다. 그런 그가 다시 회장직에 나선 것은 그만큼 서원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군부대 공연 등 기존 포교중점 사업 외에 기금 마련 특별 디너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 개최와 (가칭) '가요80년사' 행사 등도 준비한다. 특히 '가요80년사'는 명국환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다. 명 회장은 1940년대 '108염주', 1950년대 '목련공주' '인도의 향불' '버마의 옥피리' 등을 조목조목 들며, "한국가요 80년사에는 대중의 삶이 스며 있고, 불교사상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가요역사의 산증인 원로가수 명국환 회장이 보는 가요는 민족의 불성이 담긴 불교문화의 한 축이다.

명 회장은 임기중 협회가 도량 마련에만 몰두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포교와 인재발굴은 창립 후 지금까지 협회의 화두였단다. 협회는 새 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매월 제주도 효도관광을 기획하고 있다. 올해 제7회를 맞는 불자노래자랑도 알차게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200여명 회원 중 40여 명이 꾸준히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 회장은 협회에 젊은 불자가수들이 적은 점을 제일 안타까워했다. 그런 가운데 불자노래자랑을 통해 발굴한 대학생 불자 가수 마하성은 협회의 가장 큰 자랑이다. 나훈아 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불자가수 마하성은 '두고 두고'라는 타이틀곡으로 올해부터 방송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찰문화행사에 일반 이벤트 업체는 물론 심지어 개신교 업체까지도 참여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는 명 회장은 이 또한 협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원로위원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명국환 회장은 "준비된 연간 사업계획을 착실히 진행해 협회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02)713-2905

조동섭 기자

"蓮관련 사업 세계화 이끌 터"

세계연연구소 여는 성원 스님



"연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상업화시켜 전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인이 연을 접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인천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사진)이 2월 26일 '연꽃을 세계화로, 인류를 향하여'라는 표어를 걸고 선원사 내에서 세계연연구소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2000년부터 선원사지에 연을 재배해온 스님은 그 동안 연꽃축제를 비롯해 좋은연 연구회, 좋은연 주식회사, 좋은연 소비자모임 등을 결성해 끊임없이 가공 · 유통해왔다. 스님이 상품화 · 식품화 한 연 관련 물품만 140여점에 달한다.

스님은 "연이 그 동안 농산물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얼마 전부터 연을 쌀 대체 · 특화작물로 선정해 전국적으로 연 농사 보급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 전하며 "앞으로는 세계연연구소를 통해 연의 효능에 대해 활발히 연구할 것"이라 밝혔다. 스님의 뜻에 따라 세계연연구소는 연구 · 소비 · 상업 분야로 나눠 연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웃 종교에서조차 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불교의 꽃인 연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는 물론 연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032)933-8234

김강진 기자

"광주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할 터"

광주경찰청 불자회장 고재엽



광주경찰청 불자회가 2월 20일 광주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남경찰청에서 분리돼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법회에는 천운 스님(해남 대흥사 조실)을 비롯해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경담 스님(선암사 주지) 등 광주전남지역 5대교구본사 주지스님, 정인 스님(광주불교사암연 회장)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 40여 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경찰청 불자회장으로 선출된 고재엽(법명 현묵 · 사진) 회장은 "광주경찰청 불자회 회원들을 위한 법회와 신행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지역 공무원들이 신행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광주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불자회에는 현재 60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경전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한 정기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경찰청 내 법당에서 아침 예불을 봉행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고 회장은 1970년대 광주 관음사 광주불교학생회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73년 광주 향림사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행활동에 적극 나섰다. 또한 학군장교로 군 복무 중 32사단 대대, 중대 군법당 개원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서울 경찰청 불자회 창립멤버로 동참하고 2001년에는 전남지방경찰청 불자회 탄생에도 산파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는 증명법사 천운 스님(해남 대흥사 조실)을 비롯한 5대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 경승 22명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만들 터"

서울시공불련 이동우 초대 회장



"이렇게 큰 신행단체의 초대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신행단체에서 봐도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구청공무원불자들이 모여 함께 신행활동을 독려할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서울시공불련)가 결성되면서 초대 회장으로 이동우 서초구청불자회장(서초구청 과장 · 56)이 추대됐다.

이 회장은 2월 16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기념법회 및 초대회장취임식을 통해 이와 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서울시공불련은 25개 구청 가운데 불자회가 만들어진 20개 구청불자회가 모여 연합회를 구성한 단체로 총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시도지방공무원불자회 중에서는 가장 큰 불자회로 서울지방공무원불자들이 단위 기관에서만 활동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 구청과 교류하며 신행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불자회의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크다.

이 회장은 "서울시내 사찰과 스님을 연계해 서울시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성도일을 기념일로 추진하는 한편 불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서울시내 구청에 결성지원 할 예정"이라며 "성지순례, 순회법회 등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화력 증진은 물론 불교계 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자회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불자회가 되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 앞서 조계사에서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신년하례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김강진 기자

동대 경주병원 영가 천도재 봉행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규춘)은 2월 15일 '제4회 영가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지난 한해 경주병원에서 임종한 380여 명의 환우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주병원 법당은 무자년 새해 첫날부터 법당에 380여 위패를 모시고 매일 3차례에 걸쳐 영가를 위로 법회를 열어왔다.

천도재에는 증명법사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지도법사 무구 스님을 비롯해 유가족과 병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도재를 주관한 무구 스님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천도재에 많은 유가족과 교직원들이 동참해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화촉 불교닷컴 박봉영 기자는 3월 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웨딩홀에서 오유진(前 현대불교신문 기자)양과 화촉을 밝힌다.(02)733-7338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18일 서울 청담동 호텔 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2008년 재가불자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청와대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문화관광부 김장실 종무실장, 국회 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 대통령직인수위 김효제 기조국장 등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지금은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중 ·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류 · 협력할 때"라며 "중앙신도회가 불교계와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총재 혜총)는 2월 2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이날 국가대표 곽예지(양궁 · 대전체고1) 선수와 국가대표 상비군 위수봉(태권도 · 방어진고 3), 양정훈(유도 · 동지고 2), 최대한(사격 · 정선중 2) 선수, 서울지역 박근홍(조정, 서울체고) 선수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원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이날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으로 매년 16개 지부별 각 1명, 국가대표 선수 4명 등 총 20명의 불자선수들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강진 기자

37사단 옥천연대 위문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대성사 주지)는 2월 15일 37사단 옥천연대(연대장 최경식 대령)를 방문해 겨울 혹한기 훈련을 마친 장병들을 찾아 빵과 음료수 등 간식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혜철 스님은 "막바지 추위가 극심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충북종교인평화회의 총회 개최



충북종교인평화회의(회장 최근덕)는 2월 15일 청주향교 대회의실에서 '충북종교인평화회의 총회'를 개최, 신임 임원 선출과 2008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충북종교인평화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임대표에 박영순 전교(유교), 사무국장 이강선 국장(유교), 대변인 혜철 스님(불교) 등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 지부 등록 및 활동 ▲충북종교문화제 및 문화협력 세미나 개최 ▲종교인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의 사업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여수령 기자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 봉행



2월 2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감포 나정리 나정해수욕장에서 시민 8000여명과 함께 제28회 정월대보름맞이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어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는 남북통일 기원과 국가경제 회생을 발원했다. 청도사암연합회(회장 정광)도 청도군 내 둔치에서 김관용 도지사(경북도),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 등 내빈과 2천여명 불자가 함께 군민화합을 기원하는 달집놀이 행사를 가졌다. (사진) 손법천 대구지사장

광주전남 봉축 특별강좌



불기 2552년 봉축행사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봉축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특별강좌가 열렸다. 2월 15일 광주사암연합회 불교회관 2층에서 열린 이날 강좌는 광주 · 전남지역의 교구본사 및 사암 종무원과 불교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행사의 기획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이준엽 실장(호남불교문화원 대표)은 "연등축제가 지역 특색에 맞춰 신명나는 행사로 치러지길 바라는 뜻에서 강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광주전남지역 사암과 불교단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 발맞춰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인사말 했다. 강의는 봉축위원회 박상희 총괄팀장이 맡아 행사 담당자가 키워야 할 능력과 진행 준비사항 및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육화포럼과 호남불교문화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석가사 개원법회 봉행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석가사(주지 도응)가 2월 17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지역포교 불사에 나섰다. 17일 열린 개원법회에는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주지)과 인도에서 온 린포체, 게쉬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석가사가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학동 대영흥산 대표이사

동국대 장학금 2억 기부



김학동 대영흥산 대표이사(사진)가 동국대(총장 오영교)에 2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2월 18일 대학본관 총장실에서 김학동 대표이사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라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사업을 펼쳐왔다"며 "특히 결혼식 주례를 김동화 前 동국대 총장이 서 준 인연으로 동국대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2월 20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린 포살법회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범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지난 보름간의 죄를 참회했다.



"죄 있는 이 드러내고 죄 없는 이 잠잠하라"

순천 송광사 보름 포살법회 현장

'범망경' 읽으며 자신의 허물 고백하고 참회

"여러 대중들이여 이제 포살(布薩)을 지어 보살계를 설하노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一心)으로 잘 듣고 죄가 있는 이는 드러내고 죄가 없는 이는 잠잠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화'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가운데, 매달 보름과 그믐에 총림 대중 전체가 포살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가 법회 현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1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해제법회에 앞서 전체 대중이 참석한 포살법회가 열렸다. 포살(布薩)이란 동일 지역 내의 비구 · 비구니가 보름에 한 번 한 곳에 모여 250계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의 조목을 3번씩 읽으며, 계율을 범한 자는 다른 대중에게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율장은 "화합이란 다함께 갈마(회의)를 행하고(同一羯磨), 포살설계를 함께 하는 일(同一說戒)"이며 "화합이란 포살, 자자, 갈마, 일상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지 영조 스님이 송계사(誦戒師)로 나선 이날 포살법회는 보살계를 받은 대중 전체가 참가해 〈범망경〉 보살계본의 열 가지 계목과 48가지 계를 차례로 읽으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열 가지 계목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받아주라 등이다. 48가지 계에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계를 범한 이는 참회시켜라 ▲법문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망경〉에서는 "보살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받기를 주저하는 이가 많으나, 보살계를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고 하더라도 세세생생 왕위(王位)를 잃어버리지 않고 필경에 성불(成佛)할 수 있는 선근(善根)과 보살의 종자가 되는 최성의 법문이다"고 설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재가자들을 위한 강의에서 "포살은 승가의 구성원이 될 때 약속한 학처(學處)를 확인하는 설계(說戒)이며, 자자는 법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화해를 위한 논쟁과 회의 등을 아우른다"며 "포살과 자자 모두 약속된 회의규칙 즉 갈마작법에 의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포살법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살법회에 이어 봉행된 해제법회에는 송광사 선방인 수선사와 문수전에 방부를 들인 30명의 수좌를 비롯한 총림 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안거 결제 대중에는 인도에서 온 혜달 스님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방장 보성 스님은 해제법회에서 "올 겨울은 한강이 얼 만큼 유난히 추웠는데 공부에는 추위도 더위도 없다"며 "오직 각자가 가진 초지(初志)를 뚫기 위해 노력할 따름이다"고 법문했다. 또한 "오늘 90일 간의 동안거 마지막 날인데, 해제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 마쳤다는 말인가, 아니면 함께 했던 규약을 좀 내려놓고 쉬자는 것인가"라고 물은 후 "일대사를 마치기 전에는 결제도 해제도 없는 것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본 백은혜학선사의 일화를 예로 "이 법문을 듣고 언하에 깨닫지 못했거든 분별심으로 헤아려 알고자 하지 말고 본참공안(本參公案)만 열심히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순천 송광사/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뷰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목우가풍 이어가는 '교과서' 같은 도량"



보조국사를 비롯해 16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사찰 송광사. 이 곳의 선방에서는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방부를 들인 30명의 수좌가 모두 안거를 성만함으로써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수행전통을 이었다. 목우가풍은 보조스님의 아호인 목우자(牧牛子)에서 유래된 것으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을 이를 "법(法)답게 살자는 정신"이자 "지위고하를 막론한 대중 전체가 함께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묵 스님은 지리산 칠불사에서 7년간 묵언정진하는 등 30여 년간 제방 선방에서 수행에 매진한 선승(禪僧)이다.

현묵 스님은 "고려 승과(僧科)를 장원급제했던 보조스님은 모든 명예를 버리고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송광사를 중창하고 승가공동체를 운영했다"며 "당시 스님이 주창했던 정혜결사의 정신은 곧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법의 등불을 밝히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월 20일 송광사 목우헌에서 진행된 현묵 스님과의 일문일답.

Q 보조국사 스님이 이후 효봉 • 구산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송광사의 수행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

A 송광사의 수행가풍이라 할 수 있는 '목우가풍'은 한마디로 '법답게 살자'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방처럼 안거 기간 중 용맹정진이나 철야정진을 하지는 않지만 본분사를 잊지 않고 여법하게 살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구산 스님은 70이 넘은 세납에도 빗자루를 들고 비질을 했고, 현재의 방장 보성 스님도 지난해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거리 탁발 행렬의 가장 앞에 서서 한나절 동안 성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목우가풍'입니다.

Q 해마다 2000여 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선원을 찾습니다. 수행자의 자세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A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를 다음 게송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구경〉에 나오는 이 게송에는 팔만사천의 법문을 함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 같은 외부의 소리에 초연하고 중심을 잡아 수행을 매진하는 한편, 사람이나 물질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탁악세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고 마음자리를 찾아 정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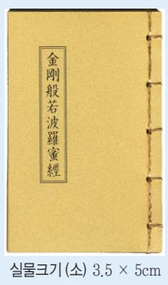
Q 안거 마지막 날 전에는 자자(自恣)가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선원의 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A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대중들이여 혹 석 달 간의 안거 중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거나 허점이 있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방 대중이 차례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은 지적해달라고 청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바로 자자인 셈입니다.

Q 현대인들에게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수행에는 네 가지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 즉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모가 밝아지고 아름다워 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힘과 용기가 솟는 것이며, 세 번째는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덕은 안정의 힘을 얻고 지혜와 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웰빙이다 뭐다 하지만 진정한 웰빙은 수행으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해야 물에 잘 비치듯,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식 사 용 천
식 식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생활참선의 고혈압 치료 효과

해외불교칼럼



심신 안정에 절대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참선은 '치료효과' 측면에서도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2월 11일 미국의 KFYR TV는 성인건강 특집을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황폐함이 함께 빚어낸 각종 현대판 성인질환 중 특히 고혈압에 있어 참선수행의 치료효과가 탁월하다고 심층 보도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에 주로 의존할 뿐, 심신을 정화하고 자아를 일깨우는 불교식 참선수행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치유복지 자원봉사자로서 참선을 지도해 온 스티브 피셔 처사님은 참선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굳이 불자가 되거나 득도해탈에 이른다기보다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참선은 녹녹하게 축 처지고 주저앉은 마음을 파삭거리고 생동감 넘치게 바꿔주며,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답답한 긍지와 만족감을 가져다줍니다. 직업만화가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나도 한때는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거의 날마다 300쪽 남짓의 원고지에 매달려 밤낮없이 머리를 굴리며 살아야 하는 나의 지난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렇듯 치열하고 가혹한 일상생활로 인해 혈압이 치명적인 위험수위에 이르자 그는 여러 의약치료와 병행하여 참선수행을 시작했다.

"참선이란 비움과 단순해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번잡한 절차나 과도한 지도는 오히려 심신수련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뿐이죠. 그저 편하고 쉽게 시작하세요. 먼저 방 한구석에 담요를 접어 깔고 벽을 향해 고요히 앉는 겁니다. 그리곤 내 맘속에 끼어든 이런저런 먼지와 때를 하나둘 털어내고 닦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졸린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럴 땐 이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참선은 무리한 극기 훈련이 아니라 느긋한 자기휴식이라야 합니다."

그는 참선수행이 일종의 심신 및 호흡의 재정비작업이자, 또한 신체기관들과 신경과 맥박을 풀어주는 이완과정이라 말한다. 따라서 참선수행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장의 과잉박동을 억제하며, 이는 곧 고혈압과 근육경직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 조절기능과 직결된다. 그의 지도 선사인 수전 톰슨 보살님은 참선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자면 매일 30분 정도의 수행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보 수행자의 경우, 처음에는 약 5분간부터 시작해서 사나흘 간격으로 점차 5분 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약15분 단위로 매일 수차례 참선 수행하는 피셔 처사님은 가부좌를 틀고 부동의 자세로 그 긴 시간을 견디며 집중한다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라고 털어놨다.

"어릴 적 작은 개울가에서 놀아본 사람들은 곧바로 이해할 겁니다. 옹기종기 잘 모여 놀던 송사리 떼가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죄다 흩어져 단 한 마리도 붙잡을 수가 없듯, 애써 다가선 집중 또한 어느 순간에 산산이 부셔져 흩어지기도 하죠."

주변이 지나치게 환하지 않은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 참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톰슨 보살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참선으로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비워내려고 시도해선 안돼요. 참선이란 내 심신의 휴식을 가로막는 잡다한 상념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Anne Kelly, KFYR-TV 번안 : 성휴 스님

美 교회서 인격발달 정기법회

미국의 최북단 알래스카 주의 턴어겐에 소재한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는 2월 2일 미국 선불교중앙회의 후원으로 인격발달과 적극성 개발에 관한 수요 정기법회를 오는 8월 16일까지 저녁 2시간씩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선원은 쿤 프란츠 목사가 매주 일요일 10시 45분부터 직접 불교 공개강좌 및 법문을 하며, 신입회원에게는 각자 능력에 따라 자비실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출처 : ZBM

해리스 스님 '인가' 전수 발표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의 소우지 선원은 쥴르 슈전 해리스 주지스님이 약 2500년 전 붓다 세존이 자신의 제자이자 인도 최초 선사인 마하가샤파에 내린 '인가'를 정통 전수 받았다고 2월 7일 공식발표했다.

25년 동안 불법과 참선수행에 정진한 끝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인가를 득한 그는 교육학박사이자 동 원장으로 재임중이며, 지역사회의 여러 대학과 보건위생단체를 통해 사회순화 및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해 왔다. 출처 : BW

러시아 불교법회 신년축하 법문

2월 7일 러시아 불교협회 종정인 판디토 캄바 아유세에프 스님은 러시아 전역의 불자들에게 신년축하 법문을 전했다. 또한 오랜 관례에 따라, 러시아의 라마불교 점성술사들은 금년 풍작과 행운을 예견하는 한편 봄 강풍, 여름 폭우, 겨울 강추위 등 자연재해를 예언했다.

불교는 13세기 후반 몽골제국의 러시아 지배 당시 본격 전법된바, 구소련의 와해 이후부터는 바이칼호 중심의 몽골, 부리아트 등 동부 시베리아 불교 권역이 모스크바와 흑해 연안 등 서부지역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출처: 이타르 타스

"위기 대처 자기수행 일상화"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❺

제 아무리 낭만을 즐기는 비행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오가는 긴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인디아나 존스'를 닮은 해리슨 포드 역시 '어린왕자'를 닮은 생텍쥐페리처럼 하늘을 맘껏 누비고 헤매다 자칫 영원한 불귀의 객이 될 뻔도 했다. 그런 사실을 아는 기자의 질문이 사뭇 조심스럽다.

"홀로 비행기를 몰다가 크게 긴장하거나 겁을 먹은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참 싱겁도록 간단하다.

"물론 서너 번 있었지만 잘 처리해 왔죠. 전 그런 위기를 침착하게 풀어갈 만한 자기수행을 늘 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불자들은 대부분 매일 참선수행을 한다. 특히 미식축구나 골프, 프로농구 등 격렬한 프로스포츠계에서 뛰는 선수들 가운데 참선 수행하는 이가 적잖으며, 심지어 스턴트맨이나 카레이서 등 목숨을 건 모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까닭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동(動)과 정(靜)의 상호균형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의 발로가 아닐까싶다. 참선이 정을 표상한다면 비행은 동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르면서도 매우 비슷한 데가 있다.

참선이 텅 빈 무(無)의 속으로 한없이 삼켜지는 것이라 할진데, 비행 역시 텅 빈 창공, 즉 공(空)으로 가없이 빨려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그 속도를 도무지 알아차릴 방도가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이동 공간뿐이다. 이는 조종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또한 계기판을 통해 그 속도를 읽고 있을 따름이다.

사실 비행기 기체는 창공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하나의 점이지만 찰나에서 찰나로 건너가며 항로를 이루고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보이는 것이다.

비행이 그렇듯 참선도 찰나의 게임이다. 수행을 기껏 잘 해나가다 삐끗 찰나를 놓치는 바로 그 찰나에 천길만길 추락하고 만다. 그런 걸 일러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 했던가? 해리슨 포드 처사님이 하늘이 선방이자, 비행이 참선수행이라 말한 까닭을 이젠 얼마간 알 듯도 하다. 너르고 꾸밈없는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삶은 먼 옛날 심산유곡의 은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선지 그는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대단히 자유로워 보인다.

산과 들과 계곡, 시냇물, 그리고 해와 달, 눈과 비는 물론 온갖 동식물들의 친구인 그는 잭슨 홀 인근의 800에이커에 달하는 자신의 거대한 목장의 절반을 뚝 떼어 생태보존단체에 기부한바 있다.

소유·집착 떠나 자유로운 삶 영위
생태보존 단체에 목장 절반 기부도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산 화엄사에서 노고단 사이보다 엄청나게 더 깊고 넓은 무공해 수림지역이다. 산속의 작은 토굴이나 한 뼘의 밭뙈기를 두고 눈알을 부라리는 중생들로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해리슨 포드처사님이 인간과 연기공존(緣起共存)하는 대자연에게 되돌려준 무조건적 보시이자, 동시에 탐욕의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풀어준 자기해방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국제적인 생태보존 운동기구인 콘서베이션 인터내셔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1987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으로 900명이 넘는 상근직원들이 활동하는 이 기구는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 그리고 중남미 등 주로 개발도상 40개국에 지부를 두고 현지의 각종 유관단체 긴밀한 협력을 한다. 또한 그는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공로가 있는 인사들을 발굴, 포상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인디애너폴리스 프라이즈의 명예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wish I could give him the beautiful moon"

-그에게 저 고운 달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A meditation master lived the simplest kind of life in a little hut at the foot of a mountain. One evening, while he was away, a thief sneaked into the hut only to find there was nothing in it to steal. The master returned and found him. "You have come a long way to visit me," he told the prowler, "and you should not return empty handed. Please take my clothes as a gift." The thief was bewildered, but he took the clothes and ran away. The master sat on the rock naked, watching the moon. "A poor sentient being!" he sighed, "I wish I could give him the beautiful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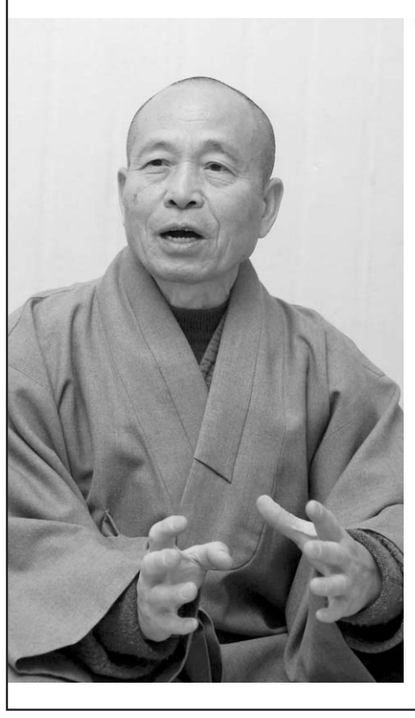
산자락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알거지처럼 지내는 선사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오두막을 비운 사이에 좀도둑이 기어들었으나 도통 훔쳐갈 게 없었다. 때마침 돌아온 선사가 그에게 말했다. "날 찾아 먼 길을 오셨으니 맨손으로 돌아가시게 할 순 없지요. 자, 내가 입은 이 옷을 선물로 받으시오." 좀도둑은 좀 당황하다가 옷을 가지고 줄행랑을 놨다. 발가벗은 채 바위에 앉은 선사가 한숨을 지었다. "가여운 중생이로고! 그에게 저 고운 달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각성큰스님 법을 펴시다!!]

불교강원과정 3기 수강생 모집

부처님법을 만남은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꽃을 보는것과 같다고 하듯이 경허, 한암, 탄허 큰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각성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막힘없고 완벽하게 강해하신 한국불교천육백년에 핀 동양학의 대 선지식이십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큰스님의 법보시를 받아 불법의 종지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1. 강의과목 : 강원 사교과정중심
(금강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원각경, 유식론, 선가귀감, 육조단경, 화엄경, 반야심경 약소)
2. 각성큰스님약력 :
- 통도사,범어사,해인사등 불교전문강원 강주역임
- 동국역강원 역경위원
- 강해 저서 〈능가경〉〈능엄경〉〈유식론〉〈구사론〉〈대도직지〉〈대승기신론〉 등 다수
3. 교 수 진 : 서대원 박사(북경대 철학박사)
4. 개강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3시
5.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현재 선가귀감, 유식론 강의 진행중)
6.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 사진 1매
7. 접 수 처 : 보명선원 TEL 02)2273-8484 / FAX 02)2276-0108
011-774-1416 / 011-9021-1680

[재가불자들의 탁마수행도량]

보 명 선 원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82-7 대화빌딩 5층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5번출구 10M전방 첫 우측골목)

운문사 보현율원
2008학년도 율원신입생 모집공고

운문사 보현율원에서는 신심과 원력으로 律藏을 연찬하실 비구니스님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 0명
◈ **지원자격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08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및 필기시험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은사스님 추천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급), 사진(4×5) 3매
◈ **시험일자 :** 2008년 3월 7일(金) 오후 2시 (음력 1월 30일)
◈ **연 락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승가대학 보현율원
전화 054)372-8800, 370-7100
팩스 054)371-0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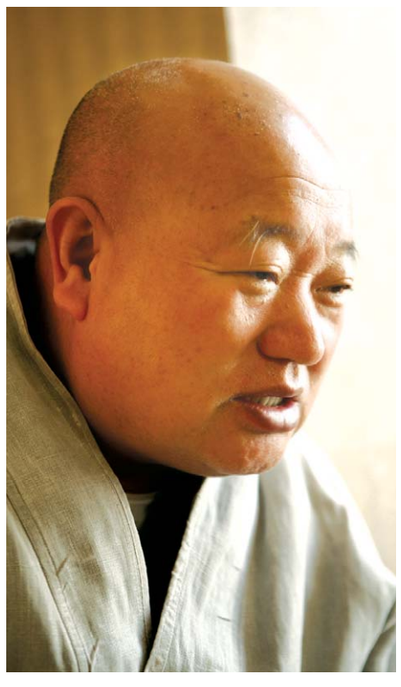
불기 2552년 2월 21일

운문사 보현율원 율주 명성
율원장 흥륜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법 배워야

선지식을 찾아서 성타





성타 스님은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5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였으며, 법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하였다. 제6대부터 11대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포교원장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경주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며 불국사 주지 겸 회주이다.

성타 스님 (불국사 주지·회주)

신라 천 년 고찰이기에 불국사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가슴 설렌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을 비롯하여 소나무 한 그루까지도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인간의 영욕을 모두 지켜보아 온 것이라 생각하면 예사롭지 않다. 백운교와 청운교를 지나면서 과거 어느 생에 이곳을 거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감포 앞바다를 휘돌아 토함산을 타고 불어오는 찬바람까지도 반가울 뿐이다. 성타 스님은 넉넉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부처님 말씀은 길에서 마을에서 고통의 현실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진 생생한 현장의 소리이다. 성타 스님은 공의 이치가 책에서만 머무른다면 삶과 동떨어진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지역 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주 지역에서는 성타 스님을 '경주 경실련공동대표'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다. 13년 전에 시민운동이 전무한 경주에서 '경실련'을 창립하여 지금까지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주 경실련이 이루어 낸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고도(古都) 보존법'을 국회에 통과시킨 일이다.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성타 스님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문화재당국에 의해 보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전에는 문화재 보존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 역시 고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열고 있었던 스님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변화무쌍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여쭈었다.

"붓다란 말의 의미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 존경하고 귀의하는 부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분입니다.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행한 분이 바로 부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일체중생에 회향하는 종교
인간의 물질적 욕망이 불행을 부르는 씨앗

우리가 행하는 기도를 비롯해 염불정근이나 참선까지도 일체의 모든 중생을 향하여 회향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타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게 됩니다. <팔천송 반야경>에 보면 '보살의 장엄은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며, 그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것이 보살의 장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장엄은 화려함이 아닌 일체중생의 제도입니다. 멋지게 꾸미고 현란한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일이 아니라 일체의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일이 장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보살이라는 말이 여성신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통하게 되었다. 아마도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처럼 베풀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며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 보살의 장엄이 아닌가 싶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백 달러에 불과한 옛날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물질로써는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싹튼다'고 보았으며, 욕망은 무명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비우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비울 줄 모르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성타 스님은 93 선지식들의 열반송을 책으로 묶어서 내 놓았다. 가장 마음에 드는 열반송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열반송인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라(自歸依 法歸依 自燈明 法燈明)'는 글귀가 평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은사인 월산 큰스님의 열반송을 좋아합니다."

'일생 동안 돌고 돌았지만/ 아직 한 걸음조차 옮긴 바 없네/ 본래부터 그 자리는/ 천지 이전의 것이었네.' 월산 큰스님의 열반송을 읊는 성타 스님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존경심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작년 한해 불국사 극락전에 조각된 황금돼지로 인해 온 국민이 즐거워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 한해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올해는 쥐띠해입니다. 쥐는 지혜를 상징하며, 지혜는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화두를 드는 것도 자신에 대한 끝없는 성찰이며,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불보살을 통해서 기원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꾸 하다보면 선과 통하게 됩니다. 참회(懺悔)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지요. 참은 스스로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자기 고백입니다. 부처님께 참회하는 것이 기도에 앞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자리를 잘 살피고 다스리는 일밖에 없단다.

대나무 그림자가 온종일 마당을 쓸어도 그 흔적조차 없듯이 하루 종일 마음을 들었다가 놓아도 작용한 바 없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공부임을 알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데스크 초대석

불광사 주지 지홍스님

"우리는 참으로 반야(지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복지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용력을 발현하여 이 땅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겠다. 이것은 인간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지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威光)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여한다."

1974년 11월 창간된 월간 <불광>의 창간사 뒷부분이다. 중생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위광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했다는 그 원력이 400호까지 이어졌다. 34년의 대장정에서 월간<불광>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의 길로 인도했고 불자들을 일깨우고 불자로서의 삶에 감사하게 했다. 우리 시대에 있어 지난 34년은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다. 그런 시대의 곡절을 함께 하며 창간의 정신을 오롯이 지켜왔기에 오늘날 월간<불광>은 단순한 교양잡지를 넘어 전법의 보탑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400호 특집을 담은 2월호를 발행한 <불광>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축하와 나눔의 밤도 가질 계획이다.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 '불광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전법의 보탑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불광사 주지 지홍스님을 만났다.



'부처님의 빛' 온누리 비추길…



월간<불광> 창간호 (앞)와 400호 표지.

월간<불광> 34년 대장정…지령 400호 발행

문공부·한국잡지협회서 우수 잡지 선정도

–발행인으로서 지령 400호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시겠습니다. <불광>이 34년간 이어져 온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은사이신 광덕 큰스님께서는 대각사에서 3평짜리 방 하나를 사무실 겸 숙소로 쓰시며 <불광>을 창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인쇄소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 하나를 놓고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월간 <불광>이 400호 까지 이어져 온 바탕에는 창간 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온 광덕 큰 스님과 그 유지를 받들어 온 운영진과 편집진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였습니다. 이제 <불광>은 창간의 원력과 독자들의 참여를 아우르며 더욱 큰 빛을 발하는 전법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불광>의 창간 배경과 창간 정신이 궁금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불교는 산중사찰을 고집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서양의 종교와 사상들이 물밀듯이 유입되었지만 불교는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의 절대절명의 요구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다시 중흥시키려는 원력으로 도심포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자임한 분이 바로 월간 <불광>을 창간한 광덕 스님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과 전법을 다르게 생각하던 당시의 교단풍토를 개선하고, 전법으로 이 땅에 바라밀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일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며, 마하반야바라밀 속에 모든 것이 구족해 있다"는 바라밀관을 펼치며 1974년 9월 종로3가 대각사에서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불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해 11월 문서포교로 부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순수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을 창간하셨습니다. 그 다음해 10월에는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발족했으며, 1982년 당시 허허벌판이던 잠실벌에 현대식 부처님도량 불광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전기를 이뤄냈습니다.

–광덕 큰스님께서는 도심포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그 원력이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스님은 불광사·불광법회와 월간 <불광>을 중심으로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는 불광바라밀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대중포교의 방향을 선도하신 겁니다. '불성생명을 추구하는 순수불교'를 기치로 내건 불광사·불광법회는 '입문교육, 바라밀교육, 명교사교육'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드높여 전법실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역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법등조직을 체계화시켜 모든 법회가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봉사활동(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불광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문서포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9년 설립된 불광출판사는 월간 <불광>과 함께 문서포교의 한 축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약 240여 종의 불서를 펴냈습니다. 또 불광교육원을 개원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광덕 큰스님의 뜻에 따라 불광유치원을 개원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월간 <불광> 주최로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처님을 모셔주기 위한 행사를 10회 동안 개최했습니다. 현재 불광회는 내 독자들의 신행활동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격월간 불광사보 '공감 Plus'를 창간했습니다. '공감 Plus'는 여타 사보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잡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통해 불광사가 위치한 송파지역의 문화와 정보, 현안 등을 다루며, 지역 주민과 함께 스스럼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광회는 바라밀다합창단과 마하보디합창단을 창단해 찬불가를 제작·보급하며, 법회와 공연을 통해 노래(음성공양)로써 활발한 전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불광교육원을 개원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광덕 큰스님의 뜻에 따라 불광유치원을 개원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월간 <불광> 주최로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처님을 모셔주기 위한 행사를 10회 동안 개최했습니다. 현재 불광회는 산하에 불광사·불광법회, 월간 <불광>, 불광출판부, 불광유치원, 불광교육원이 각각 독립적인 운영을 하며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간 <불광>은 그간 내용적으로나 형태 그리고 각종 행사주관 등 많은 변화를 해 왔습니다. 불광의 변화는 한국불교 잡지의 변화라 할 만합니다. 그간 '불광'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주시고 향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창간 때부터 순수불교의 신행과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를 자처한 월간 <불광>은 비불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초보신자들을 교육, 신행을 지도하는 신행잡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불교계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수한 필진과 세련된 디자인, 참신한 기획으로 불자들의 지적 욕구와 의사소통 형성을 충족시켜주며 불교잡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월간 <불광>은 교계 안팎에서 품격 높은 불교잡지로 인정받으며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 2005년 '한국잡지협회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되어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월간 <불광>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용 및 디자인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호를 한글로 바꾸고, 판형을 키우며(4×6판→변형 신국판), 칼라 지면을 대폭 확대(16p→48p)하여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집 디자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나누고,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세련된 잡지로 거듭나며 불교잡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불교적 삶의 양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활불교 가이드로서, 생활 속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불교를 지향하며 행복한 기운을 부지런히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불광사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창불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광법회와 불광사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사람과 일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현재의 공간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창불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자들의 수행과 각종 의식, 전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산시켜 나가는 '불광 가족'의 새로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定期總會

송광사 강원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스님들께서는 수행정진에 바쁘시더라도 수희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탁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2월 29일(금) 낮 12시
◇ 장소 : 서울 길상사

■ 안건 : (1)동문회 수첩 제작
(2)성지순례건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會長

원전 강독 능력 학문의 기초… 쉼없이 매진해야

은정희 교수 나의 삶 나의 불교학 〈끝〉

어려서 절에 다녀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준 법문은 어린 내게 스펀지처럼 스며들었다. 독서광이던 큰언니를 따라 책을 읽던 열살, <괴도 루팡>을 읽던 때였다. 탐정이 옛 성안 20여개의 방을 돌아다니는 부분에서 방 하나를 묘사하기를 '옥좌가 2개, 왕과 왕비가 있었을 법한…'이라고 쓰인 그 한 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보다 책상이 더 오래 남겠구나' 하는 생각에 멍했다. 정신을 추리고 바라본 창밖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햇빛이 찬란히 비추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고민은 시작됐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세상을 다녀갈 뿐'이라는 고독과 불안감에 나는 미칠 지경이었다. 혼자만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가 얼마였을까? "태어났다면 죽지를 말던가, 죽는다면 다시 태어나지를 말던가"하며 어린 시절 나를 괴롭히던 고민은 후일 알고 보니 원효가 사복(蛇腹)에게 했던 말이었다.



은정희 교수는 1939년 경북 군위 출생. 1960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임. 김미영 교수(서울시립대), 김원명 박사(한국외대 강사) 등 다수의 제자들이 학계 및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40여년간 이어진 고려대 등산모임 안암산우회 활동은 물론 동네 동사무소 단전호흡 강좌까지도 거르지 않는 성실함은 부주열반(不住涅槃)의 원동력이 돼 원효 연구와 한문 경전 번역에 평생을 매진케 했다. 역서로 <대승기신론소 · 별기> <금강삼매경론>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기신론 소 •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사상' 등이 있다. 올해 4월 26일 (가칭)<알기 쉽게 풀어쓴 대승기신론> 출간을 맞아 고희 기념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 접해…법문듣고 불교공부 발심

#부친 권유로 법학과 진학해

열살부터 생사의 고민에 진한 홍역을 치뤘던 나는 중학교 진학 전 훌륭한 사람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고민을 멈췄다. 그때까지 부모님과 학교에서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들은 것을 나는 '후회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린 터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공민(정치경제) 과목 선생님에게 슈팽글러와 토인비에 대해 들었다. 철학과나 사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다. 그런 내게 아버지는 고시패스 하기를 강요했고, 부친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고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법학 공부를 하는 동안 재미도 없었고 왜 다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졸업은 수석으로 했다. 부친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법학에 흥미가 없던 나는, 계속해서 고시패스를 바라던 부친의 기대를 뒤로 하고 대학 졸업 후 8년 반을 집에서 식모살이했다.

엄하고 철저했던 모친에게 삶 배워

내가 식모살이 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내 위로 두 언니를 모두 시집보낸 어머니는 당신 도리는 다했다며, 집안일을 놓고 자수를 했다. 내 어머니 故 신주련 보살은 경북 군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예전문학교를 나온 인재다. 어머니가 작고했던 2006년 생전의 자수 작품을 모아 유작전을 열 정도로 자수에 출중했다. 원망도 많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존경한다. 군위 고향마을에 아버지 호를 딴 '남강대교'를 놓은 것도 어머니였고, 학교법인 남강학원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어머니였다. 또 가진 돈을 모두 희사해 우이동 보광사 불사를 이룬 것도 어머니였다. 남들이 쉽게 못할 수많은 일을 하고도 상을 안내던 순수하신 분, 호랑어멈으로 불리던 꼬장꼬장한 분으로 돌이켜보면 보통 분은 아니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주위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해 글자 하나하나 완벽을 기하는 내 성격이 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덕분 아니겠냐는 농담을 한다. 무엇보다 네 명의 아들과 부친까지 오부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8년 넘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내가 그나마 고려대 철학과에 진학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부친의 반대를 무마한 모친 덕이었다.

#<금강삼매경론> 강의에 가슴 확 트여

대학 졸업한지 2년이 지났을 때다. 부처님 오신날기념법회가 명동 시공관에서 열렸다. 황산덕 · 이항령 박사와 대각사에 주석하던 능가 스님, 당시 승려였던 고은 시인 등이 법문을 했다. 듣다 매료돼 조계사청년회 활동을 하게 됐고, 당시 광덕 스님 법문에 불교 공부를 해야겠다는 발심이 섰다. 이기영 · 이종익 박사 등 당대 석학들의 강의도 들었다. <노자> <장자>를 읽으며 가슴이 시원하다 느꼈는데 이기영 박사로부터 <금강삼매경론>에 대해 들으니 가슴이 확 트이는 듯 했던 것을 보면 불교와 특히 원효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다. 법문을 들으니 부처님 말씀과 평소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에 환희를 느끼고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친의 반대와 모친의 중재로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늦깎이 대학원생, 한학만은 열심히 해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김동화 박사였다. 내게 큰 감화를 준 <금강삼매경론>을 주제로 논문을 쓰려했지만 자료가 없어 <대승기신론>으로 대신했다. 논문마감기한 한 달여를 앞두고 김동화 박사를 찾았더니 "간도 크다. 해볼 테면 해봐라"고 해서 열심히 썼다. 석사학위를 받고나니 계속 공부해야겠다 싶어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시간강사만 서너 학교를 다녔다. 논문 쓸 시간도 없이 강의만으로도 바빴지만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추) 연구원 생활을 하며 한학 경전 읽기에 몰두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지곡서당(현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 공부했던 인연으로, 민추에서 상임연구원까지 지내며 당대 최고 한학자던 우인 조규철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익혔다. 당시 민추는 어려서부터 한문만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실력자들이 많았다. 매달 시험을 봐서 장학금도 줬는데 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이런 나를 두고 우인 선생은 "은정희는 꾀가 조조"라며 칭찬했다. 반면에 많은 한학자들 앞에서 "은정희가 1등인 것은 민추의 수치"라고 한 적도 있었다. 그때 김철희 선생 등 한학대가들이 내 고향을 물었다. 경북 군위라 대답하자, 경북에서 유명한 한학자 은진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고, 직계 증조부가 된다 하니, "당연히 민추 1등을 할만하다"고 한 기억이 난다.

한문의 벽만 뚫으면 박사논문은 쉽게 써지겠거니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한여름 섭씨 35도를 넘는 더위에 보리밥을 도시락에 담아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 먹으며 쉬지 않고 공부했다. 한번 읽어 모르면 두 세번 읽었다.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意自見:백 번 읽으면 글의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이라 했던가. 읽다보면 신기하게 모르는 것도 알아졌다.

김동화 박사 작고 후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윤사순 교수였다. 지도교수의 소개로 <대승기신론소 · 별기>를 번역할 수 있었다. 2000년에는 <금강삼매경론>과 그동안 난해하기로 이름난 <이장의(二障義)>를 번역해 행원문화상도 받았다.

#불교 학자는 원문에 자신 있어야

올해 고희가 되지만 지금도 나는 한문 읽기를 쉬지 않는다. 이강수 교수(연세대 철학과), 신용호 명예교수(공주대), 허경일 명예교수(덕성여대) 등 40년 강독지기들이 모여 <춘추좌씨전>을 교재로 1982년 새로 시작했던 강독 모임은 지금도 격주 토요일 마다 열린다. 화요일에는 대학원 강의를 하고, 수요일에는 <논어> 강독을 한다. 금요일에는 유식 관련서적을 강독한다. 3월부터는 <구사론>도 새로 읽을 예정이다. 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거의 매일 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은 오랜 시절 함께 수학한 도반과 제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문은 손에서 놓으면 잊기 때문이다. 특히 한문은 어학이라 더 그렇다. 한번 봤던 책들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느낌이 다르다. 출간 후 15쇄를 넘긴 <대승기신론소 · 별기>도 아직까지 간간이 고칠 곳이 보인다. 여러 본을 대조하며 공부해 보니 원효의 <능가경> 번역은 범어 문법에 한자만 옮긴 것으로 오류가 보였다.

반면에 현장 스님의 번역은 문법까지 중국식이라 오류가 적다. 천재며 성자라고 일컫는 원효의 번역에도 오류가 있는데 하물며 나와 같은 범부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요즘 학자들을 보면 너무 쉽게 논문을 쓰고 원전을 우습게 본다. 웃을지 감사해야 할지 모를 일이 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그의 글에서 내가 <대승기신론소 · 별기> 등을 번역한 이후 <대승기신론>에 관한 연구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 것이다.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원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한문이든, 범어 혹은 빨리어든 말이다. 원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다. 원전을 장악하지 못한 학문은 사상누각과 진배없다. 불교 원전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다수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문과 불교 지식에 능한 젊은 사람 여럿이 모여 절차탁마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교와 인연이 가볍지 않았던지 어머니 따라 해인사를 찾았다가 성철 스님에게서 책을 받으며, 또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만난 인홍 스님에게 이끌려 석남사에 갔다가 출가할 뻔도 했다. 지금껏 내가 홀로 사는 재가자로 남은 변명은, 불교가 내 삶이자 철학이었고 생활 목표였기 때문이다. 매순간 내게 원효는 화두였고 번역은 수행이었다. 지금도 나는 학문과 둘이 아닌 내 삶을 위해 쉼 없이 조용동시(照用同時:본성의 비춤과 본성의 작용을 동시에 이룸)를 실천한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선 수행의 길잡이
원순 지음|법공양 펴냄|2만2000원

참선하는 사람의 행실 다져주는 서산 대사 목소리 생생

"예전에 불교를 배우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를 않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 여긴 것은 오직 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면서 외우는 것은 세속 선비들의 글이요 청하여 지니는 것은 벼슬아치 시뿐입니다. (중략) 아!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정 사람들과 어찌 이다지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서산 대사 휴정(1520~1604) 스님이 <선가귀감>을 지은 이유다. 서산 대사가 서문을 통해 밝힌 '저술의도'는 자연스럽게 '과연 오늘날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믿고 지니고 행해야할 기준점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지 못한 세태사 서산 대사로 하여금 <선가귀감>을 짓게 만들었다. 선가(禪家)는 참선을 수행방편으로 삼는 사람이고 귀감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비춰 보는 거울이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지니고 행해야 할 '키포인트'들을 모아 역은 책이다. 서산 대사는 이 책을 엮으며 50여권의 경전과 논서 어록들을 참조했다.

그래서 <선가귀감>은 대장경과 조사어록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며 참선 공부하는 사람의 행실을 다져주는 서산 대사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서산 대사 자신도 서문에서 "이 글로 엄한 스승을 삼아 끝까지 공부해서 오묘한 도리를 얻는다면 이 글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것이니 부지런히 공부해서 힘쓰고 또 힘서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다.

서산 대사가 <선가귀감>을 지은 지 500여 년이 지났다. 진리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500년이란 세월의 두께도 사실은 무의미하다. 송광사 인월암에서 경전 번역에 몰두하며 틈틈이 세상으로 나와 강의를 하는 원순 스님이 500년의 세월을 관통해 <선가귀감>을 오늘의 언어로 쉽고 알차게 강설했다. 현대불교신문 지장에 '선 수행의 길잡이'란 제목으로 84회에 걸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책으로 낸 것이다.

원순 스님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열린선원(02-722-0633)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선가귀감>을 강의하고 있다. 원순 스님이 <선가귀감>을 풀어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무엇' 때문이다. 원순 스님도 그 이유를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먼 길로 둘러가지 않고 화두로 직접 담습에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바로 알지 못하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 사천 법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중생들은 '그 무엇'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그 무엇'에 대해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敎)입니다. 이 선과 교를 아울러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곧 '선가귀감'입니다. 올바른 스승을 찾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는 '선가귀감'이 바로 선지식이 됩니다."

임연태 기자

다도의범
고산 스님 지음|성보문화재연구원 펴냄|1만5000원

잘못된 다법 친절히 설명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다도의범(茶道儀範)'.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다례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책 곳곳에서는 현재 잘못 행해지고 있는 다법(茶法)을 바로잡고, 다도의 기원이 불교예법에서 왔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저자인 고산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차(茶)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차(茶)의 본고향으로 불리는 하동 쌍계사에 주석하면서 부터다. 일본과 중국의 외래다도가 넘쳐나는 것을 본 스님은 전통 다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다도를 하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특히 <차의 문화사> 편은 신라 이전의 차 문화를 시작으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단순 나열이 아니다. 그 시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차에 관한 시를 통해 당대 선지식들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흔적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자들도 쉽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다도 시범을 사진과 함께 실어 놓았다.

김주일 기자



내 무명을 밝히는 깨달음의 노래
김양경 지음|혜명 펴냄|1만원

쉽게 풀어낸 선시, 깨달음의 지혜와 함께

깨달음의 노래로 불리는 선시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깨달음의 희열을 표현한 오도송이 있는가하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을 노래한 경우, 그리고 열반송과 같이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은 선시도 있다. 모두가 불가의 가르침을 체득한 선사들의 깨달음에서 나온 시들로 그 자체로도 음율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선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말한다. 좋은 음악은 그것이 상송이 됐든 팝송이 됐든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든다.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음악의 밝은 기운에 감화되는 것이다.

저자가 20여년이 넘게 불교와 선시 공부를 하며 모은 선시들을 가려 뽑은 이 책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시마다 쉬운 한글풀이를 해 놓았다. 또한 시 자체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문 풀이를 장마다 따로 배치해 가독력을 높였다. 특히 각 장은 선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과 부처님 말씀을 수필형식으로 풀어내 어려운 선시지만 책장이 술술 넘어가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문향허 지음|비엠북스 펴냄|1만5000원

명상을 삶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게 안내

원불교는 불교와 어떻게 다른가? 원불교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사실 많은 불자들이 원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웃종교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도 막상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원불교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향허 교무의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명상에 대한 원불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명상의 기초, 숨쉬기 명상, 말하기 명상, 글쓰기 명상, 명상의 통합활용 등 5가지 테마로 엮어진 이 책을 통해 문향허 교무는 원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삶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문향허 교무는 책에서 명상을 하면 좋은 점을 10가지로 간추린다. 경거망동을 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육근동작에 순서를 얻는다.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 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인내력이 생긴다. 착심(着心)이 없어진다. 사심(邪心)이 정심(正心)으로 변한다. 자성의 혜광이 나타난다.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생사에 자유를 얻는다 등이다.

임연태 기자

입맛대로 먹어라
이석치 · 고은애 공저|야스미디어 펴냄|1만원

체질에 맞는 섭생법이 건강 유지 비결

자연치유연구소에 몸담았던 저자들이 병 안 걸리고 병 고치려면 입맛대로 먹으라는 독특한 건강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은 각 장부의 기운이 크고 작음을 뜻하는 체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체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능에 의해 입맛대로 먹는 것이 오히려 각자 체질에 맞는 섭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백설탕, 맛소금, 화학조미료를 사용한 맛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다면 독성이 강한 약이나 병원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지만 만일 장부가 허약하다면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음식의 섭취만으로도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음식에는 오미(五味 :달고, 쓰고, 짜고, 시고, 매운 맛)가 숨어 있으며, 이 맛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오장육부가 스스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 몸의 체질, 즉 오행체질이 우리의 장부 및 오미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체질을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섭생법을 실천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2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월호	아름미디어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서장	전재강 역주	운주사
8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9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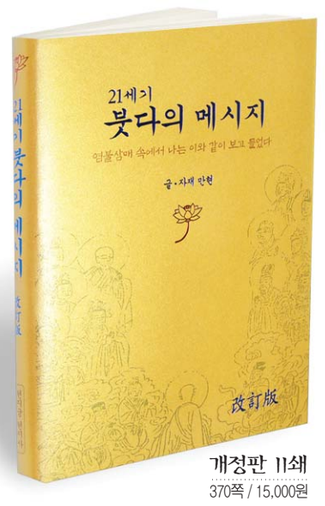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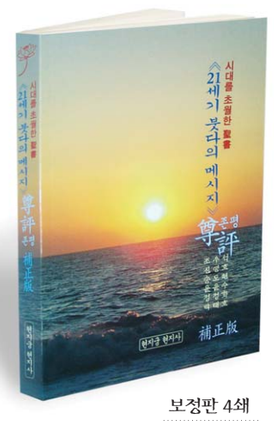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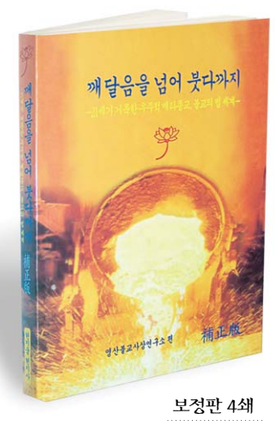
12쇄 개정판 11쇄 이어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한글로 환생한 팔만대장경 전산화 박차

동국역경원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대장경 한글화사업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낸 동국역경원 연구위원들. 이들은 언제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역경사업의 앞길을 비추고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목판 팔만대장경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목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환희심을 줄 정도다. 그렇다고 팔만대장경의 아름다움이 그 외형에만 있을까. 구슬과 같은 8만 4000자가 그 속에서 꿈틀거린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전도 읽지 않으면 소용 없다. 그렇다고 그 모든 한자를 읽자니 머리부터 아프다.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은 경전의 보배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 일을 해내는 곳이 바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 이하 역경원)이다.

2월 19일. 서울 충무로역에서 동국대 후문으로 올라가다 보니 학교테니스장 옆에 웬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다. 현재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 건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니 열이면 열, 고개만 갸우뚱 거릴 뿐이다. 결국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역경원'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들이 몇 개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역경원과 조우한 것이다. 누가 알든 모르든, 역경위원들은 이날도 치열하게 경전을 들여다보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역경원은 1964년 3월 설립됐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관이지만 설립 초기에는 열의가 대단했다.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기관이라니,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고지원금은 물론 교계 각처에서 후원금까지 물밀듯 밀려들었다.

"당시만 해도 사회지도층에 불자가 많았어요. 또 책이 귀한 때라 불자들이 경전 한 권 갖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역경원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종린 연구원의 말이다. 이 말마따나 재가불자들의 기대감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역경사업 자체가 한자에 통달한 학자나 스님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경전을 대중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을 테니.

그렇게 1980년까지 역경원은 80권의 한글대장경을 출간하며 신바람 나게 한글대장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련은 있게 마련이다.

수행에 가까운 작업…역경기반 아직 열악

역경사업이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에서도 종단에서도 역경사업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 갔다. 몇 차례 지지부진하게 역경 사업이 중단아닌 중단이 되기도 했다. 그런 지난한 세월을 이기고 2000년 완간된 것이 총 318권에 달하는 <완역 한글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 역경사업을 마쳤다면 역경원은 소임을 끝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경원에서는 요즘 한글대장경의 오역과 오·탈자를 걷어내는 개정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하다 보니 작업이 다소 거칠게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즘 역경원 홈페이지(www.tripitaka.or.kr)에 접속하면 대장경의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화 작업에서 나아가 시대에 맞게 전산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0년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48권까지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한국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중요한 일을 해낸 기관임에 틀림없지만 역경원에 대한 대우는 말이 아니다. 역경원은 현재 종단 산하기관도, 학교기관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사도 잦았다. 박종린 연구원이 기억하는 것만 7~8회에 달한다. 그러는 사이 자료도 소실됐을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사람 문제다. 박종린 연구원처럼 25년이나 역경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역경사업을 하려면 한자와 번역에 능숙한 고급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침이 심하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직장,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저야 이 과정을 수행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후배들이 나가려 할 때는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남으라고만 하겠습니까."

어떤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도 역경원은 한걸음씩 힘들게 나아가고 있다.

"불자들이 말과 글을 소홀히 하는 풍토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원이 왜 필요한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합니다. 역경원은 경전을 정리하고 모든 해설서의 근간이 되는 통일경전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야 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응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고 침략 시기의 고려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들은 하나의 획을 가다듬고 정리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며 부처의 외호를 바라 마지않았을 것이다. 그 정신이 엄청난 세월을 뛰어 넘어 경전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경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정신은 남아있다. 역경원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의 참다운 의미는 경전을 지키고 현세에 쓰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정신의 계승에 있지 않을까 싶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양치는 성자

백운스님 | 도서출판 한강수 | 1993년

정복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읽고 또 읽으며 '겸손' 배워

'내 종교는 불교'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였을 것이다. 엄마의 죽음과 함께 고향인 속초로 낙향하게 된 그 시절, 때마침 전학 간 학교에 처음으로 불교학생회가 창립되었다. 그곳에 가입해 내 마음을 위로받은 인연이 불교를 접하게 된 동기라면, 내 생활 속에서 불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신바람 나게 지낸 시기는 서울 법련사 청년회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 무렵의 내 생활은 모두 법회일인 수요일이 기준점이었다.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무엇이 좋아 그리 열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리 돌아봐도 후회가 없는 그 시간, 그때의 인연은 지금도 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음 짓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시절 만난 한 권의 책 때문이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지도법사스님께서 우리에게 법보시 하신 것으로 불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기에 욕심으로 받았다. 그 책은 <양치는 성자>다.

<양치는 성자>는 서산대사로부터 의발을 전수 받은 편양 언기선사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것이다. 12살 어린나이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한 언기 스님은 견성 후 보림하는 장소로 목장을 택해 양치기 머슴일을 시작했다. 스님은 이 일을 하면서 평범한 양치기로 만족하지 않고 수행의 과정으로 삼았다. 이는 자신의 일생의 지표와도 같은 법호를 편양(鞭羊)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님은 온 중생을 어린 양으로 보고 그 양들을 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았다고 보인다.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고 장좌불와로 정진하면서도, 매일 적멸보궁에 참배하러 가는 것을 자신의 공식적인 일과로 삼고' 있었던 스님의 상원사 생활을 통해 나는 신행생활에서 겸손을 배웠다.

스님에 대한 많은 일화 중 하나인 평양에서의 보살행이다. '요중공부(鬧中工夫)'로 편양 스님은 평소 길을 걸으면서 으레 '이 뭣고?' '이 뭣고?'라고 중얼거리며 다녔으니 '이 뭣고'를 '이 먹고'로 알아들은 평양 사람들은 편양 스님을 '이 먹고노장'이라 불렀으며, '이 먹고노장'의 일화는 평양 3대 신화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편양 스님은 우리에게 보현보살로 나투시어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라 생각된다.

불교 접한 인연으로 내 생활에 많은 부분 변화
욕심내어 받은 책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좋아

아직 많이는 모르지만 지금도 가끔 <양치는 성자> 편양 스님의 일대기를 생각하며 시장바닥에 앉아 있기 위하여 짐짓 숯장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숯을 사러오는 손님들을 맞자니 공부가 쉽사리 여일치 않아 '순일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편양 스님의 마음자리를 그려볼 때가 있다. 그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금생에 어떤 복을 지어야 하나.'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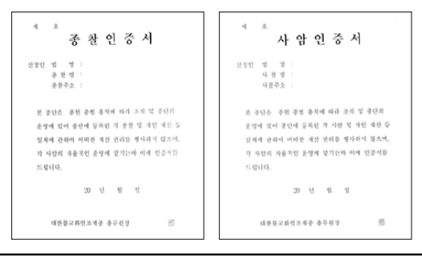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③

"수면에 빠지는 것은 작게 죽은 것과 같다"

三棄睡眠蓋 內心昏闇名爲睡 五情闇蔽 放恣支節 委臥睡熟爲眠 以是因緣 名爲睡眠蓋 能破今世後世實樂法心 及後世生天及涅槃樂 如是惡法 最爲不善 何以故 諸餘蓋情 覺故可除 睡眠如死 無所覺識 以不覺故 難可除滅

세 번째로 수면(睡眠)의 장애에 대해 말해보기로 한다.

만일 사람이 단정하게 좌선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탐욕과 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일토록 제육의식이 혼미하여 수면에 집착한다면 이는 마치 껌껌한 귀신소굴 속에서 살 궁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수면이라고 하는가. 안으로 마음이 껌껌한 것을 '수(睡)'라 하고, 안이비설신 등 오근이 어두움에 뒤덮여 자기의 의식을 다스리지 못한 채 누워서 자는 것을 '면(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수면의 번뇌, 즉 '수면개(睡眠蓋)'라고 말한다.

이 '수면개'야말로 껌껌하게 어두운 마음으로 세월을 부질없이 보낼 뿐만 아니라 금세와 후세에 진실한 법락을 괴멸시키며, 천상에 태어나고 열반을 증득하는 등의 즐거움까지 파괴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수면은 모든 악법가운데서 가장 선하지 못한 악법이며, 여타의 번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하열한 번뇌인 것이다.

탐욕 등의 번뇌는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각성하면 제멸할 수 있지만, 수면은 껌껌하고 무지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는 마치 살아있다 해도 죽은 사람과 같다. 따라서 수면에 빠져들면 자신의 잘못을 털끝만큼도 깨닫지 못한다.

이를 두고 옛 큰스님은 "깊이 잠이 드는 것은 작게 죽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면 때문에 일생을 부질없이 보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세존께서는 아나율타 존자가 수면에 빠져 있는 상태를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 때문에 잠을 자느냐. 잠에 빠지는 것은 마치 소라나 조개처럼 한번 잠들면 일천년을 경과하듯이 영원히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고 하셨던 것이다.

如佛諸菩薩訶睡眠弟子偈曰

汝起勿把臭屍臥 種種不淨假名人 如得重病箭入體 諸苦痛集安可眠 如人被縛將去殺 災害垂至安可眠 結賊不滅害未除 如基毒蛇同室居 亦如臨陣兩刃間 爾時云何安可眠 眠爲大闇無所見 日日欺誑人明 以眠覆心無所見 如是大失安可眠

여러분은 항상 정진을 계속하면서 맹렬하게 반성하여 종일토록 수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몸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서 갖가지 더러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크게는 대변, 소변으로 부터서 내지는 팔만사천 털구멍마다 벌레가 굼실거리기 때문에 몸 전체가 청정하지 못하다.

진실한 법락 파괴, 보리열반까지도 장애
참선등 방편통해 수면의 마군 항복받아야

중생들의 몸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요약하면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종자가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몸은 부모의 사견의 바람으로 인해 음욕의 불길이 일어나 골수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와 정액으로 변하고, 서로 애욕을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애욕을 불러일으키는 종자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망상이 태를 이루고 흐르는 애욕이 종자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몸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최초의 청정하지 못한 종자인 것이다.

두 번째는 태어난 처소가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애욕의 종자가 엄마의 태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결합하고 성숙하면서 열달동안 태의 감옥에서 성장하여 음문으로 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해 성석론(成釋論)에서는 "이 몸은 연꽃도 아니고 전단향기를 따라서 나오지도 않았다. 단지 더러움 가운데서 자라나 음문을 통해서 출현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외부모습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외중간이 서른여섯 가지 물질로 화합해서 이루어져있는데, 그들 낱낱의 물질이 청정하지 못하다. 아홉 개의 구멍으로부터 더러운 물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마치 자루에 있는 물질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능엄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자체의 모습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몸의 근본은 더러운 업을 따라 태어나서 더러운 물질에 의탁하여 그 성질이 본래 청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청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자체성질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는 최후까지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몸은 업보가 다하여 사대가 흩어지면 끝내 그 어떠한 실체도 없는 공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이치로 몸을 관찰하면 이 몸은 끝내는 필연적인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끝까지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유한다면 우리들 자신은 명칭만 있지 그 명칭에 걸맞는 실제라고는 없는 임시적 호칭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 있는 그대로가 허깨비변화와 같은 것이어서 실제있는 것이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집착하여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종일토록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수면은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결박을 당한 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따라서 수행자라면 수면이야말로 매우 껌껌한 모습이어서 일체 보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총명한 정기를 빼앗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사람은 수면을 취하기 이전에 삼라만상이 목전에 나타나면 모든 것이 영력하고 분명하게 보이겠지만, 한번 수면에 빠져들게 되면 온 대지가 껌껌해서 자기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된다. 때문에 일체 보는 사람도, 보이는 대상도 없게 되는 등 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 수면에 탐착할 수 있겠는가.

如是等種種因緣 訶睡眠蓋 警覺無常 減損睡眠 令無昏覆 若昏睡心重 當用禪鎭杖卻之

여기에선 수면의 허물을 알았다면 반드시 급하게 방편법으로써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갖가지 좋지 못한 인연은 모름지기 수면 번뇌를 꾸짖어야만 하는 것인데, 수행자라면 스스로 경각심을 일으켜 삼계의 의보정보가 모두 똑같이 물속에 어린 달이나 허공에 피어난 꽃처럼 결국 실제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고 하였다.

수행인은 반드시 수면을 쥴임으로써 혼침을 없애야만 한다. 수면은 마군의 세력이 지나치게 광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제멸하기가 매우 어렵다.

혼침한 수면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올바르게 사유하여 법상을 분별해야만 한다. 내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거나, 두 눈을 크게 뜨거나 하는 등의 수행방법을 통해서 수면의 마군으로부터 항복 받을 수 있다.

만약 수면에 대한 마음이 지나치게 일어나면 마땅히 참선을 통해서 진압해야 한다. 또는 주장자로 두들기거나, 자신을 스스로 후려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후려치게 하는 것 등도 수면의 마군을 제거하는데 좋은 방법들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아집(我執)과 법집(法執)

한마디로 '아집(我執)'은 아(我)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아집에는 '인아집(人我執)'과 '법아집(法我執)'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아집이 '나'에 굳게 집착하는 반면, 법아집은 모든 사물들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욕심을 낸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아집은 사람(人)이 실재하는 주제자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본래 오온(五蘊)을 의지해서 임시적으로 붙여진 허구적인 명칭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유정들은 그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명칭 이면엔 실재하는 사람의 모습이 주제자(我)로 있다고 굳게 집착하고 잘못 헤아립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인아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아집은 그 의미가 지극히 광범위한데, 요약하면 모든 사물에는 실재하는 모습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간 사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세간 진여법의 이치까지도 실재하는 도리나 사물

집착있으면 모두 법아집에 포함
인아집은 법아집에서 분류한 것

로 있다고 집착하면 그것 역시 법아집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아집이라 해서 법아집과 동떨어진 따로의 집착심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이든 집착심이 있으면 모두 법아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아집을 끊으려면 우선적으로 두 '아'는 실제로 존재해 있는지, 아니면 있다 해도 허깨비일 뿐 실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일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실재하는 '아'를 끊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말로 없다면 새삼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선 '아'는 실제로 유(有)인가, 아니면 무(無)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모든 어리석은 유정들이 행여나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대비방편(大悲方便)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주만유의 모든 법상(法相)을 분석하여 그 법을 오온(五蘊)과 십이처(十二處)와 십팔계(十八界)법으로 시설해 놓으므로써 미혹한 유정들로 하여금 실재하는 '아'는 있지 않다는 이치를 심오하게 관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삼과개합법문(三科開合法門)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자 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문의 전 화 031)448-506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제1회 참선수련
(지도자반)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으로서
큰 뜻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는 대인으로서
깨달음으로 구도의 正道를 가고자 하는 분들,
자신 안에 큰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08년 2월 29일(금) ~ 3월 2일(일) 2박 3일
◆ 장소 : 충남 공주시 상신리 "자승정 수련장"
◆ 초청강사 : 白石 박경진 선사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 주제 : '나는 누구인가?' (동양사상, 한국사상 선맥)
◆ 주최 : 日脈太學敎 ◆ 후원 : (주)선맥
◆ 교육문의 : 043)283-2278 / 010-9701-0675
◆ 장소문의 : 041)881-9575

※ 日脈太學敎는 참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진리의 전당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4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 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하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오늘의 禪語

⑧ 사구(死句)·활구(活句)

‘분별심’ 이 화두의 ‘死·活’ 결정

화두를 참구할 때엔 활구를 참구해야지 사구를 참구하면 타인은 물론 자신도 구제(교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활구에서 깨달아야 비로소 확철대오한 것이지 사구에서 깨달으면 그것은 의리선(義理禪, 이치로 이해한 것)이나 알음알이에 불과하다고 하여 아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활구’이고 ‘사구’인지? 또 ‘활구참구’란 무엇이고 ‘사구참구’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은 절대 요령과 우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구(死句)란 알맹이가 없는 말, 생동감 · 생명력이 없는 말(언어)이나 문구를 뜻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구나 언어 속에 선의 진리 즉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구(언어)를 뜻합니다. 이상은 현재 사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구의 구조와 성격에서 설명한다면 사구는 뜻풀이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참구할 의미가 별로 없고, 또 언어적 · 논리적 · 분석적으로 접근할 경우 대체로 해석이 가능한 문구입니다.

반면 활구(活句)란 알맹이가 있는 말, 생동감이나 생명력이 있는 말, 또는 선의 진리가 들어 있는 언어나 문구를 뜻합니다. 즉 핵(核)이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이 역시 구조와 성격에서 설명한다면 활구는 직관적 사유로부터 나온 말로서 더 참구해야할 가치가 있는 말이며, 언어적 ·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문구입니다. 사구와 활구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될 때엔 서로 정반대 개념에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말을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참선할 때에 앞에서 말한 사구를 가지고 참구(탐구)하는 것을 ‘사구참구(死句參究)’라고 하고 활구를 가지고 참구하는 것을 ‘활구참구(活句參究)’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두에는 활구적 성격을 가진 화두와 사구적 성격을 가진 화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활구적인 화두는 강철처럼 단단하여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화두이고, 사구적인 화두는 논리와 지식, 분별 · 분석력을 총동원하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화두라고 해도 참구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참구하느냐에 따라 활구라도 사구가 될 수 있고, 비록 사구라도 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별심 즉 알음알이로 탐구하면 활구도 사구로 변질될 수 있고, 분별심을 배제하고 탐구하면 사구도 활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휴대폰이라고 해도 사용자에 따라 주식까지 거래하는 등 100%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통화기능 외에는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누가 갖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근본적으로 화두 자체가 활구화두와 사구화두가 있지만, 그러나 화두를 탐구하는 방식에 따라 활구와 사구는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활구라도 사량 · 분별심이나 언어적 · 이치적 · 학문적으로 탐구하면 사구가 되고, 분별심을 버리고 직관적으로 탐구하면 사구도 활구가 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엔 절대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무자화두’는 100% 활구입니다. 그러나 ‘무’를 유무의 상대적인 ‘무’로 생각하거나, ‘진무(眞無)의 무’ 또는 분별심(알음알이)이나 언어적 · 학문적 · 이치적으로 탐구할 경우 그것은 활구라고 해도 ‘사구’ 또는 ‘사구참구(사구방식으로 참구)’가 됩니다. 반대로 일체의 사량 · 분별심이나 언어적 · 학문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무’ ‘간시궐’하고 참구하면 그것은 활구참구입니다.

사실 사구는 ‘알맹이가 없는 말’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정의 · 폄하하기 보다는, 이미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서 더 이상 탐구할 필요(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사구’라고 하게 된 것이고, 활구는 은유적으로 빙 둘러서 표현하여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더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과 비교한다면 활구는 운문이라고 할 수 있고 사구는 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구와 사구의 구분은 선문답(공안) 가운데 선사의 답어가 매우 상징적·은유적이라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으면 활구이고, 설명형식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면 사구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참구하는 것을 사구참구라 하고, 해석되지 않는 말을 참구하는 것을 활구참구라고 합니다.

사구로 참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첫째 이유는 화두를 언어적 · 학문적으로 탐구할 경우 비록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적 · 관념적으로는 이해했을 뿐, 온몸에 녹아든 즉 체화된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탐구(수행) 체험적 사색(수행)을 통하여 얻어진 생생한 것이 아닌, 분별심과 머리로 이해한 관념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활구-직관적 사유에서 비롯, 참구해야 할 핵심가치 내제
사구-논리적인 분석으로 해석 가능하며 선의 진리 부재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백골관’으로 육체 무상함 깨달아

⑧ 마가다 국 케마 왕비

부처님 설법 통해 육체적 집착 벗어
출가 후 보름 만에 ‘아라한과’ 성취

마가다 국 빔비사라왕의 아내 케마 왕비는 재색을 겸비한 미인이었다. 누구든 케마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은 황홀해했고, 그녀 자신도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도 일찍부터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는 있었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육체적 아름다움의 무상함을 지적하는 법문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녀는 자신도 비난을 들을까봐 결코 부처님을 뵈러 가지 않았다.

그러나 빔비사라왕이 지어서 보시한 죽림정사의 경치가 뛰어남을 묘사한 시(왕이 왕비가 듣게끔 일부러 짓게 함)를 들은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시녀들을 데리고 울창한 대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죽림정사로 산책을 나섰다. 죽림정사 숲속을 거닐던 케마는, 때마침 설법당 쪽에서 들려오는 맑고 낭랑한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그쪽으로 향했다. 법문하시던 부처님께서는 케마가 설법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신통력으로 열여섯 살 가량의 눈부시게 아리따운 소녀의 형상을 만드셔서 그 소녀에게 부채질을 하도록 하셨다. 설법당 뒤쪽에서 숨을 죽이고 설법을 듣던 케마는 갑자기 나타난 아리따운 소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숨이 멎을 것 같았으며, 한 순간도 그녀의 고운 자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 나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저 천녀처럼 예쁜 소녀에 비할 수조차 없구나!”

한참 넋을 놓고 소녀를 쳐다보던 케마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아름답던 소녀의 싱싱한 젊음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소녀의 몸은 한 순간에 팔십 먹은 노인의 몸으로 변했고, 마침내 그 노인은 법당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어서 그녀는 그 늙은 여인이 괴롭게 숨을 거두고 가죽만 남은 몸뚱이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서, 마지막엔 백골만 남게 되는 광경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케마에게, 자신의 몸뚱이도 그 여인처럼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인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알게 된 그녀는, 이 육체와 거기에 집착하는 삶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케마에게 다음 게송을 일러 주셨다.

“몸의 혐오스러움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상대상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수행을 하여라. 몸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도록 몸의 서른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마음챙김(sati)하여라……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시하여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지각을 계발하여라. 자아라는 개념을 버려라. 그러면 그대 안에서 타오르는 열한 개의 불길을 가라앉히고 열반에 도달하리라.”

법문을 듣고 케마의 마음이 열린 것을 아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마하니다나경(케마가 전생에 사마니 공주였을 때 가섭불(迦葉佛)로부터 듣고 암송한 경)>을 설하셨다. 그녀는 그 경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증득한 성자가 되었다.

케마는 곧 남편인 빔비사라왕의 승낙을 얻어 출가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가 비구니가 된 지 15일째 되는 날, 포살 중에 그녀 앞에 있는 램프의 불꽃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주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리한 깨달음이 생겼다. 불꽃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성에 대한 통찰지(洞察智)를,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즉 그녀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오온)에 기울이자, 그녀는 네 가지 분별지(分別智)와 육신통과 함께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러한 케마 비구니의 삶과 수행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부처님은 승단의 최대 수호자이자 후원자인 빔비사라왕의 부인을 배려한 자비로운 방편 즉, 백골관(白骨觀)을 중심으로 한 위빠사나로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을 요달하도록 했다. 그녀의 완전한 깨달음이 단기간에 이뤄진 점을 볼 때, 평범한 재가자도 불법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간절한 발심, 꾸준한 정진만 있다면 금생에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송찬우교수 ‘금강경오가해 강좌’**=중앙승가대 송찬우 교수가 이끄는 동현학림이 송찬우 교수의 ‘금강경오가해 강좌’를 마련한다. 강좌는 3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주동 세종빌딩 408호에서 열린다.(02)732-3038

●**니르바나 정진 산림대법회**=남양주 봉선사가 3월 15일 오후 1시 불기 2552년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를 입재한다. 청풍루에서 오후 1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발심과 수행을 선도하며’를 주제로 열린다. 회향은 22일 오전 9시 30분 포살법회로 이루어진다.(031)527-5974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2008년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월 16~23일 첫 수행을 시작한 해남 미황사는 3월 15~22일 두 번째 참사람의 향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금강, 일수, 법인 스님이 교수사로 나서 참선을 지도한다. 2008 참사람의 향기 프로그램은 4월 19~26일, 5월 17~24일, 7월 12~19일, 8월 16~23일, 9월 20~27일, 11월 15~22일, 12월 20~27일 열린다.(061)533-3521

●**불광사 불광교육원 3월 강좌**=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이 3월 강좌를 개강한다. 법인 스님과 함께 하는 〈금강경〉 강의는 3월 20일, 변상섭씨(동국대 선학과 석사)의 〈능엄경〉 강의은 19일, 김영진씨(동국대 강사)의 반야 중관사상은 10일, 목경찬씨(동국대 강사)의 유식삼십송 읽기3은 17일 각각 개강한다.(02)417-2551

●**도선사 실달학원 제15기 기본교육생 모집**=서울 도선사가 초심불자들의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도선불교 실달학원은 제15기 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 도선불교 실달학원은 부처님의 생애, 불교문화 및 문화재, 불교기본교리 및 사찰 예절, 발우공양 등을 매주 두 차례 강의한다. 수련회, 수계식, 특강 등 특별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5기 모집은 2월말까지이며 3월 개강 예정이다.(02)993-3161

●**동국대 사회교육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정통 꽃꽂이반’은 3월 6일 오후 2시 개강한다. 초급반과 중급반 각 10명씩 정원이다. ‘화훼기능사 자격시험 대비반’도 6일 오후 4시 개강한다. 정원 15명.(02)2260-372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新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오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선가귀감 3월 법회
일시 : 3월 2일(日) 오전 11시 장소 : 서울 도봉 선원
광주선원
선문염송 / 3월 16일 오후 2시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부산선원
반야심경 / 3월 23일 오후 3시
051-545-2460 (매월 넷째 일요일)
GS주유소
도봉산 입구
도봉 선원
도봉산 갈비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한신아파트 단지
도봉선원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켓
※황토흙벽돌, 내화벽돌, 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원목목재기둥: 100×100×400
원목목재도리: 120×50
원목목재중간대: 70×50
특허 브라켓

◆등평상 : 2100×1800×750(mm)
가격 : 450,000원 | 할인가 : 350,000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마루판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곽영호
전품목 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교감으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며

강사 : 김남조(숙명여대 명예교수 · 시인)
주최 : 전국여교수연합회
일시 : 2008년 2월 1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2008 한국 석학들로부터 듣는 새해소망
"전문직 여성들에게 바라는 소망"

Soft Power. 이 시대의 여성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신혜경)는 여교수들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창립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여성전문인의 사회적 책임과 지도력이 요구되는 요즈음. 김남조 시인은 교육자로서의 학문적 정진은 물론 사회의 어두운 곳과 약한 자를 위한 여성으로서의 역할 발휘를 제안한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우선 저는 석학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바로 석학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려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사고, 새로운 논리로 선진적인 여러 가지를 꿰뚫어 보는 분들이신데요. 세월에 대한 이야기, 아직 읽지 않은 미래의 책 한 페이지를 엿보는 호기심으로 제 이야기를 청한 것 같습니다.

관상을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여러사람들이 신뢰감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 비결을 알아보니 첫마디가, "당신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모를 고독을 안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손님은 잘 맞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고독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반론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발레리(PaulVallery)는 말 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관찰해 보니 고독이 조금 모자라, 더 깊은 고독을 지닐 방법을 고민하다가 반려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농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고독이란 말이 좋아지면서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고독을 알고 고독의 관문을 지나면서 성숙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아픈 마음에 가려진 음울한 울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을 도와주는 효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일전 숭례문을 지나는데, 상여갈 때 나는 소리를 내며 장례식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황량한 풍경 속에 여러 사람이 함께 비통하고 참회를 섞어 오열하는 장면은 말할 수 없이 숙연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은 여러 사람이 함께 울음을 터트리는 장소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을 기울임은 필연 인간의 진실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 나온 이들은 그들만 아는 이해를 통해 친구와 동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쁘다고 여겨지는 통념에 있어서 그것의 한켠에는 빛을 갖고 가치를 수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지난 수백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문학하는 이들은 사실 낡은 말들 오래된 생각의 낙엽들을 뒤집어 그 밑의 따뜻한 지열을 되풀이 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보다 앞서 무엇을 찾아냄이 아닙니다. 문학가란 사람의 마음을 통과했던 온기를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는 행복을 원하고, 지혜로운 이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행복을 탐냅니다. 그 행복 안에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점차 그 행복에서 물러서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공통 이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고 가치보다 행복의 대열에 서고자하는 본심이더라도, 어느 때에 둘 중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울면서라도 가치의 대열에 서는 것이 교육 받은 우리들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노력하려 하고 극기하려 해야합니다.

> 전체를 생각하고 타당성과 가치를 봐야
> 말 안에서 개발·신선한 화제로 행복 누려

삶이란 세계와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내고 무한정 먼 거리에 다가가는 사이에 많은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 점차 자기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체 안에서 편안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침내 삶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육체가 영혼 안에 포함된다'는 맥락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시 한 구절을 들겠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는 천의 장미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 한 송이의 장미와 천의 장미가 같을 수 없는데 같다"고 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것, 가득한 절대 가치입니다. 여기서 천이나 만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합니다. 네 살 된 아이가 할머니 핸드폰을 만지면서 금방 할머니의 사진을 찍습니다. 뭔가 너무 정신없고, 우리는 대행 업자에게 많은 부분을 위탁하면서 속도상승의 시대에 1초를 아끼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 100년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한 쪽에 목소리가 있어 본질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야말로 그 본질에 대한 소리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본질에는 천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터득합니다. 부모공경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미도 그러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어느날 아침 동산을 올랐습니다. 눈 먼 한 소녀가 연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엮어 걸어주었습니다. 시인이 말하길 "두 눈에 눈물이 샘솟듯 넘쳐났네. 너는 꽃과 매한가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 눈 감아 모르고 있구나." 눈 먼 소녀가 자신의 어여쁨을 스스로 못 보듯이, 꽃이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눈 감은 진실의 아름다움이 이 시인에게는 감탄을 넘어 묵언의 눈물을 샘솟게 한 것입니다.

시인 파블로네루다(PabloNeruda)의 시 '토마토에게 바치는 찬송가'는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채소 혹은 과일 아니면 그 언저리로 여기는 토마토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 모아 찬송합니다. 보편화 되고 오랜 세월 방치됐던 가치를 어떤 한 사람이 지적합니다. 관습 속에 잠들어 있던 귀중함을 찾아낸 것입니다. '식칼이 가슴을 쪼개면 압도해 오는 붉은 심장의 향기'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물러서고 내려앉으며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위태롭게 달려가는 발걸음에 대한 쉼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래도 좋은가'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내 죽음의 시기를 보고서에 의해 내다볼 수 있는 시대,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 속에서 개발된 시대, 이런 현실은 '하루아침 꽃동산에 눈 먼 소녀를 만났네. 그는 두 손으로 가녀린 열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내 목에 걸어주었네. 그 순간 나는 두 눈에 샘솟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네. 소녀여, 너는 꽃과 매한가지, 스스로 너의 어여쁨을 눈 감아 아득히 모르고 있나니.' 우리 인간은 사실 상당히 영광된 존재입니다.

저는 어느덧 노년기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과 이제 겨우 삶의 낯설음이 가시려 하는데 내 생애가 저물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낯설어서, 언제라도 적응이 안됐는데, 이제야 삶이 맛 들여지고 친숙해졌는데, 이제부터 살줄 알 것 같은데 벌써 생은 저물어 갑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든 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답한다면 "참 좋습니다. 노년을 위해 준비된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걸핏하면 잠이 안 오고, 조금만 상처 입으면 면도날 끝으로 그은 듯 실오라기 같은 유혈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말도 적어지면서 바라보는 쪽으로 침착합니다. 이제 겨우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축복도 하게 됩니다.

석학으로서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돼야하는가. 우선 전체를 생각하는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타당성과 가치를 봅시다. 그리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마음을 기울여 서로의 가슴과 가슴의 교감을 확산합시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화술의 선수란 말 안에서 개발을 하고 언제나 풋풋한 화제로 말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맹인들의 오케스트라 관련기사가 났더군요. 고도의 집중력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신비한 어떤 번역의 기술이 있어서 우리를 감동케 할까요. 하나의 보물과 같은 작은 우주를 선물 받은 인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스님에 한함)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각 3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2題 이색전시

사찰 등 문화재 전문작가

故 김대벽 추모전시회

3월 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서 50여점 선 봬

사찰 문화재와 전통 한옥만 40여 년 동안 카메라 앵글에 담아온 사진작가 김대벽(1929~2006). 그를 추모하는 사진전 '한옥의 향기'가 3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씨와 평소 단짝이던 신영훈 한옥문화원장과 사진작가 주명덕씨가 함께 기획했다. 서울의 종묘,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충남 논산의 윤증고택, 충남 예산의 추사 김정희 고택을 비롯해 전북 부안 내소사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구례 '운조루'

이번 사진들은 그가 남긴 방대한 사진자료 가운데 추려낸 일부분. 그의 전문 분야는 한국의 문화재였다. 그의 발길은 전국에 흩어진 바위, 사찰, 서원, 고궁에 이르고 90년대부터는 해외로 진출해 중국, 일본, 티베트, 네팔, 인도 등의 문화재들을 찍었다.

이번 전시에 가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장엄한 공간을 구현한 서울의 종묘, 경내 들어가는 입구를 찍은 내소사 등 우리 전통 고건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곳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고인이 사진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61년 옛 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청의 전신)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그는 평소 "좋은 사진은 문화재에 대한 감동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고건축물의 촬영 각도를 물색하기 위해 주변건물을 헤매다 비바람 때문에 촬영 기회를 놓쳐 버린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열정의 흔적은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02)733-8945

김주일 기자

구슬이 꽃과 나비가 되어

구슬공예작품 300여 점 선보여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다' 그 서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국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2월 26~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찻집 '나무' 로비에서 여는 '김인숙 구슬공예 특별전'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장 2월 26~27일 전시
수익금 인도 여성수행자 승원 후원금으로



이번 전시는 김원장이 영국출신 티베트 여성수행자인 텐진빠모 스님이 설립한 인도 여성수행자 승원 동규가찰링을 후원하고 불교여성개발원 목적사업예산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김 원장은 이번 전시에서 그 동안 보여줬던 작품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슬 300여 점을 선보인다. 김 원장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인 준골동품과 비취 · 산호 · 진주 등을 이용해 제작한 한국의 멋, 불교적 세계관이 깃든 브로치 · 목걸이 · 귀걸이 등의 장신구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회 수익금을 전통문화발전기금으로 기부해온 천한봉 명장의 딸인 천경희 도예가의 작품 10여점과 정신지체 직업수련원인 천마재활원 '천마 도예의 숲' 황소인 원장을 비롯한 근로장애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 30여점도 보너스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불교계 여성들을 위해 뜻 있는 전시회를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불교여성개발원을 통해 여성불자들이 세계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성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올 4월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텍사스와 뉴욕에서도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02)722-2101

김강진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28 마떡



효능 10가지로 옛부터 약용으로 쓰여
원기 약한 사람 오래복용하면 좋아

산약(山藥)으로도 불리는 마는 어지러움과 두통, 진정, 체력보강, 담 제거 등 한방에서 알려진 효능만도 1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예로부터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마는 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하는데 전국적으로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구워서도 먹지만 날 것을 가늘게 썰거나 갈아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쪄 말려 가루를 내 먹기도 합니다.

마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즙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만 갈아먹기보다 사과, 당근 등을 함께 넣어 먹으면 먹기가 수월합니다.

마는 자양강장에 특별한 효험이 있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당뇨병, 기침, 폐질환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강해 원기가 쇠약한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식품으로 옛날 "마 장국(메주에 마즙을 넣어 만든 것)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마에 함유된 사포닌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 혈압을 내리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양적 측면에서 마는 녹말과 당분이 많고 비타민 B, B2, C, 사포닌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의 점액질에는 소화효소와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무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람의 위점막에서도 분비되며 이것이 결핍되면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를 섭취함으로서 위궤양 예방 치료와 소화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마는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마를 먹으면 마의 여러 성분으로 췌장이 강해지고 마의 칼륨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영양분이 몸의 각 세포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강해지고 동시에 당뇨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떡 재료 : 마, 잣, 검은깨, 벌꿀

만드는 법

① 마는 칼끝으로 살살 긁어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후 시루에 푹 무르게 찐다.
② 잣은 곱게 다지고 검은깨는 씻어서 살짝 볶아둔다.
③ 푹 무르게 찐 마를 도톰하고 둥글게 썬다.
④ 둥글게 썬 마에 벌꿀을 바른 다음 잣가루와 검은깨를 고물로 무쳐낸다.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공연

3월 6 · 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서

한국인이라면 흥겨운 우리 가락 사물놀이를 TV나 공연장에서 한 번쯤 접해 봤을 것이다. 이 사물놀이는 농악에서 연유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물놀이라는 음악패가 있던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8년 4명의 놀이패 출신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사라져가는 우리 가락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재창조한 퓨전음악이다.

이러한 사물놀이는 농악을 원형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전국을 돌며 지방 특색의 가락을 정리하는 한편 무속가락 또한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음악적 소재를 모두 취합하여 만든 음악이었다.



당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패를 결성한 이들은 김덕수(56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교수), 이광수(56 · 대불대 전통연희학과장), 최종실(54 · 중앙대 교수), 그리고 1986년 작고한 김용배다. 이들이 사물놀이 탄생 30주년을 맞아 다시 뭉쳤다. 단 김용배씨를 대신해 남기문(50 · 국립국악원 민속단 지도위원)씨가 참여한다.

30년전 사물놀이 음악을 만들어냈던 4명의 젊은 국악인들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이지만, 그들의 음악성은 어느 젊은 음악가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변모했다. 공연은 3월 6 · 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공연'을 한다

김덕수 교수는 "숨쉬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작은 공간에서 우리 음악 재건 운동이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세계 문화 시장에서 우리의 장단이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신명을 한층 더 승격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며 이번 공연은 그것의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77-5266

김주일 기자

건축가 김석환 드로잉전

2월 29일까지 영풍문고서

건축가 김석환이 사찰, 서원, 고궁 등 전통 건축물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먹이나 펜, 연필로 그린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국전통건축 드로잉전'이 2월 29일까지 영풍문고 종로본점내 북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석환은 자신의 드로잉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한게 아니라 대상과 교감한 것을 기록하는 행위로, 의미있게 여겨진 건축적인 감각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011)9929-3360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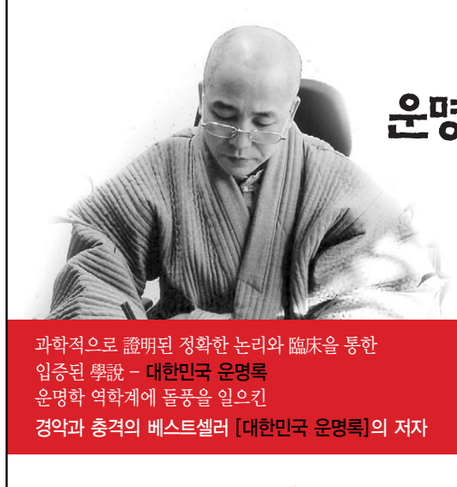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국난 극복 앞장 불교 명예 드높인 고승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㉚

14대 선조 - 목릉<2>

선조 1552-1608(57세)
재위 1567.7(16세)-1608.2(57세)

선조 대는 조선조는 물론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최대 난세였다. 난세를 관통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민초들은 물론 옥좌에 앉은 임금도 심신이 괴롭다. 그러나 난세에는, 한편으로 영웅이 만들어진다. 역사의 발전 과정은 '도전과 응전'이란 토인비의 가설은 정확하다. 임진왜란, 조일전쟁, 7년 전쟁 등으로 불리는 난세에 숱한 영웅이 탄생했다. 성웅 이순신, 홍의장군 곽재우, 서애 유성룡, 율곡 이이, 불멸의 시인 송강 정철 등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간 영웅들이다.

불교계 역시 난세는 기회였다. 음지에서 명맥을 이어가던 불법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함성을 지를 수 있었다. 쇠락한 불교와 승려의 명예가 전란을 통해 우뚝 설 수 있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치 않고, 그간의 능멸을 따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난 고승들의 활약 때문이다.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재조명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우선 몇몇 당대 고승의 활동상을 살펴본다.


서산 대사.


사명 대사.

서산 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휴정은 선조의 부름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의 궐기를 호소했다. 자신은 순안 법흥사에서 문도 1500명으로 승군을 조직했으며,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선조가 팔도십육종도총섭에 책봉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자인 유정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승군을 이끌고 나가 호위한 후 승군장의 직에서 물러나 다시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이때 선조는 정2품 당상관의 직위를 내렸다.

당시 불교는 조선왕조의 계속된 억불정책으로 사회경제적인 토대를 박탈당했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 사회체제가 재편되고 불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불교계는 산간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휴정은 이러한 때에 불교교단의 존립과 국가 전체의 안위를 의식하고 이에 대처했다.

사명 대사(四溟大師) 유정(惟政), 뛰어난 용맹과 외교력으로 나라를 구하다

유정은 오대산 영감사에 머무를 때, 정여립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아 강릉부의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강릉의 유생들이 무죄를 항소하여 석방되었다. 이듬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때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했다. 그 곳에서 의승대장이 되어 의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했다.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의 혈전에


울산성 전투도.

서산 대사 임진왜란 때 승군 궐기·전투 참여 등 맹활약
일본 사신으로 파견된 사명 대사는 뛰어난 외교력 발휘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 해 3월 서울 근교의 삼각산 노원평 및 우관동 전투에서도 크게 전공을 세웠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포상하여 선교양종판사를 제수했다. 그 뒤 전후 네 차례에 걸쳐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 가토와 회담을 가졌다. 제1차 회담은 1594년 4월 13~16일 울산 서생포 일본 본진에서 열렸다. 일본은 '강화5조약'이라 하여 무례한 요구를 해왔다.

그 내용은 ①천자와 결혼할 것 ②조선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③전과 같이 교린할 것 ④왕자 1명을 일본에 보내어 영주하게 할 것 ⑤조선의 대신 · 대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등이었다. 유정은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모두 물리쳤다.

또한 제2차 회담(1594년 7월 12~16일) · 제3차 회담(1594년 12월 23일) · 제4차 회담(1597년 3월 18일)에도 대표로 나아가 저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적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2차의 적진 담판을 마치고 돌아와 선조에게 정황을 보고하는 <토적보민사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은 문장이 웅려하고 논조가 정연하다. 백성을 보호하고 적을 토벌하는 이론과 실천방도를 제시했다.

1595년에는 장편의 <을미상소>를 올렸는데, 전쟁에 대비하는 역사적 안목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혜안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목민관을 가려 뽑아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소탕할 것, 일시적인 강화로 국가백년의 대계를 망각하지 말고 국세회복에 만반의 방어책을 세울 것 등을 주장했다.

유정은 국방에 깊은 관심을 보여 산성수축을 착안했으며, 산성개축에 힘을 기울였다. 그가 수축한 산성은 팔공산성 · 금오산성 · 용기산성 · 악견산성 · 이숭산성 · 부산성 및 남한산성 등이다. 선조는 유정에게 환속하여 장수가 되길 간곡히 청하기도 했다. 군기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해인사 부근의 야로에서 활촉 등의 무기를 만들었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약제조법과 조총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다. 1594년 의령에 주둔했을 때는 군량을 모으기 위하여 각 사찰의 전답에 봄보리를 심도록 했고, 산성 주위를 개간하여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군량미 4000여 석을 비축했다. 선조는 그의 공로를 크게 인정하여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내렸다.

1604년 2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가서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되었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고, 전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1605년 4월에 귀국했다. 그 해 10월 묘향산으로 들어가 비로소 휴정의 영전에 참배했다.

선수 대사(善修大師) 부휴(浮休), 휴정의 격외선을 계승한 덕유산 호랑이

부휴는 덕유산 초암에 은신하고 있던 중 왜적 수십 명을 만났다. 뒷짐을 지고 선 그의 앞에서 왜적이 칼날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그가 태연부동하게 있었으므로 왜적들이 크게 놀라 절한 뒤 물러갔다. 이후 가야산 해인사에 머무를 때 명나라 장수 이종성이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 얼마 뒤 무주 구천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하루는 <원각경>을 외우고 있을 때 큰 뱀이 나타나서 계단 아래에 누워 있었다. 경을 다 외운 다음 뱀에게 가서 한 발로 그 꼬리를 밟자 뱀이 머리를 들고 물러났다.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절하고는 "화상의 설법의 힘을 입어 이제 고통의 몸을 여의었습니다"라고 했다.

광해군 때는 두류산에 있었는데 어떤 미친 승려가 무고하여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를 계기로 광해군이 내전으로 초빙, 설법을 청해 들었다. 스님의 설법을 들은 광해군은 크게 기뻐하며 가사와 장삼, 염주 등을 하사했다. 또 봉인사에 재를 설하여 그를 증명으로 삼았다.

기허당 영규(騎虛堂 靈圭), 의승군의 선봉에 서서 순국하다

영규는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순국한 승군장이다. 계룡산 갑사에 들어가 출가하고, 뒤에 휴정의 문하에서 법을 깨우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충남 공주 청련암에 있으면서 무예 익히기를 즐겼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이기지 못하여 3일 동안을 통곡했다. 이후 분연히 일어나 의승을 모집하여 스스로 승장이 되었다.

의승 수백 명을 규합하여 관군과 함께 청주성의 왜적을 쳤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그가 이끄는 승병은 대창과 낫으로 분전하여 마침내 청주성을 수복했다. 이어 의병장 조헌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는 관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하여 이를 늦추자고 했다. 그러나 조헌이 듣지 않자 그는 조헌을 혼자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금산전투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조헌이 이끄는 의병과 영규가 거느린 승군은 1592년 8월 18일 금산전투에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 왜군의 호남침공을 저지했다.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는 청주성 승전 소식을 듣고, 영규에게 당상의 벼슬과 옷을 하사했다. 그러나 영규는 임금이 내린 포상물이 도착하기 전에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기허당은 임진왜란을 맞아 처음으로 의승을 일으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승군이 궐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서울,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 · 부산)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불교학과 (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 · 부산)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 · 부산)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 주간 - 오후 2시 ~ 4시 40분까지 ● 야간 - 오후 7시 -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 사 과 정 :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자. 포교원,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 2월 23일(토) 오후 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 2월 24일(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특 전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학과목소개
● 대학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명상학과 :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의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학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초기불전강독. 중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및 이해. 청소년상담및 실습
● 법사과정
◇불공의식. 장례의식. 사찰습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종무행정론 외

특 전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02)707-1072, 706-1571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583-7811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Daewon never sleeps ◉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2008년 봄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2008년도를 맞이하여 행복도량 대원정사에서는 불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고품격 문화강좌로 회원님 한분 한분께 다가가는 최고의 서비스로 새로운 문화교양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도량 대원정사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드리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안내
▶ 개강 : 3월 초 ▶ 종강 : 5월 말 ▶ 월회비 : 3만원 ▶ 장소 : 대원정사 불교문화회관1층 ▶ 문의 : (02)754-1613
※ 대원정사 문화교실회원(월회비 3만원)이 되시면 모든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초하루기도 시 무료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 전	오 후	저 녁
월 요 일	불교경전강의:아함경(디가니까야) · 시간 : 10시 30분	사찰요리(선재스님) : 오후 2시 30분 와인강좌(헬렌 김) : 3시 30분	
화 요 일		커피강좌(권장하교수) 오후2시30분 다도(최미영강사) : 2시 꽃꽂이(강경희강사) : 3시 30분	
수 요 일	문화답사 · 박물관기행 (최광자): 매월 첫째주 · 불교문화답사(지장스님) : 매월 둘째, 셋째주	떡, 궁중요리,푸드스타일, 어린이 음식 강좌 · 오후 2시 · 강사 : 이희경강사	
목 요 일	차명상(지장스님):오전10시 30분 요가(김경희강사):11시 30분	노래연습(합창) : 오후 1시 생활명상/차명상 : 오후 2시30분/지장스님분	생활명상/차명상(지장스님) 오후 7시 30분
금 요 일		아로마테라피(박준아 강사) : 오후 2시 경락/지압(박지혜강사) : 오후 3시 30분	
토 요 일		생활명상 집중수련 : 오후 2시 부터 · 매월 3주 (월1회)	

❖대원정사 문화교양 교실 강사진 소개
· 사찰요리 : 선재스님 / 선재사찰요리연구원장
· 커 피 : 권장하 교수
· 와 인 : 헬렌 김(와인전문회사 에스텔라 대표)
· 다 도 : 최미영 강사
· 꽃꽂이 : 강경희 강사
· 문화답사 : 박물관기행(최광자), 차문화, 불교문화답사(지장스님)
· 요가 : 김경희(불교방송다보원 요가강사)
· 생활명상 / 차명상 : 지장스님 (대원정사 주지, 초의차명상 원장)
· 아로마테라피 : 박준아 (경기대 민간요법 석사과정, 아로마테라피 샵 운영)
· 경락의 신비 : 박지혜 (중의대 졸업,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석사과정)
· 떡,궁중요리,푸드스타일,어린이 음식강좌 : 이희경 강사 (궁중요리사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 2008년 봄 웰빙 일요특강
▶ 장소 : 후암동 대원정사 1층 큰법당 ▶ 시간 : 일요일 오전 11시

순 서	일 자	강 좌 내 용	강 사
1차	3월 9일	사찰요리	선재스님(선재사찰요리 연구원장)
2차	3월 16일	불교음식에 깃든 정신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교수)
3차	3월 23일	우리문화의 얼과 정신(문화답사)	이세용(우리문화 해설가)
4차	3월 30일	자비명상	묘운스님(행복명상원장)
5차	4월 20일	홍차의 효능과 맛있게 마시는 법	정영숙 교수(부산여대교수)
6차	4월 27일	생명과 환경 윤리	이재돈 신부(카톨릭대학 교수)
7차	5월 4일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비결	향적원사장(전통짱아치 연구원장)

행복도량 ◉ 대원정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02)754-1613 / 754-9171
팩스 (02)771-6796
www.idaewon.or.kr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정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명리.육효 수강생모집
명리 .육효란
단 하루를 배우셔도
올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용 덕 사
문의 051)506-403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기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나비춤,
사찰행사,49재,점안식, 전통무용 (살풀이,지전춤,
극락무),찬불가 가야금,학인모집,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제 1기생 모집(6개월,1년과정)
2008년 3월 8일 입학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스님이 타시던
갤로퍼(상태 A급)
투벤 2000년(11월)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액은 3백 9십만원
010-8850-294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영천 신녕 개원사 총림
053)981-0995
016-400-0664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3-7200

출가에 뜻을 둔
여(女)행자
인연을 찾습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구근교
017)803-0202

수행중 요양이
필요한 비구니
선객 2분모십니다
▷1,2층 토굴제공
서부경남 암자, 녹차밭 200평
011-590-9794

큰 법력으로 정말 신심나며
제자와 연가가 동시에 해탈하는
한글, 한문, 천도재, 49재 및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많이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장 합장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83-5639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깊은 산중 전기도 없는
작은 암자 명상 기도처에
장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
님 2분만 모십니다
▷경남
011-9323-4478

기도스님 모십니다
055)261-7505
종무원,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남창원 길상사)
055)289-7282~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9469-66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748-3004

천일기도 하면서
지내실 비구·비구니
스님과 처사, 행자님,
법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 영동지방
010-8879-84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사찰 공양주 구함 1명
(교포사절)
여사무장 구함 1명
(경기도 용인)
031)335-257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미만)
월보시금 80만원
▷울산 백련암
052)221-0092
011-9318-3230

비구,비구니
부전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도
모십니다
010-8819-8988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722-3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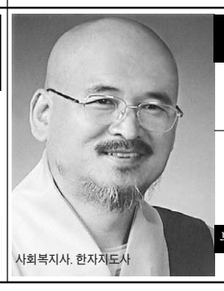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광역시
052)243-3881

비구승입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출가를 원하는 여행자 모집)
▷서울
010-4193-2324

역 학 공 부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 정 :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 용 :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질,난치병),
무통무혈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라틱
■ 개 강 : 2008. 3월 3일(월요일반) 14시
3월 5일(수요일반) 14시
3월 8일(직장인반) 14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
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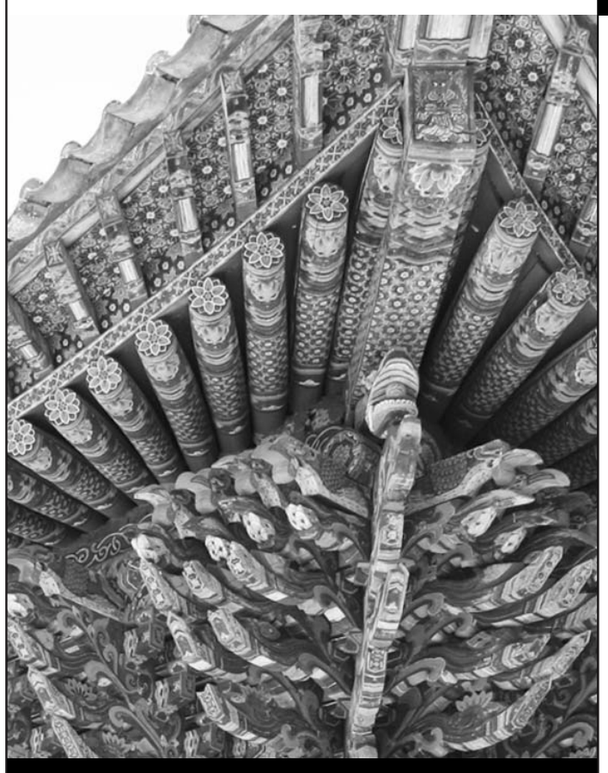
동국대사회교육원 육임학 강좌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 모두를 통찰케하는 六壬學!
이론과 임상사례를 병행하는 생동감 넘치는 강의!
1.담당교수 이우산, 고려육임학회장, 육임입문 저자
2.강좌특징 국가와 기업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의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피흉추길을, 일반인에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슬기를 통찰케 한다.
명리학이 인생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면
육임학은 한 가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길흉을 결론짓는 현미경이다.
또한 육임학은 출생 년월일시와 무관하게,
묻는 즉석에서 즉문즉답하는 돈오학(頓悟學)으로,
음양오행학의 꽃이요 열매이다.
3.교육특전 동국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4.개강일시 초급반 : 3월 4일 오후 2시
중급반 : 3월 4일 오후 7시
5.교육기간 각 강좌 1학기 15주 과정
(2008. 3. 4 ~ 6. 10)
6.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7.접수기간 2008. 2. 1 ~ 2. 29
접수안내 02)2260-3728
8.강좌내용문의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 昊 합장
한자 속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실전 사주 명리학
제2기 수강생 모집
① 인원 : ○○명
② 교육개강일자 :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③ 교육기간 : 6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5시
④ 신청방법 :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문과
1기수강생들의 교육후기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의 실전 사주명리학 강의는 이제까지 어느 고서,
어느 곳에서도 익힐 수 없었던 실전 지식 체계로서 고급
편부터는 철저히 팔자술 실전의 첨단기법을 다루고 있으
며 그 중 물상의 결합, 나들이, 허귀, 허합자, 공협, 도충,
오운육기, 공망비약 등의 비법과 형충회합 스킬에 대한
고도의 실기묘법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풀지 못한 천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누구나 더 이상의
틈이 없이 적중시키는 필살기를 다듬게 되어, 실제상황에
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족집게추론을 하게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회장 혜천 법사 합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전화 031)768-8414~6 / 팩스 031)768-841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충주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청 주변
- 평수 : 40평. 법당, 방2, 주방
- 주차시설편리
-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
  시설비 포함

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자모집

포교원 안내

- 위치 : 구미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40평, 요사채 25평,
  총 65평, 방3개, 거실,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금 1500만원
- 꼭하실분 가격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매

010-7511-847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4호선
  상계역 부근
- 평수 : 2층 34평(법당.주지실)
  3층에 방3,주방,욕실
- 삼존불,신중단,영가단,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시설비 절충

02)952-8131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8877-7913

사 찰 전 세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포교당 안내

- 위치 : 구리시내 상가주택
- 4층 건물중 2층 단독
  평수 : 30평. 삼존불
- 법회시설 일체 완비
  상담실, 작은주방
- 보증금 500만원, 월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4-50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지역 등산로길
- 가액 : 7천만원
-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6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3천만원(절충가능)

055)337-8600
011-834-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평수 : 70평
- 2층 건물중 2층(옥상 사용가)
- 법당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상식선에 절충가)

010-3120-10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 평수 : 100평, 밭 200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등산로 입구
- 보증금(권리금 합)2500만원,
  월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스님 종단일로 급 안내함

010-3900-1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법당 집기일체 6500만원
  몸만오시면 됨
- 스님,보살님,함께 계실분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7340-8765
054)733-7225
010-7484-6885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3억원(분할양도가능)

010-7109-6074
054)293-2074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당고개역 10분거리)
- 총평수 : 807평(전,답)
- 건물 : 조립식 47평,임법당,방3개
  욕실, 화장실(실내 2개)
- 하우스 2동, 50평, 15평
- 가액 : 5억6천(내방 후 절충가능)

※오솔길 100m 들어옴

011-9110-7659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토 굴 안 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대출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정문앞)
- 3층 종무실 27평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4층 법당 27평
- 3불, 홍탱화, 흑탱화
  옥탑 16평 산신각,
- 스님침실, 화장실, 주방
- 가액 : 8천만원(절충가능)

019-424-4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4층 건물중 3층
- 35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700만원(가격절충)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0-9469-2325

5평 영가마을 협업체 모집

인등납골 공양
5평에 가족납골묘 12기설치

- 인등납골:(50만원).
- 개별 수목장:(200만원)
- 집안,화단및옥상,베란다 안치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협업체 접수 영가마을 문의

041)541-2202
041)544-444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망미동 대로변
  (전철 2분)
- 2층 40평
- 법당, 주방(大), 방3, 욕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상 안내함

011-9342-979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 종교부지 : 250평
- 법당 : 22평(현재 불사중)
- 요사채 : 32평(현대식으로 완성)
- 기타 : 창고, 산신각
  공사금 부족으로 급히
  양도하고자함
- 가액 : 1억3천만원

010-3553-7897

포교원 안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0-2877-7746

토굴이나 암자 하실분

- 위치 : 전남 해남군
- 대지 350평, 주택 31평
- 가액 : 4300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631-2954

사 찰 전 세

- 위치 : 노원구 상계4동
  (당고개역에서 3분거리)
- 특징 : 요사채 50평,
  작은법당 1개
- 가액 : 전세 9천만원
  (상담 후 절충가능)

02)2273-8245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둔촌동
- 법당 : 약30평. 공양간1, 방1
- 보증금 25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061-2213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건물 : 법당 한옥 27평,
  요사 22평
- 전세 : 2200만원
- 시설 및 주차장완비
  약수유명

054)672-1334
010-8863-4800

기도처 안내

- 위치 : 주왕산 국립공원
- 평수: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00 여평
- 건물: 대웅전 12평(목조),
  요사 30여평, 산신각 1.5여평
  전기전화없음.
- 수행과 신심으로 사찰을
  외호하실분

010-7109-32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평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일반주택 독채
- 법당 1, 방 3
- 시설깨끗하고 완벽함
- 보증금 3백만원, 월2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51)632-8424
011-9528-01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대지, 논, 밭 2700평
  (건물 120평 1, 2층 포함)
- 절터 최적지
- 가액 : 4억원

011-810-7018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25억원(상담후절충가)

010-5290-3709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시내중심가
- 평수 : 46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1, 방3, 사무실, 주방, 세면실2
  관음도량, 150 원불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1500만원

011-258-114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정릉 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시립미술관 2번출구 앞)
- 평수 : 66평 (법당,방,욕실,공양간,창고)
  34평(옥상,잔디,야외법회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 500만원
- 특징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6353-4299
010-9288-41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산마을 125-1번지
- 법당 : 건평 60평(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 슬라브 건물 30평
-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
- 총 건평 130평, 대지 605평
- 가액 : 2억8천만원(급 안내)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 3층 45평. 대로변 요지
- 삼존불, 약사, 천수천안, 각단 탱화, 소불 108불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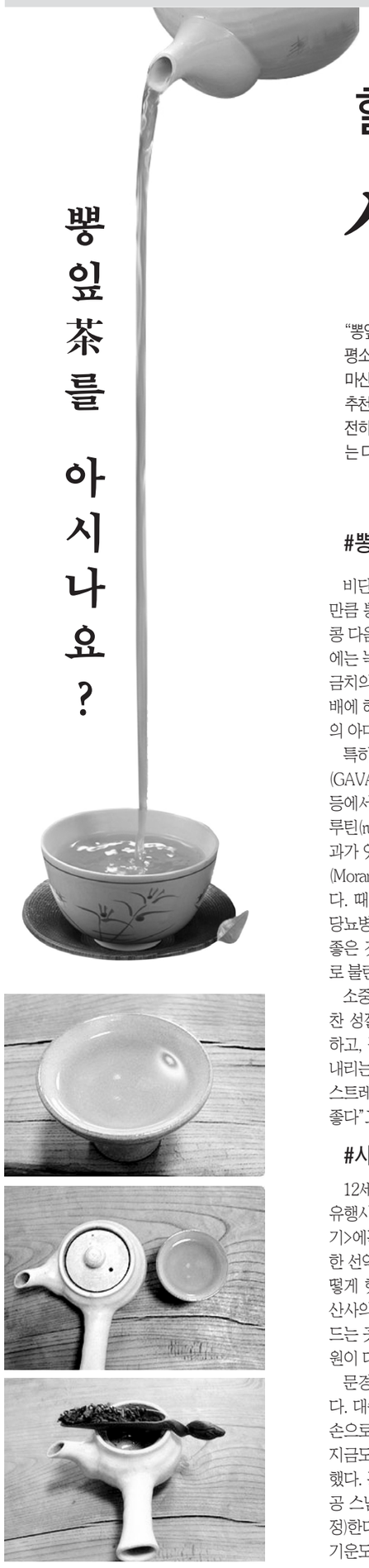
051)322-2727
010-3007-52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불자정보 계속



뽕잎茶를 아시나요?

혈관 강화·혈당 저하 성분 풍부

성인병 예방 효과 만점

"뽕잎차를 마신 후 건강이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경남 합천 유잠산 기슭에 자리한 참선마을 금강선원 주지 초중 스님은 뽕잎차 예찬론자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스님은 뽕잎이 몸에 좋다는 소리에 유잠산 주위에 가득한 야생뽕나무로 손수 뽕잎차를 만들어 마셨다고 한다. "뽕잎차를 마신 후 혈압 등이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흔한 고뿔도 한번 걸린 적 없다"는 스님은 가족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건강 약차로 뽕잎차를 적극 추천했다. 입춘이 지났어도 공기가 여전히 차다. 얼마 전 기상청에서는 2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봄꽃 구경도 늦는다고 했다. 찬바람이 여전하고 일교차는 큰 간절기라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요망되는 요즘, 혈압·당뇨 등 성인병에 도움을 주지만 일반에게는 다소 생소한 뽕잎차를 소개한다.

#뽕잎의 성분과 효능

비단을 토해내는 누에가 뽕잎만 먹고 살 만큼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다. 식물 중에는 콩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다고 한다. 또 뽕잎에는 녹차의 4배에 해당하는 식이섬유와 시금치의 50배에 해당하는 칼슘, 무우의 160배에 해당하는 철분이 들어 있다. 기타 다량의 아미노산과 미네랄도 함유한다.

특히 혈압강화 및 신경전달 성분인 가바(GAVA)과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고 뇌출혈 등에서 생기는 장해와 출혈성 질환에 좋은 루틴(rutin)성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효과가 있다. 또 혈당을 떨어뜨리는 모란에이(MoranA) 성분은 당뇨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때문에 뽕잎은 감기는 물론 다이어트,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변비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성인병의 종합 예방제로 불린다.

소중한몸 한의원 여동현 원장은 "뽕잎은 찬 성질과 달고 쓴 맛이 있다. 간을 깨끗이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찬 성질은 혈압을 내리는데 좋고, 해열 등에 도움을 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마시기에 좋다"고 말한다.

#사찰에서 만든 뽕잎차

12세기 일본, 영서 스님은 일본에 다도를 유행시킨 인물이다. 스님은 저서 <끽다양생기>에는 뽕잎차를 "선약(仙藥)중 제일 귀중한 선약"이라 묘사했다. 한국 사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현재 산사의 법향을 가득 담아 뽕잎차를 직접 만드는 곳이 있다. 문경 대승사와 합천 금강선원이 대표적이다.

문경은 예로부터 뽕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대승사 탄공 스님은 "사람들이 오면 빈손으로 보내기가 어색해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도 대부분 그냥 선물로 보시한다"고 말했다. 뽕잎차를 만들 때 9번씩 덖는다는 탄공 스님은 "반드시 식힌 후 유념(비비는 과정)한다. 그래야 차가 잘 풀리지 않고 냉한 기운도 없어진다"면서 담백하고 맑으며, 마시면 단침이 생기는 것이 대승사 뽕잎차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뽕잎과 오디.

통도사 말사인 금강선원의 뒷산은 이름부터가 유잠산으로 사찰 주위가 온통 뽕밭이다. 고구마 스님으로 더 잘 알려진 초중 스님은 "처음 주위 스님과 신도들에게 보시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 불사에 시주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전하면서 한해 400~500통으로 생산량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초중 스님은 "금강선원에서 만든 뽕잎차는 첫서리 맞고 난 다음 채취한 야생뽕나무만으로 구증구포를 거쳤다. 때문에 물에 오래 우려도 비린내, 떫은 맛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뽕잎차에 거부감 있던 이들도 즐겨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 스님이 말하는 '첫서리 맞고 난 뽕잎'은 예로부터 '겨울뽕잎(冬桑葉)' 또는 '상상엽(霜桑葉)'이라 해 약효를 으뜸으로 쳤다.

#뽕잎차 효과적으로 마시는 법

5인 기준으로 다관에 뽕잎차를 3~4g 정도 넣고 70도 이상의 끓인 물을 부어 30초쯤 우려 마시면 좋다. 개인별로 차를 낼 때는 찻잔에 1~2g 정도 띄워서 우려 마신다. 5~6번 이상 반복해서 우려낼 수 있다. 찬물에 냉차로 마셔도 좋다. 조동섭 기자

뽕잎차 이렇게 써볼까

❶썰은 뽕잎을 꿀물에 개어 먹기도 한다.
❷뽕잎을 따서 말렸다가 나물로 먹거나 데쳐서 쌈으로 먹기도 한다.
❸뽕잎을 달여 졸인 물은 수술 자리와 화농성 고름 등을 빨리 아물게 돕는다.
❹썰은 뽕잎에 검은콩과 쌀을 넣고 끓인 뽕잎죽은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❹뽕잎 우린 물로 머리를 감고 두피마사지를 하면 탈모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뽕잎차 어디서 구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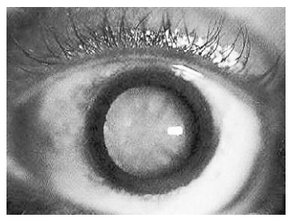
웰빙 열풍을 타고 양잠협회, 식음료회사 등 여러 곳에서 뽕잎차 제품이 출시됐다. 대승사에서 만든 뽕잎차는 보물창고 (02-2261-0255)에서, 금강선원의 뽕잎차는 전화 (055-931-9590)와 인터넷(ggzen.or.kr)으로 구할 수 있다.



20. 백내장

백내장은 노화과정의 하나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에서 시력을 잃고 병원을 오는 환자의 30% 이상이 백내장이며,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백내장은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수정체에 뿌옇게 혼탁이 와서 시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눈은 카메라와 구조가 비슷한데 카메라 내부의 렌즈가 우리 눈의 수정체에 해당한다. 렌즈가 뿌옇게 지저분해지면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듯이 수정체 역시 혼탁이 오면 다른 눈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물이 흐리게 보인다.



수정체 노화과정에서 혼탁 현상 발생

자외선 차단·녹황색 채소 섭취로 예방

백내장 초기에는 실외에서 눈부심,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등의 증상을 느낀다.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므로 50대 이후 시력 이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면 백내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과정이지만 나이와 무관하게 눈 속의 염증이나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으로 백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최근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안약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고, 한번 진행된 백내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백내장)를 제거한 후 투명하고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환한다. 과거에는 백내장을 통째로 걷어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초음파를 이용해 백내장을 제거해 과거와는 달리 짧은 시간에 상처를 거의 내지 않고 수술한다. 시력 회복 속도도 그 만큼 빨라져서 입원이 필요없고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마치 안경의 도수를 정하듯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시력교정술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체는 수정체의 중요한 기능인 거리에 따른 초점 조절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돗보기를 착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근거리도 돗보기 없이 잘 볼 수 있는 노안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등장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고가의 비용이 단점이다.

백내장은 일종의 노화현상이기 때문에 뚜렷한 예방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화를 억제하는 많은 방법들이 백내장 진행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눈의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 원인은 자외선이다. 나이 들어 실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백내장과 망막변성이므로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백내장 발병율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통계도 있다. 술 중독과 흡연 역시 백내장과 관련돼 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 치료가 백내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화억제와 관련된 영양소인 비타민 C, E,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섭취는 백내장 억제와 관련돼 있다.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백내장은 수술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따라서 백내장 진행을 방치하지 말고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다면 대부분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02)755-0055

홈페이지: www.lasikexcimer.com.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불자정보 668호 |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천시 부천대학 부천오피스텔 중간
- 3층 건물중 2층
- 평수 : 약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5138-2037

사찰안내
- 위치 : 양산시 인터체인지5분거리
- 평수 : 대지 120평 임대주차장 200평, 밭 120평
- 형식 : 법당 25평, 단청 되있음 요사채 30평, 아파트구조 가건물 10평(현 사무실로 쓰고 있음)
- 가액 : 2억 5천

스님 010-8699-5872

대전시 서구 암자
- 사용평수 : 28평. 등기필
- 임법당, 심야보일러, 방2 구들황토방 1개
- 산신각, 용천수 있음
- 가액 : 5천5백만원

010-7616-1111
011-9252-905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5층 건물중 2층)42평 삼존불, 108호신불
- 방1, 주방, 샤워실 (비품일체양도)
- 가액 : 2천만원 (전세 500만원 포함)절충가능

010-5013-252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황토 요사채 옆 산, 옆 계곡, 마당잔디 넓은공간, 텃밭, 유실수
- 휴양, 공부, 일반중생도 가능
-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양도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 평수 : 60평
- 4층 건물중 4층(신축건물)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9755-2280

토굴터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 5,064㎡(약1500평) 임야
- 가액 : 평당 28,000원
-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

011-647-4444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산중턱
- 전 632평, 황토방 15평
- 전기 有
- 가액 : 5700만원

010-2775-4035

포교당안내
- 위치 : 김포 신도시
- 실 48평, 3층건물 2층, 주차장, 주인이 불자
- 법당, 원목불단, 후불탱화, 신중탱화, 감로탱화,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합 5천만원 월 30만원

※ 건강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히 안내합니다.

011-763-108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 (상담 후 절충가능)

011-879-75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버스정류장 앞) 주택 상가 빌라 밀집지역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접견실2, 방1, 주방1 뒷 베란다, 다용도실
- 전세 23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8678-420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하단동
- 4층 100평 아파트 밀집지역
- 전세 1억원, 월1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6-475-3408

탈종공고

- 사찰명 : 백련사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12-3번지
- 대표자 : 월봉, 정업

본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2년 2월 27일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재산·문학 작품 통해 적극 불교외호

중국불교의 거사들 〈4〉



그림 · 김홍인

남방불교의 대표자는 바로 혜원 스님이었으며, 북방불교의 대표자는 대승불전의 역경으로 유명한 구마라집(鳩摩羅什)이었다. 혜원 스님과 구마라집은 비록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서신왕래를 통하여 많은 논쟁을 했다. 이 논쟁은 후에 제자들의 편집으로 <대승대의장(大乘大義章)>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진다. <대승대의장>에 따르면 혜원 스님의 학설은 구마라집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혜원 스님은 도생과 혜관(慧觀) · 혜예(慧睿) 등의 뛰어난 제자들을 구마라집에게 보낸다. 당시 중국불교의 최고 석학인 혜원 스님과 구마라집 문하에서 모두 수학한 도생 스님은 불교교의에 없었던 최초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오론'이다.

종전의 불교는 체계적으로 수행의 계위(階位)를 설정해 점진적인 깨달음을 진전시키는 '점오론(漸悟論)'의 입장이었다. <아함경>에는 오온(五蘊) · 사제(四諦), 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차제(次第)법문'이 설해져 "점차로 다가간다(漸次來至)"는 구절이 도처에 보인다. 이런 입장은 대승불교에 그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단계를 설하는 보살의 '열 가지 단계(十地)'로 귀결됐다. 중국불교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따라서 수행의 '계위'와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돈오론'의 제창에는 수많은 스님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구마라집의 제자인 담무성(曇無成)은 <명점론(明漸論)>을 저술하여 '돈오론'을 직접 반박했다. 함께 구마라집의 문하로 보내져 최초로 '오시교판(五時敎判)'을 주장했던 혜관 스님조차도 <점오론(漸悟論)>을 지어 맹렬히 반박했다. 이른바 중국불교사상 최초로 '돈점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돈오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이가 바로 사령운 거사다. 그는 <변종론(辯宗論)>을 찬술해 '점오'의 이론을 철저히 반박했다. 더욱이 거사는 도생 스님을 '공자'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묘사했다. 사령운 거사는 도생의 '돈오론'은 불교를 중심으로 유 · 도 양가의 핵심을 모두 포용한다는 점을 특기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를 가장 '중국적'으로 구현한 것이 '돈오론'이라 평가했다. 사 거사의 옹호 덕분에 '돈오론'은 점차 참답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도생 스님과 함께 구마라집 문하로 갔던 혜예 스님이 <유의론(喩疑論)>을 지어 '돈오론'에 찬성함으로써 점차 '돈오'의 이론은 중국불교의 주류로서 자리 잡게 됐다. '돈오론'은 천태 · 화엄 · 선종을 비롯하여 중국의 거의 모든 종파에 핵심적인 교의로서 자리 잡았다.

도생 스님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옹호와 선양에 나선 사령운 거사의 역할은 사상사적 입장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의 표현처럼 실제 '돈오'의 이론은 불 · 유 · 도 삼교를 포함한 전체적인 동아시아 사상의 핵심이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여산·혜원문하의 거사들❶

돈오의 예찬자 사령운(謝靈運)

삼국시대에 불교와 유 · 도 양가를 결합해 통치철학으로 삼으려던 조조 일가의 시도는 사마의(司馬懿)가 정권찬탈을 목표로 일으킨 군사쿠데타인 '고평릉(高平陵)사변(249)'을 계기로 종말을 고했다. '고평릉사변'은 겉으로는 사마씨의 정권찬탈이지만,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혁신사상에 대한 수구사상의 반발이었다. 달리말해 혁신사상인 '현학(玄學)'에 대한 한조(漢朝)의 전통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명리(名理)'의 반발이었다. 고평릉사변을 통해 집권한 서진(西晉)은 곧이어 불교국을 표방했던 오(吳)와 촉(蜀)나라를 멸하고 새로 중국을 통일했다. 서진의 내부적인 권력다툼으로 50년 집권기는 전란으로 점철됐고, 결국 망하게 돼 북방을 이민족에게 내주면서 남북조시대를 열게 했다.

그러나 서진시기의 폭정은 오히려 중국민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앙을 널리 확산시켰다. 또한 유가사상으로는 더 이상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 남조나 북조의 통치자들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중국불교에서는 뛰어난 고승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고승이 여산 혜원 스님의 스승인 도안(道安) 스님이다. 북방 이민족 침입으로 도안 스님은 혜원을 비롯한 문도를 이끌고 피난하던 길이었다. 잠시 어느 절에 인사를 갔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민족 군대를 피하다 스승과 제자는 영별을 하게 됐다. 결국 스승과 헤어진 혜원 스님은 강남의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주석하게 됐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으로 거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도안 문하에 수많은 거사들이 언급되고 혜원 스님 문하 역시 뛰어난 거사들이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당대의 유명한 문인인 사령운(謝靈運:385~433)과 유유민(劉遺民:352~410)의 두 거사이다.

사령운 거사는 도연명(陶淵明)과 함께 남조(南朝)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거사의 작품은 '산수시(山水詩)'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거사와 함께 혜원 스님의 '백련사(白蓮社)' 결사에 참여했던 도연명 거사의 목가적인 '전원시(田園詩)'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거사는 동진(東晋)의 명장인 사현(謝玄)의 손자로서 당시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던 호족이었다. 조부가 죽은 후 거사는 '강락후(康樂候)'라는 벼슬을 받아 세상에서는 그를 '사강락(謝康樂)'이라 칭했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문재가 뛰어났다. 하지만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자라서였는지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상당히 오만했고, 방탕함을 즐겼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불교에 귀의한 것은 아니었다. 우연한 기회에 동림사에서 혜원 스님을 한번 뵙고는 자신의 오만함과 방탕함을 뉘우치며 마음으로부터 귀의하게 됐다고 한다. <고승전> <불조통기> 등 자료에 의하면, 혜원 스님이 불서와 외서에 모두 뛰어남에 감동해 귀의했다고 간략하게 전한다. 하지만 혜원 스님과의 인연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종론 찬술로 '돈오론' 적극 옹호
동아시아 핵심 사상 자리매김 기여

당시 혜원 스님은 불교사에 최초의 결사(結社)인 '백련사'를 결성하려던 참이었다. '백련사'는 '염불(念佛)수행'과 '서방정토왕생'을 희구하는 중국불교 최초의 결사다. 사령운 거사는 백련결사에 참여하려 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그의 성격이 오만해 다른 이들의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거사와 친했던 도연명이 혜원 스님께 거사의 입사를 거듭 추천했다. 도연명은 당대의 문인답게 멋진 시로서 혜원 스님을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거사는 결사에 참여하는 수행의 증표로 누각을 세워 '번경대(翻經臺)'라 이름 짓고는 그곳에서 <열반경>을 번역했다. 번경대 앞에는 두 개의 연못을 조성하여 '백련사'를 상징하는 '하얀 연꽃'을 심었다. 혜원 스님으로부터 입사를 허락받은 후, 거사는 스님의 청으로 <불영명(佛影銘)>(<광홍명집> 권15에 수록)을 지었다. 여기에는 정토(淨土)에 대한 결연한 신앙심이 아주 짙게 베어져 있다. 이로부터 거사는 유유민과 함께 혜원 스님을 보좌하는 대표적인 거사가 됐다. 혜원 스님 입적(416) 후, 거사는 스님의 비문을 찬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거사의 정치적 행로는 순탄치 않았다. 당시 국정에 불만을 품었던 그는 권력자들에게 마땅히 부처님을 받들고 불도를 구해 선정(善政)을 펼치라는 간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점차 한직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모든 관직을 버리고 산천을 유람하며 수행길에 올랐으나 임해(臨海)태수 왕수(王琇)의 모함으로 사형 당하고 만다. 당시 황제는 그의 재능이 아까워 사형을 면하고 광주(廣州)로 귀양 보내라는 조서를 내렸지만, 거사를 미워하던 무리가 조서를 전하지 않았고 결국 49세의 나이로 처형됐다.

<광홍명집> 권30에 거사의 임종게가 전해지는데, 장부의 뜻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생에 한마음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염원이 깊게 나타난다.

사령운 거사의 업적은 그의 정치적 지위를 통해 이뤄졌던 불법의 외호와 막대한 재시와 그의 문학작품을 통한 불법의 선양 등으로 정리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도생(道生) 스님의 '돈오론(頓悟論)'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이다. 중국불교의 핵심은 바로 '돈오'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령운과 같이 백련사에 참여한 도생 스님은 '돈오성불론'을 제창했다. 이들 '돈오론'을 제창한 배경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북방 이민족과 남방 한족으로 나뉘어 대립됐다. 이런 정치적 영향에서 중국불교 또한 크게 남북으로 그 학풍이 나뉘었다. 이른바 남방이 '의리불학(義理佛學)', 북방이 '성공지학(性空之學)'으로 대변된 것처럼 남방은 현학(玄學)과 불교학이 결합돼 나타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때마침 서역에서 전래된 반야학, 특히 '중관학(中觀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상담학과와 불교학 법사과정 모집(2년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	입 학 자 격
A과정	불 교 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 불심이 돈독하신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 수료 후 법사활동을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불교상담 심 리 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B과정	불교의식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불교서화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명 리 학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원서접수 : 2008년 2월 28일까지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모집인원 : 출강 00명, 통신 00명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1동 법륜사 종무원
☎ 02)2208-6097
정토불교법사대학 사무처 ☎ 02)2208-6098
특기사항 :
• 맞춤형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 본 대학은 종파를 초월한 도량으로 수료증과 불교법사 자격을 품수합니다.
• 본 대학 수료자로 포교당개원(산사 개원)할 경우 지도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淨 土 佛 敎 法 師 大 學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의 : 021961-0871
매주수요일 사주명리학 오후 7시~9시(초급)
매주목요일 기문명리학 오후 7시~9시(고급)

개강일시 2008년 3월(2월부터 선착순 마감)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수 천년동안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학문인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2)3476-3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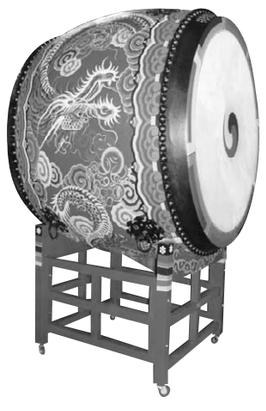
설법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신청자에 한함)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중생들을 제도하라!

부처님의 골수를 알려면

문 얼마 전부터 '정말 이 부처님의 도리를 알려면 부처님의 골수를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앉아서 관해 보기도 하는데 누구한테 여쭤서 빨리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생각도 놔야 하는지요, 아니면 몇 년이 걸리든 뚫고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다. 그 의식에서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밉게 보이든지 뭐 이런 걸 모르고 두서없이 나오게 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다스려서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화신이 화(化)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까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보살이다,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깐 큰 도사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큰스님이다' 이래도 이거 전부 다 오산입니다.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예전에 내가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동네에서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젖소가 아프고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가 아파서 죽는다면, 우리는 살림을 다 망쳐 버리고 애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보살로 화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독사를 건지기 위해서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독사를 보고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진드기 하나 안돼 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 자체의 그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걸 떠나서, 모두 여러분은 기복으로 가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내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만 아는구나. 내 뼈다귀만 아는구나.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고선 눈을 감으실 겁니다. 아마. 모두 알아야 '저 형상은 내 형상이요, 저 몸은 내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마음 내 생명과 둘이 아닌 게 되죠.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다 알고 난 뒤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때까지,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부처가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이 부처님의 마음, 마음자리 골수를 보려면 여러분의 골수를 알아야 부처님의 골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산(日傘) 오백 개를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굴려서, 요리를 만들어서 보여 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신(自性神),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안이 궁이거든요,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궁. 그 궁, 등(燈) 밝은 그 마음들을 밝은 거기에다가 한데 그냥 합쳐서 탁 주장자를 보여 주니깐 확 밝아지면서 대천세계가 그대로 잘 보이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좀 더 그렇게만 가실 수 있다면 스스로 그 궁 안의 밝은 등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바깥이나 안이나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봐도 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컵 하나를 보더라도 보기만 한다고 뭐 되는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안 되고 갖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이래도 안 되고 또 이거 있다는 거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 컵을 마음대로 들고 왔다 갔다 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 속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나?'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도 알아야 하고, 그러고선 요게 요렇구나 하고선 요걸 갖다 주기도 하고, 요걸 갖다 먹기도 하고 이래야 도예요. 예? 이 과정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대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대권이라 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 그러니 그 대권을 얻어라 이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처음에 주인공에 놓는 공부, 무조건 믿고 놓고 물러서지 않는 거. 두번째는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거. 한 발짝도 우리가 그냥 떼어 가는 게 없어요. 생각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깐요.

그러니깐 거기다가 그렇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맡겨 놓고, 역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서 좋을 일은 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나쁠 일은 하지 말라 이거야, 좋지 않을 일은. '아하! 이거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런 거를 시키나. 아! 나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싱긋이 웃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야죠, 맡기고. 거기에 속아서 그냥 그걸 듣고는 남의 호박 따란다고 호박 따고, 호박잎 따란다고 호박잎 따고, 도둑질하란다고 도둑질하고,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고, 이게 온통 무슨 야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주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 보지 않고 자기가 가 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이대로 하신다면 나도 거기 대동소이하게 따라 주는 겁니다. 도둑놈이란 게 뭐 망보는 놈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나 말을 이렇게 해 드리는 나나 다 도둑놈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으니깐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또 이거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여기 이 마음에다 맡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도 횡설수설하는 거를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그 정신병자들이 다 나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해서 더디지, 잠깐 그렇게 그랬던 사람은 그냥 금방 괜찮아지죠. 그러니 제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날뛰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새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침착하게 생각해 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짧으면 길게 하고 길면 짧게 하고,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문 스님, 제 막내아들이 회사에 넣어 놓으면 나오고 방에 들어앉아서 사람 모인 데는 안 가고, 늙은이처럼 한숨만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상석을 놔서 그렇다고 하는 말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답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고가 많습니까? 병고도 많고 애고(哀苦)도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거를 못 보겉랑 현실을 보거라. 현실에 다가오는 걸 본다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느니라. 현실에 어떡하는가 하고 너를 지켜볼 때에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뺏어 갈 이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을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영상과 함께...
풍경영상기획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 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석,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寺,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입종시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 각1통 (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고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거를 녹이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쓰는 대로 움죽거려 주는 것이 이 모습과 생명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익 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도 해 주는 보시를 해야 하고, 행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행을 해야 하는 거죠. 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 보시는 못하나마 마음 보시라도 해야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업보는 세세생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해 주시오' 하지 마시고요. '해 주시오' 하면 둘이 되니까요. 장갑을 낀 손이나 장갑이나 똑같이 손이 속에서 움죽거려서 장갑이 움죽거리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업보를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낫게 해 주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 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서

문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통을 참아내야 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가족들과 의절이 된 상태라 누구하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모두 제가 잘못된 말과 행으로서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의 힘이 약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도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마음과 스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이 인과를 좀 어떻게 녹일 수 없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 이거 봐요. 이 도리는 '죽든지 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아프게 하든지 안 아프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선 딱 놔버릴 때에 진통도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 양으로 바둥바둥한다면 그거는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감응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불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어요.

힘이 없고 있고가 없어요. 잘 하고 못 하고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죠. 자기를 믿는 힘!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오면서 경험을 하게 하고 쫓고 쫓기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이끌고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라는 지금 현재의 자기가 무심 도리(無心道理) 속에 부(父)가 있는 그 자체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이 다 붙어야 이것이 불이, 광명스러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얼마나 진통이 오는데도 그렇게 하니깐 진통도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거를, 그거를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애를 쓰고 움죽거리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이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아주 그냥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려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사이 없이 떼어놓는 그 자체가 그대로 공부예요. 화두를 받아가지고 모두들 하는 사람이 십년 이십년 삼십년 해도 못 하는 이유가 있죠. 앉아서 좌선을 하면 좌선인 줄 알기 때

> 고가 딴 데서 와서
> 불는 게 아니라
> 나한테서
> 일어나는 거니까
>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 쳐 넣으세요!

문이죠. 일어서면 좌선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선이나 와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런 것이 다 한데 합쳐서 생활 자체가 그냥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그거를 모르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참선이고 아, 이러니깐 언제 우주 전체를 한데 집어삼켜. 그 한데 집어삼키기 이전에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나라는 내 중생이 바로 내 한마음에 이끌어져야 하고 그래서 악업 선업이 들어있는 것도 과거에, 벌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하는 게 내가 배낭에다 짊어지고 왔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대로 입력이 돼서 스스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한다면 바로 앞서에 입력된 거는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참 답답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데 그거를 살기를 바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동시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다, 이 도리를 알라 이러는 거죠.

포교에 더 우선을 둬야 하지 않나요!

문 한국 사회에서도 불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 부처님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너 부처가 되리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포교에 더 우선을 둬서 불교도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천번 만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교든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다 타력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기독교를 다니든지 가톨릭교를 다니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단 하나 있다면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고 자기 주처를 믿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아라 이겁니다. 타의에서 구하지 말아라. 불교라는 것이 자의에서 구함으로서 모든 것이 불교지,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떠나서 부처님이 어딨으며 생명을 떠나서, 각자 자기를 떠나서 어디 기독교가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완성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지혜가 바로, 바로 하늘님이고요. 일체 통신력이 바로 한울님이고. 그것이 삼합이 한데 합한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는 기독교니까' 하고 말입니다. 겉상을 쪼르라니 동그랗게 놨는데, 요 겉상이 내 겉상이에요. 항상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자기 겉상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런 나무도 그렇고 전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자 아닌 게 없어요. 불자는 불자 그대로예요, 불자. 생명에 의지해서 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불자. 난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불자 중에서도, 도량에서도 이 신도 저리로 갈까 봐 걱정, 이 신도 다른 데로 갈까 봐 걱정, 이런 걱정은 왜 합니까. 안 오면 어떻고 온들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나는 그래요. 나는 그전에 법당에서 설법할 때도 그랬습니다. "야, 나보다 더 훌륭한 데가 있으면 다들 가서 들어라. 다들 가거라." 이랬습니다.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런 것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전국의 지원에서 불사들을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것도 난 걱정해 본 예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신도 안 올까 봐 걱정할 것 없어요. 왜? 한 사람이면 어때요? 한 사람만 사람이 돼도 이 세상을 손안에 쥐고 다 해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그러니 불자가 많아야 되겠다 적어야 되겠다 이걸 떠나서,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관(觀)해야만 됩니까 이럴 때, 기도라는 건 없어요. 왜?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했지, 관하면 했지 '나를 잘되게 해 주시오.' '이거 왜 안됩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벌써 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지 난 기도라는 거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직접 관해라. 목마르면 직접 마셔라 이런 소립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야, 이 하늘이 열 쪽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죠. 아니 지금 죽으면 어떻고 이따가 죽으면 어

> 죽고 사는 데도
> 놓고
> 생사도 놓고
>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이
> 이 모든 것을
> 벗어날 수 있습니다!

떻습니까. 좀 이따가 죽은들 아 그깟 놈의 것 죽든 살든 어차피 이 낙엽도 떨어질 거, 귀찮게 그걸 왜 움켜쥐고서 죽을까 봐 겁내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를 생기게 합니까. 그러니 좀더 놓아서, 죽고 사는 데도 놓고 생사도 놓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낫게 하는가요?

문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암환자라든지, 현대 의학으로써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스님이 낫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이 낫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도 기도원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낫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그러면 항상 바깥의 노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빌어야 하고, 항상 낫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불교에선 그렇질 않아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세세생생에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너와 나와 말을 할 때, 벌써 이 전기가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해지는 순간이에요. 합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네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내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얘깁니다.

알아듣겠어요? 양쪽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쪽 놈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쪽 놈이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과 마음은 전기와 같이 탁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놈이 낫게 해 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번쩍 켜진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을 할 때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욕을 안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을 해요. 그거를 자비라고 해요. 무조건 하는 것이 자비예요. 거기 이유가 붙어서 사랑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그 자체는 너무 고정되게 있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걸어온 자체가 없고, 말한 자체가 없고, 이름을 부른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이 돌아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가니, 그걸 비유해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아주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다면 먼지 앉을 게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런 거를 몰라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컵 하나에도 지수화풍을 통해서 바로 우주개공이 있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이 낫게 해 주셨다고 안 하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낫게 했다.'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이 한 열매가 열려서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낫게 했지요. 안 그런가요? 업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선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바로 애고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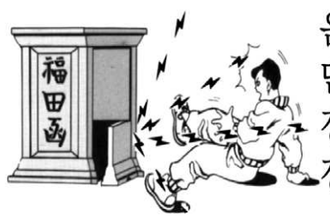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2008년 3월 6일 (오전 11시)
(수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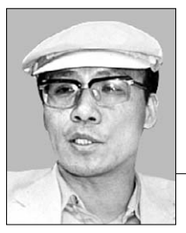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 세상보기

이 기 선
조계종성보문화재위원

숭례문과 런던의 한국문화원

지난 2월 10일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국치일(國恥日)이었다. 한 나라의 수도인 서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어이없게도 불에 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를 지켜보면서 온 국민의 마음도 새카맣게 탔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긍심도 무너져 내렸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화재 이후의 뒤처리 과정은 더욱 실망스럽다.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문화재 방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방화범이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꼴이나, 200억을 들여 3년이면 복원할 수 있다고 서둘러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문화재청 관계자나, 복구비를 국민성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나 모두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숭례문 중건을 위해 국민들은 자원봉사 문의를 하고, 네티즌들이 목재 찾기 운동을 하는 등 국민이 하나 돼 숭례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라 밖에서 이루어졌다. 영국 런던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유럽에서 파리와 베를린에 이어 세 번째 정식으로 개원한 것이다.

영국 문화원 본부, 캐나다 하우스, 영국미디어 체육부, 내셔널 갤러리 등이 운집한 트라팔가에 아시아 국가의 해외문화원이 처음으로 들어선 것이다. 한류의 확산과 한국문화의 홍보거점이 마련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안에 인도 · 이집트 · 스페인 세 곳에 해외문화원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라 한다. 현재 12곳에 개원한 해외문화원을 2013년까지 총 3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며, 선진국 중에서 벗어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별 진출을 위한 전략지를 선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등 문화 · 관광 기관을 통일 장소에 입주시켜 문화거점화하는 코리아센터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현재 코리아센터는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상하이 등 3곳에 운영 중이다.

이제 우리 문화도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뜻 깊은 일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그 나라가 지닌 문화가 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이것이 미래를 가꾸는 핵심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화두이다.

숭례문을 되살리는 일, 그것은 단지 옛 모습대로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다. 겉모습만 닮았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숭례문에 담겨 있던 역사상과 문화상을 살피고 이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과 지혜가 함께 깃들어야 한다.

숭례문의 비극은 우리 시대의 참극(慘劇)이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중지(衆智)를 모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회성 선심공약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하게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 장 · 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법률적인 보완, 획기적인 예산확보와 탄력적인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화는 국력이다. 그리고 문화는 국가의 품격이며 아울러 국민의 행복감을 고취시킨다.

불자의 눈

해제, 또 다른 출발일 뿐

전국의 선원에서 동안거에 들었던 2000여 출가 대중과 각 사암에서 정진했던 재가불자들이 2월 21일 정월보름을 맞아 안거를 해제했다. 작년 10월 15일(음력) 각자의 화두를 품고 안거에 들었던 수행자들이 얼음 풀리는 계곡을 따라 만행을 나선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안거수행의 전통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 불리는 것도 바로 안거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 일정기간동안 대중이 모여 정해진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거의 전통은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 다시 말해 자기를 비우고 버리라는 가르침을 훈습하고 체화하기에 꼭 맞는 수행방법이다. 물론 결제와 해제라는 개념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는 형식으로써의 결제와 해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숨 쉬는 매 순간 수행자로서의 '갈망'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견성성불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하는 수행자에게 해제 날은 또 다른 수행의 길을 나서는 날일뿐이다.

그래서 방장 조실스님들은 한 결 같이 결제와 해제를 초월해 자기의 근본을 닦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출가 수행자건 재가불자건 하루하루가 매일 수행하고 정진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직장불자회에 관심과 지원을

이 달 들어 대전지방경찰청불자회가 창립됐고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도 창립됐다. 대전지방경찰청불자회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청이 되면서 독자적인 신행단체를 결성했다.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도 똑같은 경우다.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의 경우 서울시에 소속된 20개 구청 불자회가 연합회를 꾸린 것이다.

이 세 단체의 창립은 조직 형성 과정에 상반된 개념을 갖지만 내용적으로 분명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활기(活氣)'다. 공직에 있는 불자들의 불심이 개인의 신행 차원을 넘어 동료애와 임무에 대한 열정적인 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단체는 새로운 틀을 꾸리면서 조직의 외형적 확대와 성지순례 정기법회 등을 통한 신심고취를 다짐하고 있다. 신행단체의 근본을 튼튼하게 지켜가겠다는 의지다. 세 단체의 창립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내실과 외형을 함께 증장시키는 모범적인 모임이 될 것을 주문했다.

직장은 가정과 함께 한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단위조직이다. 그래서 가정신행 만큼이나 직장에서의 신행활동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정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 봐도 직장에서의 신행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늠되는 일이다.

사회의 기본단위에서 자생해 활동하는 직장불자회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출범한 세 단체가 직장불자회 활동의 모범이 되고, 직장불자회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침 5분 참선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2 아침 참선의 에너지

참선이란 좋은 것

대학생 이군은 참선의 효과에 대해서 배우고 놀랐다. 하루에 잠시라도 집중하여 참선을 하는 것이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 이해력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의 마음 다스리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한단 말인가. 매일 약속이 있고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스님께 "전 귀가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하루 중 언제 그 참선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시면 못할 것 같아요"라고 여쭈었다. 스님은 "그래, 바쁘고 열심히 사니 일정한 시간을 정해 참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아침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저녁에는 일이 많아 잠자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시간만큼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 보세요. 하루를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한다는 것, 그 리듬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라고 하였다.

좌선으로 여는 아침

이군은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5분간만이라도 참선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루를 시작하는데 더 의욕이 생기는 것 같다. 왠지 더 안정되는 느낌이다. 비록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쁘지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보았더니 활기가 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주일을 꾸준히 해 보니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3주째 이제 아침 5분 참선이 점차 몸에 배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10분으로 늘려가려고 한다. 해보았더니 15분까지 가능했다. 처음에는 5분간 앉아있던 것에 익숙해서 5분이 넘으니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고 한다. 그래도 알람을 맞추고 15분간 앉아있었다. 어려웠다. 금방 일어나려 했지만 참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고비가 왔다. 잘 되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아, 5분만 더 잤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전날 늦게 잠자리에 들고 난 아침은 특히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유난히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군에 입대하는 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우는 너석, 또 토익점수가 잘 나왔다고 한턱 쏘겠다는 선배 등. 이걸 거절할 수는 없지 않나 하면서 아침에 "어제는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은 못하겠어"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실제로 몸이 피곤하여 잠을 더 자야할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2주간 아침 참선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었다.

참선으로 마음에 봄 맞이하기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하루를 엉망으로 정신없이 시작하게 되는 점이었다. 10시 학원수업에도 간신히 맞추어 가고 약속이 있으면 늦기 일쑤였다. 금방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군은 문득 불안하고 우울해졌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쾌하게 일어나서 좌선을 했었다. 그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것 같았었다.

하루 일정도 안정되고 항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이 어려운 취업난에 난 뭐가 되려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군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자!"라고 다시 마음먹었다. 아침을 매일 참선으로 열어야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다. "아침에 15분 참선하며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고 싶어요." 이제 다시 개강이다. 이군은 이번 새 학기를 참선과 함께 마음과 생활에 참다운 봄이 피어나는 학기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학업이나 취업준비나 인간관계나 다 조금씩 향상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자녀 교육에 활용
- 신도 포교에 활용
-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 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이웃에 건강 복 짓기 활용

강좌세부 내용 한번의 수강으로 이론,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12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2008. 3. 1(토) ~ 3. 2(일)〈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 강사 : 충남청양교육장(충남 청양군 소재)
- 수강료 : 40만원 (순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옷(또는 운동복)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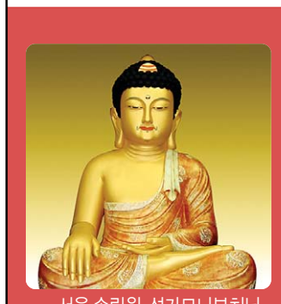
성불조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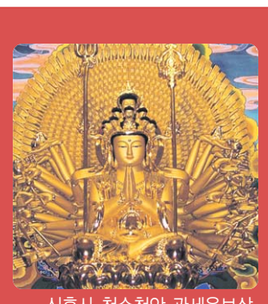
www.sungb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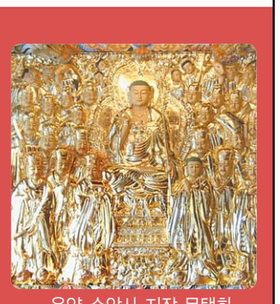
귀의 삼보 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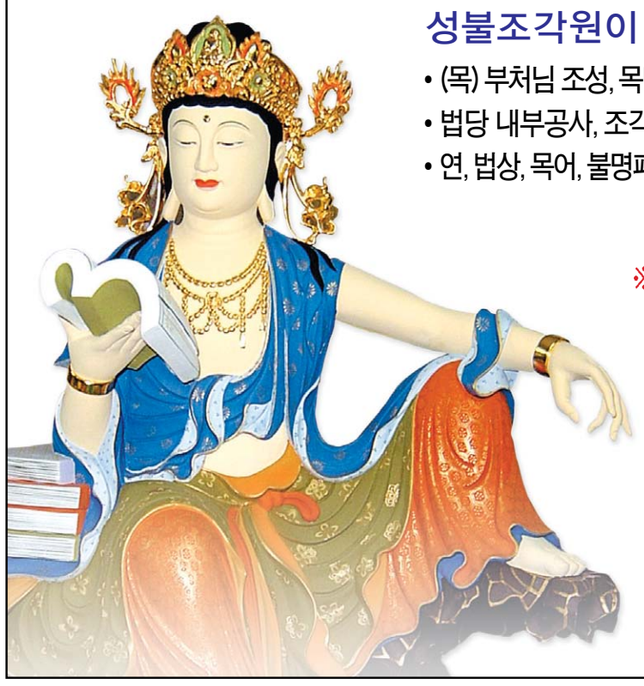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017-379-0590
  경남지사 011-588-8317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공 단 등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청사초롱

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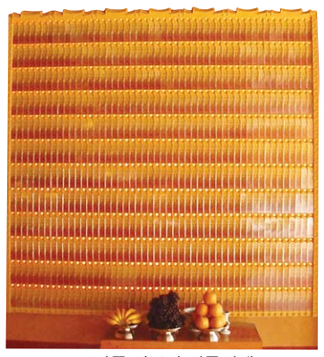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얘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얘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